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sign Elements Expressed in Contemporary  
Make-up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2008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美術學科

房 秀 珍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崔 英 勳

이 論文을 美術學 博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美術學科

房 秀 珍

房秀珍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조석	大學校	教授	조석	
位 員	홍호	大學校	教授	김상훈	
位 員	조석	大學校	教授	조석	
位 員	湖南	大學校	教授	吳炫 姓	
位 員	朝鮮	大學校	教授	崔 某 姓	

2008年 2月

朝鮮大學校大學院

# 목 차

## ABSTRACT

<b>I. 서론</b> .....	1
A.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내용 및 방법 .....	3
C. 분석방법 .....	4
D. 데리다 이론과 메이크업의 연구 흐름 .....	5
<b>II. 이론적 배경</b> .....	8
A. 해체주의 이론의 배경 .....	8
B. 해체주의 이론의 특성 .....	9
C. 해체의 의미 .....	12
D.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주요 개념과 전략 .....	13
E. 해체주의 예술 .....	23
F. 오투꾸뜨르 컬렉션 .....	31
<b>III. 자크데리다 해체주의 이론을 통해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과 표현</b> .....	32
A. 현대 메이크업의 정의와 특징 .....	32
B.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고찰 .....	33
C.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	34
D. 해체 메이크업의 표현 특징 .....	54
E. 양식과 조형적 소재의 혼재 .....	55

IV. 해체 메이크업의 조형적 소재 요소 .....	57
A. 해체 메이크업의 조형적 소재 요소 분류 .....	57
V. 연구문제의 도출 및 연구방법 .....	81
A. 연구문제의 도출 .....	81
B. 연구방법 .....	82
C. 코딩시트의 개발 .....	83
D. 전문가의 선정 및 사진의 평가 .....	87
VI. 실증분석 .....	88
A. 분석의 개요 .....	88
B. 메이크업의 형태적 요소에 관한 연도별 빈도 분석 .....	89
C. 기간별 차이 분석 .....	103
D.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	111
E. 교차분석 결과 .....	114
VII. 결론 및 제언 .....	138
참고문헌 .....	143
<부록 1> 내용분석 코딩 시트 .....	148
<부록 2> 사전조사용 설문지 .....	150

# 표 목 차

<표-1>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	10
<표-2> 데리다의 해체과정 .....	22
<표-3> 해체주의 예술의 일반적 특징 .....	30
<표-4> 오뚜꾸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	53
<표-5>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조형적 요인과 세부 유형의 도출 .....	57
<표-6> 눈썹 형태 유목표 .....	62
<표-7> 눈의 형태의 유목 .....	67
<표-8> 입술의 형태에 따른 유목표 .....	69
<표-9> 볼의 형태에 따른 유목표 .....	70
<표-10> 얼굴 형태에 따른 유목 .....	73
<표-11> 얼굴 피부 톤 색상에 따른 유목표 .....	74
<표-12> 질감에 따른 유목표 .....	76
<표-13> 오브제에 따른 유목표 .....	80
<표-14-1> 연도별 눈썹 메이크업의 유형 .....	89
<표-14-2> 연도별 정상위치 눈썹 메이크업 빈도변화 유형 .....	90
<표-15-1> 연도별 눈 메이크업의 유형 .....	91
<표-15-2> 연도별 눈 끝 강조 및 새도우 확장 빈도 변화 .....	92
<표-16-1> 연도별 입술 메이크업 유형 .....	93
<표-16-2> 연도별 이색색상 사용형태 빈도변화 .....	94
<표-17-1> 연도별 볼 메이크업 유형 .....	95
<표-17-2> 연도별 볼의 산발적 형태 빈도변화 .....	96
<표-18> 연도별 얼굴 메이크업 유형 .....	97
<표-19-1> 연도별 얼굴 베이스 메이크업 색상 유형 .....	98
<표-19-2> 연도별 갈색 베이스 메이크업 유형에 대한 빈도 .....	99
<표-20> 연도별 질감의 유형 .....	100

<표-21-1> 연도별 오브제의 유형 .....	101
<표-21-2> 연도별 보석류와 레이스 이용에 대한 빈도 .....	102
<표-22> 눈썹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	103
<표-23> 메이크업 눈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	104
<표-24> 입술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	105
<표-25> 볼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	106
<표-26> 얼굴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	107
<표-27> 색상 메이크업 의 기간별 차이 분석 .....	108
<표-28> 질감 메이크업 유형의 기간별 차이 분석 .....	109
<표-29> 오브제 메이크업 유형의 기간별 차이분석 .....	110
<표-30> 메이크업의 전체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	111
<표-31> 형태와 오브제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	112
<표-32> 색상과 질감의 상관관계 분석 .....	113
<표-33> 눈썹과 눈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14
<표-34> 눈썹과 입술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15
<표-35> 눈썹과 볼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16
<표-36> 눈썹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17
<표-37> 눈썹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18
<표-38> 눈썹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19
<표-39> 눈썹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0
<표-40> 눈과 입술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1
<표-41> 눈과 볼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2
<표-42> 눈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3
<표-43> 눈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4
<표-44> 눈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5
<표-45> 눈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6
<표-46> 입술과 볼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7
<표-47> 입술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8
<표-48> 입술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29
<표-49> 입술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0



<표-50> 입술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1
<표-51> 볼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2
<표-52> 볼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3
<표-53> 볼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4
<표-54> 볼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5
<표-55> 얼굴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6
<표-56> 색상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137

## 그림 목차

〈그림-1〉 2004-2005 A/W Housca .....	24
〈그림-2〉 2005 S/S Christian Dior .....	24
〈그림-3〉 2006 S/S Dominique sirop .....	24
〈그림-4〉 2005 S/S Christian Dior .....	25
〈그림-5〉 2005 S/S Christian Dior .....	25
〈그림-6〉 2004-2005 A/W Christian Dior .....	26
〈그림-7〉 2005 S/S Christian Dior .....	26
〈그림-8〉 2004-2005 A/W Christian Dior .....	26
〈그림-9〉 2005 S/S gamma seta .....	27
〈그림-10〉 2006 S/S Jean-paul Gaultier .....	27
〈그림-11〉 Fountain, 1917 Readymade: Porcelain Urinal .....	27
〈그림-12〉 라빌레떼 공원(Park de la Villete) .....	29
〈그림-13〉 점, 선, 면, 폴리가 가미된 라빌레떼 공원 .....	29
〈그림-14〉 바바라 크루거(Barbara Kluger, 1989)의 해체 사진 .....	30
〈그림-15〉 올리비에로 토스카니(Oliviero Toscani)에 의한 베네통 광고 .....	30
〈그림-16〉 2005 A/W Christian Dior .....	35
〈그림-17〉 2005 A/W Christian Dior .....	35
〈그림-18〉 2005 A/W Christian Dior .....	36
〈그림-19〉 2005 A/W Christian Dior .....	36
〈그림-20〉 2005 A/W Christian Dior .....	37
〈그림-21〉 2005 A/W Christian Dior .....	37
〈그림-22〉 2004 S/S Fastiegi zi .....	37
〈그림-23〉 2004 S/S Christian Dior .....	40
〈그림-24〉 2000-2001 A/W Givenchy .....	40
〈그림-25〉 2004 S/S Christian Dior .....	42

<그림-26>	2007 S/S Christian Dior	42
<그림-27>	2004 S/S Christian Dior	42
<그림-28>	2000-2001 A/W Givenchy	44
<그림-29>	2002 S/S Christian Dior	44
<그림-30>	2006 S/S Givenchy	44
<그림-31>	2006 S/S Christian Dior	44
<그림-32>	2003 S/S John Galhano	44
<그림-33>	2004 S/S Ritratti Onirici	44
<그림-34>	2007 S/S Christian Dior	46
<그림-35>	2006 A/W Christian Dior	46
<그림-36>	2006 A/W Christian Dior	46
<그림-37>	2005 S/S Sorelle Broy	46
<그림-38>	2004 S/S Christian Dior	46
<그림-39>	2007 S/S Christian Dior	48
<그림-40>	2006 S/S Christian Dior	48
<그림-41>	2006 S/S Christian Dior	48
<그림-42>	2005 S/S Christian Dior	49
<그림-43>	2007 S/S Christian Dior	49
<그림-44>	2004-2005 A/W John Galliano	50
<그림-45>	2003 S/S Schorrer	51
<그림-46>	2006 S/S Christian Dior	53
<그림-47>	2002 A/W Christian Dior	60
<그림-48>	2004, 2005 A/W Christian Dior	60
<그림-49>	2007 S/S Christian Dior	60
<그림-50>	2004 S/S Christian Dior	60
<그림-51>	2004 S/S Christian Dior	61
<그림-52>	2003-2004 A/W Christian Dior	61
<그림-53>	2004 S/S Christian Dior	61
<그림-54>	2003 S/S Christian Dior	61
<그림-55>	2002 A/W Christian Dior	61

<그림-56>	2005 S/S Christian Dior .....	61
<그림-57>	2004-2005 A/W Christian Dior .....	62
<그림-58>	2002 A/W VALENTINO .....	64
<그림-59>	2002 A/W Christian Dior .....	64
<그림-60>	2004-2005 A/W CHANEL .....	64
<그림-61>	2000-2001 A/W GIANNI MOLATO .....	64
<그림-62>	2004 S/S Christian Dior .....	64
<그림-63>	2002-2003 A/W ZUHAIR MURAD .....	64
<그림-64>	2003 S/S ROSETTE METTE .....	65
<그림-65>	2003-2004 A/W Christian Dior .....	65
<그림-66>	2002 A/W Christian Dior .....	65
<그림-67>	2007 S/S Christian Dior .....	65
<그림-68>	2004 S/S Christian Dior .....	65
<그림-69>	2004 S/S Christian Dior .....	65
<그림-70>	2004 S/S Christian Dior .....	66
<그림-71>	2004 S/S Christian Dior .....	66
<그림-72>	2004 S/S Christian Dior .....	66
<그림-73>	2001 S/S Roberto Spiaelli .....	66
<그림-74>	2004 A/W Christian Dior .....	68
<그림-75>	2001 S/S RUSY GARGO .....	68
<그림-76>	2002 A/W Christian Dior .....	68
<그림-77>	2004-2005 A/W Christian Dior .....	68
<그림-78>	2004-2005 A/W Christian Dior .....	68
<그림-79>	2004-2005 A/W Christian Dior .....	68
<그림-80>	2004 S/S KHALED .....	70
<그림-81>	2004 S/S VALENTINO .....	70
<그림-82>	2007 S/S Christian Dior .....	70
<그림-83>	2004 S/S Christian Dior .....	70
<그림-84>	2002 S/S Christian Dior .....	71
<그림-85>	2004 S/S AFRIGAN GREEN .....	71

<그림-86>	2003 S/S Christian Dior	72
<그림-87>	2002 S/S Christian Dior	72
<그림-88>	2002 A/W ENANUEL UNGARO	72
<그림-89>	2002-2003 A/W Christian Dior	72
<그림-90>	2003 S/S Christian Dior	72
<그림-91>	2003-2004 A/W Christian Dior	74
<그림-92>	2003-2004 A/W Christian Dior	74
<그림-93>	2003-2004 A/W Christian Dior	74
<그림-94>	2002 A/W Christian Dior	75
<그림-95>	2003-2004 A/W Christian Dior	75
<그림-96>	2004 S/S A/W Christian Dior	76
<그림-97>	2002 S/S Christian Dior	79
<그림-98>	2003 S/S Christian Dior	79
<그림-99>	2003 S/S Christian Dior	79
<그림-100>	2004 S/S Christian Dior	79
<그림-101>	2004 S/S Christian Dior	79
<그림-102>	2003 S/S Christian Dior	79
<그림-103>	2002 S/S Christian Dior	80

# ABSTRACT

## A Study on Design Elements Expressed in Contemporary Make-up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Bang Su-Jin

Advisor: Prof. Choe, Yung-Houn

Department of Ar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design elements expressed in contemporary make-up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to examine the change patterns of make-up during the recent 14 year period with respect to the deconstructive make-up style, and to investigate the intercorrelations among the design elements or dimensions of forms, colors, textures, and objects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make-up.

This research employed both qualitative method and quantitative metho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construction aspects of make-up. The basic material used in this study was the collection from Spring/Summer Season in 1994 to Spring/Summer Season in 2007. Data in collection pictures were qualitatively coded separately in prepared coding sheets by six experts who are professors in the major areas of make-up. The coding sheet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theory was conceptualized to have characteristics of disformation, undecidability, and intertextuality which are also consisted of the concepts with decadence, palyfulness, bisexuality, and historical origin. These 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are theorized to influence the contemporary make-up design elements such as forms, colors, texture, and objects.

The empirical results of deconstruction expressions in contemporary make-up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design elements of forms, the make-up expressions of eyebrow, eye, lip, cheek, and face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e disformation aspect based on deconstruction. Face make-up colors and textures were also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such as decadence and palyfulness. In addition, design element of objects used in contemporary make-up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deconstruction characteristic.

Second, this study classified the whole 14 years in the four periods to analyze the change patterns of make-up: 1st period (1994-1997), 2nd period (1998-2000), 3rd period (2001-2003), 4th period (2004-2007). The strength of deconstruction expressions which appeared in make-up style among the 4 periods was found to increase in order as the time is close to the present.

Third,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textuality based on the deconstruction make-up expressio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mong the design elements of forms, colors, textures, and objects.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the design elements. That is, if the forms showed deconstruction characteristic in a picture, other design elements of colors, textures, and objects were also found to appear deconstruction styles in the same picture.

Fourt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ixed deconstruction design patterns which appeared in the design elements, cross-tabu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among the design elements. In particular, the cross-tabulation analyses between design forms and objects showed that the deconstruction make-up expressions were performed in a mixed fashion of forms and objects together. Also, the cross-tabulation analyses between colors and textures showed the same deconstruction make-up expression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in general that the 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disformation and intertextuality led the contemporary make-up style which is comprised of design elements of forms, colors, textures, and objects.

# I. 서론

## A.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필요성

최근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개방화되면서 사회적 규제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 유연성이 있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 세계의 어느 국가든 하루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면서 문화적인 이질감은 더욱 축소되어 다양한 메이크업 방식의 시도나 패션기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메이크업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상은 20세기 중·후반부 들어서 하나의 정신사적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탈구조주의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탈구조주의이란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일정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경계가 무너지므로써 어떠한 가치체계든 서로 연관성을 갖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관성과 공존의 원리는 기존의 것을 해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탈구조주의는 해체주의 이론과 밀접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왔다. 해체주의 이론은 메이크업에 있어 파격적 또는 전무후무한 다양한 기법의 사용, 과도한 색상 강조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방식 등을 일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 같은 기법과 가치관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해체주의적 특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반요인과 문화적 상황, 이론의 성립 등은 일반 대중이 접하게 되는 메이크업 컬렉션(collection)이나 잡지, 화장품 기업 광고 홍보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이 활성화 되면서 그와 관련된 패션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0년 이후 일부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진행 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동향을 보면 해체주의 이론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의상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토털 뷰티를 추구하는 최근 추세로 볼 때 메이크업분야에 있어서도 해체주의의 이론의 적용과 실재에 관하여 실증분석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 모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한명숙, 2004)처럼 문헌 조사에 기반 하여 메이크업의 동향을 분석 고찰 하였고 또한 실증분석은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이수인, 2005)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분야는 실제사회에서 또는 패션 및 메이크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체주



의적 메이크업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동향이나 해체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메이크업 기법 간의 상호 관련성을 추구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실제로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형성하고 왔으며 이런 사상과 개념들이 다양한 문화사상 분야와 예술 장르에서 적용 되서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선행 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과 디자인 분야와 미(美)라는 측면에서 공유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데리다의 이론의 논의에만 그쳐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데리다의 정신적, 문화적 사상이 현대 메이크업에 적용 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특징적 차원을 보이는가를 실증 분석을 통해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즉, 수많은 현대 메이크업이 실제 샘플을 가지고 분석 했을 때 데리다가 주장하는 해체주의적 특성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데리다가 주장하는 해체주의 특성인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이 다양한 현대메이크업 샘플을 구조적으로 분석 했을 때 나타남을 확인하는 연역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은 이론 개발과 과학적 조사방법의 연결 고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시차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해체주의적 메이크업기법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특성과 다양성을 갖고 진행되어 왔는지 연구해봄으로써 메이크업 분야가 얼마나 실재로 이시대의 정신적 흐름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 트렌드의 형성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사회의 문화적 예술적 한분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변화양상을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종 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치관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 기법의 다양한 변화와 실제사용을 늘여가고 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체주의 이론 메이크업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기존의 가치관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탈 전통적인 다양한 메이크업 기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이론화 되어있지만 그 자체로 메이크업 기법에 있어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트렌드는 또 정해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동안의 메이크업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14년에 이르는 기간의 메이크업의 동향과 주요 방향성을 분석하여 이론 개발에 기여하고 메이크업 관계 기업 등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목적

본 연구는 일반 대중에 가장 어필하여 유행을 선도하고 있고 전위적인 메이크업기법과 탄탄한 내용의 구성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지난 14년 간(1994~2007) 오뚜꾸뜨르 컬렉션에서 발간된 사진 샘플을 대상으로 해체주의

적 메이크업의 특성과 실재적용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 세계의 트렌드를 유도하고 있는 지방시, 베르사체, 크리스찬 디올 등 세계 유명 브랜드와 선구적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제품과 메이크업 기법을 선보이기 위해 시범무대로 이용하고 있는 오프꾸뜨르 컬렉션에 대한 분석은 최신 유행 패턴을 조사 분석하기에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4년에 걸쳐서 발간된 오프꾸뜨르 컬렉션에 수록된 수많은 사진을 매년 30매씩을 선정하여 분석 샘플로 하였다.

이들 샘플 사진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도출하는 메이크업의 디자인적 특징적 차원에 따른 메이크업 방식 및 기법을 코딩화하여 해체주의적 특성이 현대메이크업에 실제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또한 메이크업이 과연 해체주의의 이론과 관계성을 실증 분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패턴은 심화될 것으로 추론한다. 즉, 해체주의 특성인 탈 구성 불확정성, 상호 텍스트성 이 현재에 이를수록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는 지난 14년을 4기간으로 나누어 이 기간 중에서도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패턴이 변화되는 추세를 보고자 하였다. 제1기는 1994년-1997년, 제2기는 1998년-2000년, 제3기는 2001년-2003년, 제4기는 2004년-2007년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이들 메이크업 차원은 각 차원이개별적으로 해체주의적 특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해체주의적 특성이 더욱 부각하려면 여러 차원들이 혼재되어 동시에 나타날 때 더욱 현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샘플 사진 상에 동시에 나타난 차원간의 연관성을 상관 분석으로 실증 분석하여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디자인의 특성은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차원에서 주로 나타난 것으로 이론화 하였다.

넷째, 메이크업 디자인 측면에서 해체주의적 특징이 크게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추론되는데 형태차원과 오브제 차원이 혼재되고, 색상차원과 질감 차원이 혼재되는 현상이 클 것이다. 또한 형태차원 내에서도 부위별 해체주의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실태분석차원에서 차원 간 및 차원 내 혼재현상을 교차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B.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선행연구에는 해체주의적 특성과 관련하여 문헌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실증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특성의 동향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전위적이고 최신유행을 선도하는 오투꾸뜨르 컬렉션을 선택하여 지난 14년 간의 해체주의적 메이크업과 관련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행 또는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이 특정 인물의 동일 메이크업 내에서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등의 차원에서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며 얼굴 부위 간에도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므로 이들 혼재현상에 대해서 메이크업, 디자인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지난1994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14년간의 오투꾸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사진을 매년30매의 샘플 사진을14년 간 총420매를 연구대상 샘플로 이용하였다. 이에 앞서 해체주의이론에 입각하여 탈 구성,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의 특징이 메이크업 디자인에 표출되는 현상을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등 4개 차원으로 대분류하였다. 형태적 차원은 눈, 눈썹, 입술, 볼, 얼굴 등 부위의 메이크업패턴에 있어 해체주의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코딩 시트를 개발하였다. 코딩시트지 개발방법은 실무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받아 각 유목들을 도출하였다.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디자인이 실제 420매의 사진 샘플에 나타나는 패턴이나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메이크업 분야의 전문가 6인을 채용하여 사전에 제작된 코딩시트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각 전문가는 420매에 이르는 샘플 사진을 보고 각 샘플 사진마다 코딩시트에 기입하는 매우 힘든 작업을 거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실시한 다음 해체주의 메이크업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샘플 사진들을 분류하여 대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문헌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판단자 6인의 코딩 시트를 가지고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차원 현상 및 추세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정성적인 사례조사와 정성적 자료를 코드화해서 정량적 분석방법을 채용한 다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 C. 분석방법

전문가 6인이 작성한 코딩시트의 데이터를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해체주의적 주요 디자인 요소로서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4가지에 따른 세부적인 메이크업 표현방법으로써 얼굴 부위별 형태, 다양한 색상의 사용, 글로시 등 얼굴에의 질감적 사용, 다양한 소재의 사용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과 빈도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난 14년간 해체주의 메이크업 화장기법의 다양화와 빈도수의 증가에 대한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간을 4기간으로 나누고 기간별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화장기법에 있어 상호 연관성과 무한한 화장기법 사용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혼재성에도 불구하고 상호관련성이 높은 화장기법 등이 존재하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차분석(cross tab)을 실시하여 상호텍스트성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 D. 데리다 이론과 메이크업의 연구 흐름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를 하였다. 데리다 해체이론의 탈 현상,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을 현대메이크업에 적용했을 때 그 특징들을 퇴폐성, 유희성, 역사성, 양성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한 표출현상들을 메이크업에 적용시켰다.

탈 현상은 통일성, 전체성의 파괴로써 내부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이나 종교적 비전통성을 추구함으로 자연의 의미가 부여된 과거의 형식을 차용해서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 내는 역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탈 서구나 레트로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탈 현상은 과거와 미래를 차용하여 현재를 새롭게 표출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는 퇴폐성으로도 코드화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으로는 그로테스크와 하위문화로 나타난다.

상호텍스트성은 폭력적 서열제도나 이원적 대립 로고스 중심해체로써 인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병행 인용된다. 즉, 하나의 텍스트로서는 자율존재가 불가함으로 서로 교차하여 확장 상호작용을 한다. 이에 해당하는 해체메이크업의 특성은 양쪽성을 다가지고 있는 양성성을 들 수 있다.

불확정성은 해체된 텍스트 속에 불안정성과 비 확정정성으로 무한한 산종을 열어 주고 있다. 회화적 텍스트의 해체로서 서로 간에 재구성과 우연의 미와 미완성을 주는 유희성으로 코드화시킨다. 그 특징적 현상으로는 부조화와 미완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이론이 현대메이크업에 적용됐을 때 그 표출된 표면적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오픈썬 컬렉션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그 결과 메이크업의 형태 및 소재의 혼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1994년부터 2007년 까지 해체적 경향이 짙은 사진을 각 년도마다 30매씩 선정하여 메이크업의 조형적 형태들과 색상, 질감, 오브제

들의 차원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차원들을 중심으로 코딩 시트지를 만들어 미용전문가 6인에게 조사하여 체크 하도록 했다. 체크된 코딩 시트지를 가지고 앞에서 언급했던 분석방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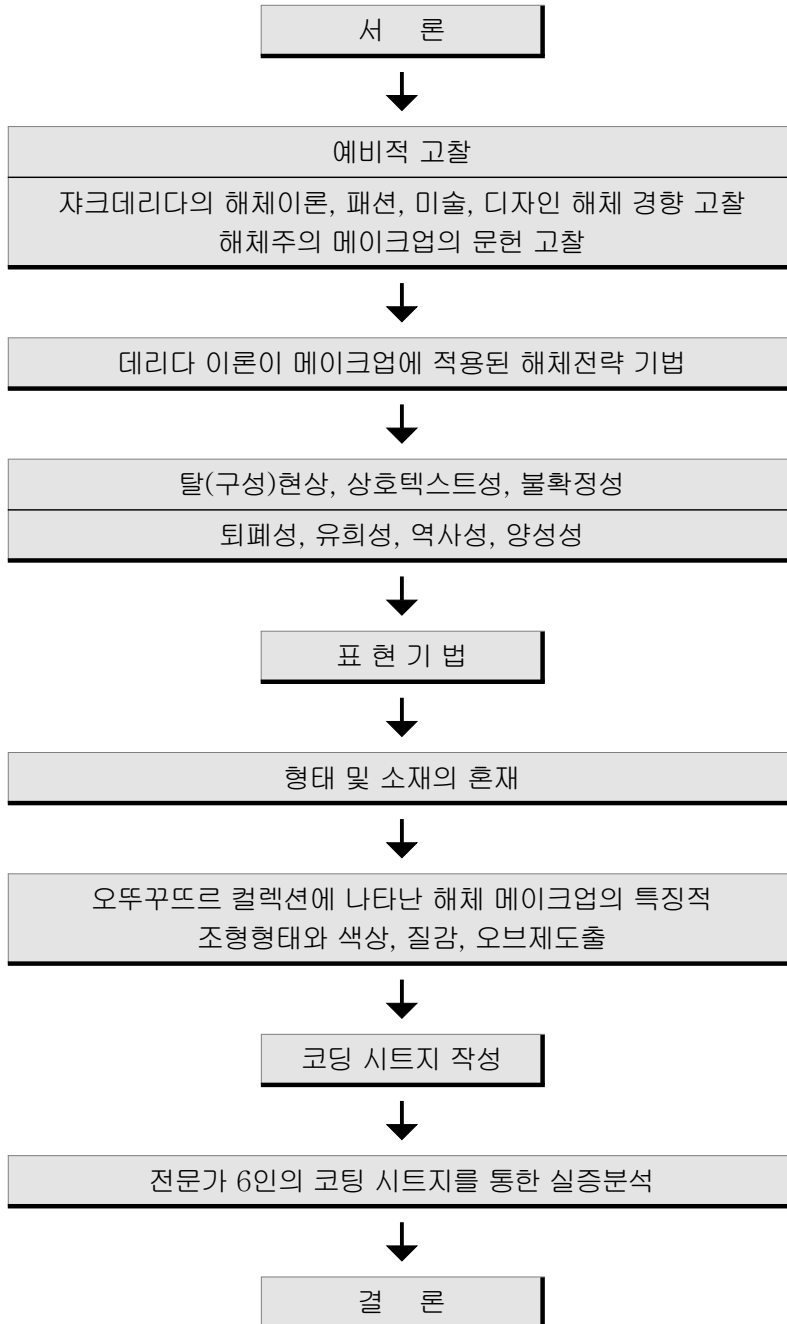
데리다 이론의 탈 현상,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이 현대메이크업에 적용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퇴폐성, 유희성, 역사성, 양성성이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적 조사방법은 두가지방법을 채용하는데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

연역적 방법이란 이론에 기초하여 가설을 도출하고 관찰을 통해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귀납적 방법이란 관찰을 먼저 한 후 여러 가지의 사실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연역적 방법으로써 자크데리다의 해체이론의 다양한 개념 중에 메이크업 디자인과 관련 있는 개념으로써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을 도출하고 이들 주요개념들이 현대메이크업의 주요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관찰을 하고자 하였다. 한편 귀납적 방법으로써 현대메이크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선행연구에 실증적 자료 및 실제 메이크업사진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도출하였는데 그 특성으로써 유희성, 양성성, 역사성, 퇴폐성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역적으로 도출된 이론개념인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이 귀납적으로 도출된 유희성, 양성성, 퇴폐성, 역사성이 접합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같은 두 그룹의 개념이 연결되는 방식이 한 그룹의 각 하나의 개념과 다른 그룹의 각 하나의 개념이 연결되기보다는 각 그룹의 여러 개념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데리다의 탈현상 개념은 귀납적으로 도출된 유희성, 역사성, 양성성, 퇴폐성 각각의 개념과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는 아래의 도표에 나타난 네 번째 박스에서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흐름도를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 흐름도>



##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해체주의 이론을 관련 문헌과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해체이론의 개념적 용어들을 추출 정리한다.

### A. 해체주의 이론의 배경

해체주의의 성립과정은 구조주의의 전개과정<sup>1)</sup>에서 구조주의의 한계성에 직면 하면서 자기부정적인 회의적 반응으로 나타난 후기구조주의 또는 탈구조주의의 발전 과정 중 하나로 본다.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부상하기 시작한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되고 탈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탈구조주의는 전체적인 구조보다 자아와 개체를 중요시하고 이성 중심적인 서구철학을 비판한다. 또한 절대적인 진리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각 개체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된다<sup>2)</sup>. 탈구조주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사조(思潮)로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도록 강요되거나 부과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거나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를 거부 한다<sup>3)</sup>.

김옥동은 후기구조주의를 포스트구조주의라 표현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 되었다기 보다는 매우 폭넓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체주의라고 불리는 자크데리다의 철학이론과 맞물려 1996년 10월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대학에서 열렸던 ‘비평과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s of Criticism in the Science of Man)’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sup>4)</sup>)는 ‘인문학의 예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

1)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고전적인 형이상학적 명제들을 부정하고, 인간의 행위나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결정적인 구조를 지닌 일종의 의미체계(언어, 관습, 사회 제도 등)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자아나 주체 등 개인의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행위를 객관화, 규격화, 조직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인간적 능력의 한계, 표면적 갈등, 이면의 구조적 모순의 존재, 실존주의적 사고의 한계 등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후기 구조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김지연,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 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학위 논문, 1997, p.7.

2) 김형효,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서울, 인간사랑, 1998.

3)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6, p.12.

4) 자크데리다[Derrida, Jacques, 1930.7.15~2004.10.9]: 프랑스의 철학자. 알제리 엘비아르 출생. 파리의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고등사범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부터 이 학교에서 철학사를 가르쳤다. E. 후설의 현상학(現象學)을 배운 후, 구조주의의 방법을 철학에 도입하였다. 언어의 기호체계(記號體系)가 자의적인 것이라는 인식에서 언어 위에 조립된 논리학을 제검토하였다. 특히 서기언어(書記言語) 에크리튀르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시하였다. 한편,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해체주의시대를 선언한다.

이 논문에서의 데리다는 중심이 구조주의의 기본을 이루어 왔지만 이러한 중심이나 절대적인 진리는 다만 하나의 환상(illusion)이며, 자취(trace)이며, 대체물(substitute)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이론은 포스트구조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하며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사회 비평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여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려는 충격적인 이론이었다.

구조주의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0년대 후반에 이미 강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등장했다. 포스트구조주의의 비평가들은 구조주의의 「구조, 중심, 근원(structure, center, origin)」에 대한 집착을 공격하는데, 자크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전형적인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가 주장한 원시사회와 문명, 말과 글 등으로 사물을 이분화하고 그 중 구조주의에 특권을 부여하는 태도를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비난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말과 글은 특권/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연관적이며, 본질적이고 숙명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에 있다. 이처럼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반발하며, 기존의 억압적인 권위에 저항하고, 근원, 중심, 영원한 진리 등의 부재를 주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포스트구조주의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표-1>은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를 전반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비교의 영역으로서 언어, 학문, 주제와 객체, 역사, 텍스트, 틀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이론 체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형적 특성에서는 포스트구조주의는 기하학적 선 보다 비정형주의, 전통적인 중력의 힘에 반하는 반 중력 건축, 그리고 기계론적 사고에서 역동성, 상호작용성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 B. 해체주의 이론의 특성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한 갈래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기본 전제를 모두 의심하는 것이고,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을 일부 포함하며,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

---

시차성(示差性)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체(實體)와 직결된다고 생각되어온 개념들이 시차적 특징에 의해서만 뜻을 지니는 것이며, 차이를 재확인하고, 그 행위에 의한 지연과 우회를 거친 뒤에 현실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서에 「근원 저편에 De la grammatologie」(1967), 「에크리튀르와 시차성 L'écriture et la différence」(1967) 등이 있다. 2004년 10월 지병인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표-1>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구분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언어	언어의 우월성 재현능력 인정	언어의 우월성 거부 재현능력 거부
개념	과학적	인본주의적
개체	개체 특성 무시	개체의 존엄성인정
주체	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성	인간주체, 회의적
역사	구조를 분리해 내는 과정상 역사를 무시하는 비역사적 태도	역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역사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며 과거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재현을 위한 탐색
텍스트	정지된 텍스트	텍스트와 텍스트 간에 유동적 교류
방법	체계성, 조직성, 전체성, 미분법적인 사고 강조	체계성, 전체성, 타자의 인정, 로고스 중심주의, 미분법적인 사고 거부
조형적 특성	기하학적 사고	충돌, 붕괴, 비정형주의
	절대론적사고, 견고한 형태의 중심적 힘	탈 중심적
	간결성을 가진 기계론적 형태	역동적, 파괴적 형태

상학 체계를 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방법론적 특성을 관련 문헌을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sup>5) 6) 7)</sup>

이러한 해체주의 이론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이다.

여기서 데리다는 구조주의의 이분법적인 대립 요소들이 각각 상대방과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 대립의 존재이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기술하면서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인 「이성중심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전통적으로 당연시 여겨오던 이분

5)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92.

6)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7) John Llewelyn, 데리다의 해체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2.

법적 대립을 없애려는 시도에서부터 출발하여 해체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그 동안 전혀 의문시 되지 않았던 의미의 침전물(沈澱物)을 고집어내는 것이다. 이로써 이성 중심주의는 붕괴되고 이성의 도구인 언어는 유희의 대상이 된다.<sup>8)</sup>

둘째, 실존주의적 휴머니즘과 막스주의적 휴머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인간주의적 세계관은 종말에 다다랐고, 이 세계가 와해됨으로써 서구적 인간이 이어받아온 능기(能記)와 소기(所記)<sup>9)</sup>의 결합으로 된 체계 역시 해체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해체주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해체 혹은 반인간주의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자아는 자율적이고 일관성을 지닌 존재였다. 이 같은 합리적 이성을 소유한 인간의 주체성이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 거의 소멸되고 극도의 파괴주의 사고의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닫힌체계 내에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열린사회, 열린사고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닫힌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그러한 것에 대한 향수 대신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知的) 탐색이다.

넷째, 해체주의 이론은 언어와 기호의 재현에 대한 믿음을 뒤엎는다. 그것은 자기가 현전하는 기호화의 관계 속에서 개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해체전략의 목표는 현전의 형이상학을 좌절시키고 그 의미의 체계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해체주의 이론의 주요 공격 목표는 구조주의이다. 구조주의는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석 혹은 의미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모든 텍스트에 우선하고 이에 다른 텍스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가설적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는 특성이 있는데 데리다는 이것에 대한 비판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sup>10)</sup>

8) 조유나, 현대가구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 디자인 성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4. p.9-10.

9)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by Gayatri Chakravotry Spivak,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현대 구조언어학의 창시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행한 언어학적 통찰교육을 문학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발전을 보게 된 새로운 문학 연구 방법론이다. 따라서 그의 언어학적 방법론에 의하면 모든 기호는 두개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와 하나의 개념으로 되어있다. 즉, 표시하는 것과 표시되는 것으로 나뉘어 진다.

기표	시니피앙(signified) 음성 이미지 및 문자적 등기문	능기	기호표현	표시하는 것	언어(langue)	소리의 이미지
기의	시니피에(signifier) 개념의 의미	소기	기호내용	표시되는 것	발화(parold)	소리의 개념

10) 함승우, 해체주의적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및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0, p.39.

## C. “해체”의 의미

해체(解體)의 사전적 의미와 destruction과 deconstruction의 사용상의 차이를 알아보자. 해체의 사전적 의미는 분해(分解), 해부(解剖), 해산(解散)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분해(分解)는 taking to pieces; dismantling; dismantlement의 뜻을 해부(解剖)는 dissection, 해산(解散)은 dissolution; disorganization; liquidation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동어들이 동사형을 취할 때는 “부수다”, 용해(溶解)하다, 조직을 파괴 시키다, 액화(液化)시키다,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영어의 ‘destruction’과 ‘deconstruction’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사용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는 단순한 해체와 탈근대시대의 해체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端緒)를 제공하고 있다.

해체는 새로운 상관관계를 구성하거나, 지각(知覺)의 대상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시간성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여 정확하게 재정립(再正立)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를 과거의 실재성(實在性)이 놓여있는 순간과 장소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부여한다. 따라서 과거란 과거의 행위함의 연속성(連續性)이 드러나는 것이며, 현재는 전통의 해체 및 재건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sup>11)</sup>

그러므로 ‘destruction (이하 DS)’은 ‘annihilation’, ‘demolition’, ‘desolation’, ‘devastation’, ‘eradication’, ‘blight’, ‘havoc’, ‘ruin’, ‘waste’ 등의 유의어(類義語)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써 대체적으로 파괴(破壞), 멸망(滅亡), 단절(斷絶), 분절(分節) 등의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다. 하지만, 월터 벤자민(Benjamin, Walter)은 이 단어가 항상 몇 가지 체험에 의한, 잘못되었거나 현혹(眩惑)시키는 형태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대상의 새로운 관계의 구축(構築)에 의한 생산적인 조건과도 같다고 했다.<sup>12)</sup>

다른 용어인 ‘deconstruction (이하 DC)’는 신조어(新造語)이다. 이 용어는 198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페미니즘(feminsim), 신표현주의(新表現主義; Neo Expressionism), 역사주의(歷史主義; Historismus) 등이 등장하면서 이론가들이 여러 문화현상을 고려하면서 방법론적 설명이 필요하게 되어 등장한 용어이다.

지식의 비확정성(非確定性)이 신역사주의(新歷史主義), 혹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기의 특징, 즉 해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철학, 경제 문학, 예술 등의 제반 해체

11) Andrew Benjamin and Peter Osborne edited, Walter Benjamin’s Philosophy, Destruction and Experie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4, p.7.

12) ib.id., p.11.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 용어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에서 언급되는 ‘Destruction’을 번역하기 위해 데리다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용어로, 데리다에게 있어서 이 용어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전복’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데리다가 이 용어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문법학자들 사이에서 문장 구성(construction)의 분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sup>13)</sup>

언어의 의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상적 현상으로서의 해체는 80년대의 두드러진 문화현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특히,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는 80년대 문화현상 가운데 사물의 내용은 그대로 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 차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변질(變質)되어 시뮬라크르(simulacre)<sup>14)</sup>의 세계로 이양(移讓)되어 기호화(記號化)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신조어인 DC의 용어 등장을 부추겼다.<sup>15)</sup>

신조어인 DC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해체의 의미로 언급(言及)되어 왔다. 니체(Nietzsche)의 경우 ‘형이상학을 그 근원으로부터 부정(否定)하는 것’이라고 했고, 후설(Edmund Husserl)은 ‘어떤 표현적 기호(記號)가 그것의 표현의 기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하나의 기표(記票)에 대하여 다양한 기의(記意)가 존재하거나, 기표와 기의의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데리다의 해체(DC)는 모든 텍스트를 다시 쓰거나 재해석 하며 그 의미의 연기(延期)를 주장하고, 원전(原典)의 옮기기, 이동시키기를 해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 D.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주요 개념과 전략

데리다에 의해 시작된 해체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우선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 이래 서구 형이상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당위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과 도전이다. 서구의 문화와 사상은 사물을 둘로 나누어 그 중 첫 번째 것에만 특권을 부여하고 두 번째 것은 이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소외시키고 제외시키는 양분법적 태도 위에

---

13) 김희정, 「시각예술에 있어서 해체론의 비평적 가능성의 문제 -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론을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p.5-7.

14) 시뮬라크르(simulacre):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를 가리키는 철학 개념으로,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적 철학자 프랑스의 들뢰즈(Gilles Deleuze)가 확립하였다. 공간 위주의 사유와 합리적이고 법칙적인 사유를 지향하는 20세기 중엽의 구조주의 틀을 이어받으면서도, 포스트구조주의가 이전의 구조주의와 구분되게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15) 서희선,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양식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p.20-21.

세워져 있었다. 예컨대 말하기/글쓰기, 선/악, 백/흑, 내부/외부, 이성/감성, 서양/동양, 진리/허위 등과 같은 이분법적적인 개념의 예는 수없이 많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 궁극적인 목적, 또는 본원적인 근원, 즉 데리다가 의미의 중심이라 부르는 현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전의 모든 텍스트들이 확인하듯이 보여주는 <현존의 형이상학>은 이제까지 모든 사고 작용의 토대를 이루어 왔고 우리가 인식해 온 유일한 형이상학이다.<sup>16)</sup>

데리다(Derrida)는 바로 이와 같은 이분법적 태도가 그동안 사회의 모든 구조에서 타자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고 합법화시켜 주는 논리적 근거의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데리다는 그와 같은 양분법적 흑백논리를 ‘폭력적인 서열제도’라고 부르며, 그것의 해체를 제안한다. 바꿔 말하면 ‘현존(presence)’이라는 개념과 연관된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무엇이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근거나 원리로 취급되어 온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철학적인 시도 안에서 그 의미가 형성되어 왔다.

The history of metaphysics ... is the determination of being as presence in all senses of this word. It could be shown that all the names related to fundamentals, to principles, or to the center, have always designated an invariable presence eidos, arche, telos, energia, ousia, essence, existence, substance, subjectaletheia, transcendentality, consciousness, God, man, and so forth.<sup>17)</sup>

현존으로서의 서구 형이상학의 욕망과 확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를 들고 있다.

This notion remains therefore within the heritage of that logocentrism which is also a phonocentrism: absolute proximity of voice and being, of voice and the meaning of being, of voice and the idealty of meaning<sup>18)</sup>

---

16) 안진경,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Samuel Beckett 극의 해체주의 요소연구, 1996, p.3.

17) Jacques Derrida,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279-280.

18)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ist, trans. Gr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11-12.

로고스(logos)란 곧 말해진 언어, 절대적인 신의 언어, 또는 이성의 언어를 뜻하며 이는 문자보다는 말을, 인간의 언어보다는 신의 언어를, 그리고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로고스(logos)는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는 희랍의 소리(phone)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sup>19)</sup>

소리의 존재 의미, 소리와 의미의 관련성 등의 절대적인 인접성에 대한 신념이다. 이점이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cism)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데리다는 ‘글’은 언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글’이 ‘말’보다 더 선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해체주의 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인 것이다.<sup>20)</sup>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서양철학의 전통적 이론을 해체하고자 함이다. 플라톤 이래 서구의 형이상학이 지배해 온 근원주의와 이성 중심주의에서 생겨난 ‘절대 기준’이란 없으며, 모든 인간의 인식과 지식은 불확실한 것으로 수용된다.

그러므로 데리다는 ‘무엇이 해체주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해체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sup>21)</sup>

차고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이론적 주요 개념들은 산종(dissemination), 차연(differance), 보충(supplement), 글쓰기(écriture), 흔적(trac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불확정성(undecidability), Dis.De 탈현상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개념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관련문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데리다의 해체주의 전략을 모형화 하였다.

## 1. 산종(dissemination)

산종이란 본래 종자가 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여기저기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이 용어는 어떤 단어가 처음에 사용된 장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곳곳에 흩어지고 새로운 의미 작용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를 가리키며, 다의성 또는 텍스트를 초월하는 잠재적인

---

19) op.cit., 안진경, p.4 재인용.

20) 김주현,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10.

21) op.cit., 김형효, p.16.

것의 재 표상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인 해석을 추구하지 않으며, 의미는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전(現前)과 부재(不在)간의 끊임없는 교차를 통해 무한한 의미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산중은 모든 사항을 잠재적으로 보충하고, 본질적으로 무한히 치환케 하는 이론인 동시에 실천으로서 차연, 보충 등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 2. 차연(differance)

차연이란 차이를 의미하는 ‘différance’라는 단어에서 같은 발음인 ‘différance’로, e를 a로 바꿔 만든 데리다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현전성의 강조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차이(différance)의 개념에 ‘지연하는, 연기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나타난 것을 ‘différance’라고 하여, 명사적 기능 자체를 억지로 만들어 재기입한 것이다. 즉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것을 말하므로, 시·공간의 초월과 수평과 수직의 대립관계 파괴, 시·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한다.<sup>22)</sup>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데리다는 차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ifference is the systematic play of differences, of the traces of differences, of the spacing by means of which elements are related to each other. This spacing is the simultaneously active and passive (a lot of differance indicates this indecision as concerns activity and passivity, that which cannot be or distributed between the terms of this opposition) production of the intervals without which the ‘full’ terms would not signify, would not function.

데리다에 의하면, 차연이란 현존/부재(presence/absence)의 대립 항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구조임과 동시에 움직임이다. 그것은 차이들과 흔적들의 체계적인 유희이며, 요소들이 서로 관계 지어지는 공간의 유희이다. 즉 그것은 모든 의미 생성과 구조의 조건이 되는 차이를 생산하는 운동인 것이다.<sup>23)</sup>

---

22) Jacques Derrida, *Speech and Phenomena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ory of Signs*, trans. David, B. Allison, 1973, p.129, p.137.

23) op.cit., 안진경, p.6 재인용.

데리다는 ‘글’ 또는 ‘텍스트’는 ‘말’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확정성과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서 파생된다고 말하며 여기에서 차연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한편, 흔적(trace)이란 기원(起源)으로서 현존이 먼저 존재하여 남긴 흔적이 아니라, 항상 기원이라는 사고방식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서의 흔적으로, 기원의 기원이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흔적은 이미 형성된 차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낳게 하는 순수작용이다. 이는 곧 순수한 흔적이 차연(différance)인 것이다.<sup>24)</sup>

그러므로 차연의 논리는 동시성의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며, 데리다는 차연을 형식의 전체성이나 응집성과 완전성과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차연은 정태적 개념이 아니며, 폐쇄적 전체체계의 구조 속에서 각 요소가 역할분담을 하는 기계론의 논리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데리다의 차연의 차이는 레비스트로스의 이항적 대립의 차이와는 다르다. 데리다의 차이는 이항 사이의 배척에 의한 각 항의 형식의 선명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다른 상호간의 관계의 인연을 가져오는 힘을 지니고 있다.<sup>25)</sup>

### 3. 보충(supplement)

보충은 차연과 마찬가지로 데리다의 모든 텍스트 속에 있는 동의어이자 상호 보충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의미의 연쇄작용을 성립시키는 단어이다.

데리다는 보충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한다.

첫째로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체에 부가되는 일종의 ‘잉여’이고 ‘과잉’이며 ‘충실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충실함’이다. 이렇게 해서 예술, 이미지, 표상 등은 ‘자연’에 부가되는 보충물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충은 ‘대행한다’(suppléer), 즉 대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결여가 전제되기 때문이고 거기에 보충되어야 할 충실함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보충은 어떤 법적인 권리가 소멸하는 장소, 기의화 되지 않은 또는 현전(現前)되지 않은 비현전의 자리로 들어온다. 하나의 다른 보충 전에는 어떠한 현전도 없고, 현전은 그 자체 이외의 즉, 하나의 보충이외의 어떤 것에도 뒤따르지 않는다. 보충은 항상 어떤 보충의 보충이다. 누구든지 보충으로부터 기원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기원에는 어떤 보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4) G. Douglas Atkins, Reading Deconstruction, Deconstructive Reading,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3, p.19.

25) op.cit., 김형효, p.16.



보충이란 더해지는 작용이며, 더해진 은 기원적인 것에 대해서 타자적이고 이차적인 의미에서 외면적이다. 그러나 현전이 완전하고 자기 충족적이라면 왜 보충이 필요한가? 완전한 현전, 기원이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은 그 기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더함의 작용이다. 그래서 보충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suppléance/compensation*이다.<sup>26)</sup>

#### 4. 글쓰기(*écriture*)

글쓰기는 프랑스어의 동사 *écriture* (쓰다)의 명사형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문자, 문체, 서적이 라고 하는 의미와 쓰는 행위, 또는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데리다가 해체의 대상으로 삼은 서구의 형이상학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의미를 현전으로 규정 해온 철학으로서 그것이 특권적인 주제로 택한 것은 음성(*phone*)이다. 그러므로, 로고스중심주의는 음성중심주의이며 그것은 소리가 의식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현전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음성언어는 생생한 자기현전으로서 순수한 초월성을 띠는 것인 반면, 글쓰기는 음성언어로부터 파생된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서구의 형이상학 속에는 음성언어/글쓰기라고 하는 계층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 바로 데리다의 해체작업의 동기가 있다. 그러나 데리다는 단순히 이러한 계층관계를 역 전시킴으로써 이제까지 경멸되어온 글쓰기의 지위를 복권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의 해체작업이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계층관계를 강요해왔던 형이상학의 욕망을 폭로하고 그 한계를 계속 지적 하면서 폐기하는 일이다.

즉, 형이상학적 개념의 한계를 나타내면서, 그것의 상대적인 효과를 이용하고 그것의 개념을 포 섭하는 형이상학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 5. 흔적(*trace*)

흔적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글쓰기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흔적은 언어(*parole+ écriture*)의 기원으로서 현전이 먼저 존재하여 그것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항상 기원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리다에 의 하면 “흔적은 단순히 기원의 소멸이 아니라 기원이 소멸조차 하지 않았던 것, 기원이 일찍이 형성

---

26) op.cit.,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t*, trans, p.303-313.

되었던 것은 비 기원, 즉, 흔적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흔적은 기원의 기원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념이 스스로의 이름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만일 모두가 흔적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특히 기원의 흔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흔적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낳게 하는 순수작용이다. 순수한 흔적은 차연인 것이다. 그것은 청취가능하고 가시적이고 음성적이며 문자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대로 흔적은 그러한 것의 조건이 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글쓰기(문자, 문자언어, 쓰는 일, 쓰여진 것)로서의 흔적이 있는가 하면 흔적(또는 원초적 흔적)으로서의 글쓰기(원초적 글쓰기)가 있기 때문이다.

## 6.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데리다의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Nothing outside the text)라는 유명한 명제는 데리다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들어내는 명제이다. 그는 이런 자신의 언어관과 반근원주의(反根源主義)를 논증하기 위하여 모든 근원 주의적 철학과 이에 근거한 언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체적 방법을 이용한다. 그의 해체(deconstruction)는 근원주의 철학의 논리에 따라 근원주의 철학이 상정(想定)한 기존의 서열에 모순을 드러내어 이를 전도하는 단계와 모순되고 근거 없는 폭력적인 서열제도(序列制度) 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단계로 구성된다.<sup>27)</sup>

텍스트를 정밀 분석하여 음성언어(音聲言語)와 문자언어(文字言語), 혹은 말, 글 등 텍스트에 상정된 이원적(二元的) 대립체계(對立體系)를 발견하고 이원 항목의 전자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에 근거 없음과 모순을 지적하여 폭력적인 서열제도임을 밝힌 후 이를 전복(顛覆)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복은 순서만 바꾸었을 뿐, 기본구조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복만으로는 무의미하다.

전복된 이원적 대립체계로써 위계성(位階性)과 서열성(序列性) 그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폭력적인 서열제도가 다시 형성되도록 인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데리다의 해체전략은 로고스 중심주의의 해체가 바탕이 되어서 주체에서 타자의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인종, 성별, 계급, 제도, 가부장적 구조의 해체, 정신에서 신체로, 정착에서 유목으로 등과 같은 변화들은 해체주의의 핵심적 명제인 탈 중심화적인 ‘이원적(二元的) 대립의 해체’였음을 볼 수 있다.<sup>28)</sup>

---

27) op.cit.,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p.158.

이분법에 대항한 해체주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설명 가능하다.

바르트(R. Barthes)의 텍스트론에 의하면, 텍스트(text)는 직물을 뜻하는데, 생산성이 강조되는 텍스트는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는 상호 텍스트 등이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즉,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며 상호 언급, 병행인용<sup>29)</sup>,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다.<sup>30)</sup>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세계가 하나의 텍스트 이므로 자율적인 존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 7. 불확정성(undecidability)

불확정성은 미완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해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며, 그 의미들을 산중시키는 해체주의의 특성이다.

해체주의는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로고스 중심주의, 이분법이 해체됨에 따라 의미의 불확정성(undecidability)으로 통합되었다.

해체된 텍스트는 그 자체의 불안정성과 비 확정성에 의해 의미는 무한한 ‘산중(dissémination)’을 향해 열리는데, 이는 의미의 불확정성의 시발(始發)이 된다.

데리다에 의하면 ‘의미’란 주관적인 허구적 구조물로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게 될 때, ‘의미’는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多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의미의 불확정성은 ‘차연’의 해체전략을 토대로 형성되고, 모든 개념들은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키며 상대적인 개념 하에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sup>31)</sup>

---

28) 오세권, 텍스트 해석을 통한 후기모더니즘 미술의 비평적 접근,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2004, p.23.

29) 병행인용이란, 두 개의 극단적인 텍스트의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그 두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고 양쪽 모두를 창조함으로써 이분법을 해체하고 중간적 영역에 입지하여 의미 유희를 유도하고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30) op.cit., John Llewelyn, p.102.

31) 김주현,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p.12.

## 8. 탈현상(Dis.De)

탈 현상은 탈 구성과 탈 중심성의 이론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탈 구성(discomposition)은 분해·분석된 텍스트들이 무작위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조형’이라는 개념을 기능이나 경제적 혹은 기술적·실용적 관점에 구성하지 않고, 변위나 간격을 두는 행위의 과정으로 본다.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는 1965년 “반문화의 특성에 대한 선언”에서 ‘남성적’, ‘백인적’, ‘영웅적’, ‘유대인적’ 성격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정통성에 대한 반작용인 비정통성을 인정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탈 구성 현상은 1960년대 이후부터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명화에 대한 반발로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여성상을 찾는 페미니즘이 대두 되었으며, 흑인과 아시아권의 유색인종이 부상했고, 기독교 중심에서 동양의 유교, 불교 및 소수 민족의 종교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sup>32)</sup>

즉,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기보다 처음의 구조를 음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반 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외부로부터 붕괴시키지 않고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것이다. 즉 임의성, 혼란, 무조직성을 이용하여 통일성, 전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즉, 어떤 구조적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것으로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하 관계가 무작위 쪽으로 이루어지며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을 거부한다.

탈구성의 조형적 현상으로서, 20세기 초 프로이드(Freud)의 무의식 이론과 헤겔(Hegel)의 변증법을 창작원리로 승화시킨 초현실주의의 주요 표현방법으로,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 내어 물체의 비현실적인 배치, 자연적 원근의 역전, 재질의 전환 등으로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심리적 충격을 주는 동시에 신비로움을 유발한다. 사물은 일상적 용도에서 벗어나 그 현실성이 소멸 되고, 사물의 일상적 의미도 희석되어, 무의식적 차원을 형성하면서 사물 본연의 숨겨진 특성이 나타나 기의의 불확정성으로 인한 차연의 유희와 같은 각테일 효과가 일어나 무한한 의미효과가 발생한다.<sup>33)</sup>

탈 중심(decentralization)은 반(反)중력적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부정성의 논리로부터 나왔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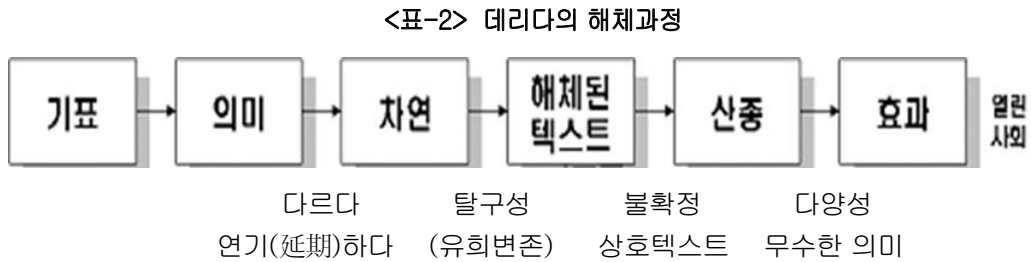
32) 양윤정,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학위논문, 1993, p.17-24.

33) 김영옥, 현대복식에 내제된 해체현상, 산업기술연구지, 제7집, 1988, p.149.

며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으로써 열린세계, 열린 사회를 지향 한다.

## 9. 데리다의 해체 전략

데리다의 해체과정은 아래와 같은 표로 설명할 수 있다.



해체과정의 첫 작은 음성적인 기표로부터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의미는 텍스트 내부의 요소들 사이에 ‘차연’으로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서 데리다의 이론은 차연으로 부터 유희적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통해 탈구성적인 해체된 텍스트로 존재하게 된다. 이들 텍스트는 데리다의 해체이론의 핵심 특성인 불안정성을 가진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무한한 ‘산중(dissemination)’을 향하여 열려진다. 그 산중은 결국 수많은 다양성을 잉태하고 무한한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틀에 억매인 패쇄적인 사회를 초월한 열린사회를 형성 하게 된다.

데리다의 신조어 디페랑스(différance), 차연 이란 언어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기표와 기의 사이의 불안정성과 같다. 차연의 의미는 첫째, 본성이나 질, 형체에 있어서 같지 않거나 닮지 않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흩어 뿌리다’, ‘퍼뜨리다’ 셋째, ‘늦추다’, ‘미루거나 연기 한다’는 시간의 차이를 가리킨다.

해체 전략의 핵심은 텍스트의 조직 속에 쌓아서 가라앉아 있는 의미의 잊혀지고 잠들어 있는 침전물을 끄집어내는데 있다. 따라서 전통이나 음성 중심주의 밖에서의 파괴(destruct)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construct)해 놓은 것을 그 근본으로부터 해체(deconstruct)하는 것이 된다. 결국 ‘내부로부터’의 해체이며, 닫힌 체계 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열린사고, 열린사회’라 할 수 있다.<sup>34)</sup>

34) 김성곤(엮음), 탈구조주의의 문화적 의의와 전망,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8, p.22.

## E. 해체주의 예술

앞장에서 알아본 데리다의 해체 개념을 메이크업에 적용하기 전에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논함에 있어서 표면화되어 비추어지는 해체의 조형성으로 연구자는 메이크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패션과 미술, 디자인에 대한 그 해체적인 특성을 우선으로 알아본다.

### 1. 해체주의 패션

해체주의 패션은 옷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저항, 옷이 갖는 또 다른 능력을 풍부한 은유로 표현하는 것, 옷 자체에 직접적인 관찰로 비롯되어 현재의 끊임없는 요구들이 생성시킨 존재적 스타일로서 20세기 후반에 세기말적 현상과 21세기를 향한 기대감, 불안감들이 공존하면서 해체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해체주의적 패션과 혼합된 무형식의 양식은 해체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 해체 과정을 구조적 해체와 성·인종문화·인간주의해체, 복식아이템 해체로 나누어 본다.

첫째, 구조적 해체는 비구조적 기법과 비구성적 기법으로 볼 때, 비구조적 기법은 중심의 부재, 공간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분류한 것으로 중심의 부재란 의복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와 관습적 구성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사고에 의한 새로운 구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기법을 디자인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 비례, 강조, 리듬 그리고 조화를 파괴하는데 현대 복식에서 파괴적 표현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가치의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비대칭적 사선의 앞여밈 또는 부분적 확대나 과정으로 인한 지나친 비대칭 강조 표현 그리고 착용 모습에 있어서 특이한 구조, 소매나 칼라 등 그 기능을 잃어버린 형태 등으로 정상적인 균형 표현을 파괴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해체의 표현 기법을 정리해 보면 비구조적인 의복의 특징으로 과도한 비대칭적 사선의 여밈 및 네크라인과 스커트 햄 라인의 비대칭<그림-1> 또는 부분적 확장<그림-2>이나 과장 또는 길이 연장, 의복의 전체적 확대 및 축소, 레이스 러플 등의 과잉 확대<그림-3>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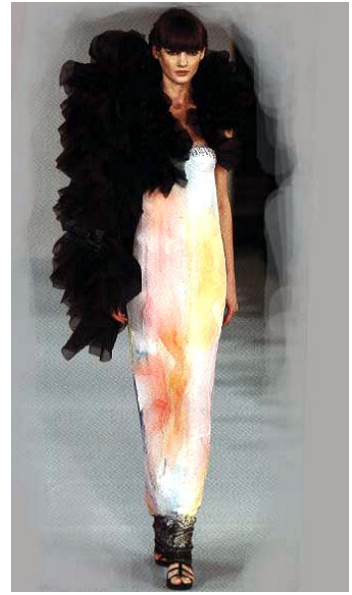
비구성적인 표현기법은 거주할 수 없는 공간, 입을 수 없는 옷도 순수한 옷의 형태라고 함으로써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체시키고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의복, 봉제를 극소화한 의복, 심지나 안감, 다리미처리도 없이 만드는 비구성적 의복 다시 말하면 형태 자체도 의복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sup>35)</sup> 해체주의 복식에서 착장 방법을 입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완성될 수 있는 불확정적 열린 형태를 추구하며 여러



<그림-1> 2004-2005  
A/W Housca



<그림-2> 2005 S/S  
Christian Dior



<그림-3> 2006 S/S  
Dominique sirop

겹의 의복을 자유롭게 레이어링(layering)시키는 의복의 착용방식이 레이어링 표현기법이다.

의복의 특징으로는 여밈처리 없이 평면의 천을 인체에 두르거나 매거나 걸쳐서 착용<그림-4>, 소매가 없거나 소매의 기능을 슬릿으로 대신<그림-5>, 구성 선에 관계없이 둥글게 도려냄 의복의 부분삭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성(性) 인종 문화·인간주의의 해체로서 성의 복합적 표현기법은 복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복식에서의 성적 차별을 해체하는 개념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소외된 것과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20세기 전반기 서양의 문화는 획일적인 국제적 보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서구의 백인중심의 보수적 사고는 유색인종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그리고 휴머니즘의 고양 등으로 복식에서 민족 지향적, 토착적 지방성으로 제3세계의 문화나 오지의 원시부족 또는 흑인의 요소들을 혼합한 이국적, 원시적 또는 자연적인 표현이다. 인체강조, 자극적 소재나 선정적인 장식으로써 에로티시즘의 강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비예술적이거나 일상적인 소재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외모의 더러움에 감춰진 진실을 승화시키는 가난의 이미지를 표현했다.<sup>36)</sup>

35) 김아진·도규희,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 1999, p.6.

36) 원선영, 해체주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2000, p.24.



<그림-4> 2005 S/S  
Christian Dior



<그림-5> 2005 S/S  
Christian Dior

인간중심의 패션에서 해체된 초 인간주의표현은 우주시대가 개막되었던 1960대 이후로 최근에도 미래의 테크놀러지를 현재에 차용하여 표현 된다. 즉 신소재나 금속 광택소재 등을 이용한 우주 또는 스페이스 이미지의 미래지향적 의상<그림-6>들이 발표되어 정상적인 지각의 체계를 뒤엎음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인간과 동물, 물질과 비 물질의 경계의 일탈이자 경계의 융합인 것이다.<sup>37)</sup>

해체의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바지, 자켓, 베스트, 셔츠 등을 여성의 공식 정장으로 채택(비서구) 표현, 장신구를 과도하게 장식하거나 색채나 문양을 지나치게 사용, 신체의 노출<그림-7>, 인체 강조 자극적 소재나 선정적 장식, 모조품 기성품, 낡은 골동품, 폐품의 비예술적이고 일상적 소재 사용<그림-8>, 천 더럽히기, 소재를 휴지처럼 구기기, 둔부치부 등 의외적인 구분의 도려내기, 그리고 우주 테크놀로지 등 미래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두 가지 이상의 패션 텍스트를 인용한 옷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기존의 감각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의 혼합. 즉, 다양한 복식 아이템을 해체시키는 표현이 있다.<sup>38)</sup>

37) 이영재,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생활과학 연구 논문집.

38) 박은경,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40-52.





<그림-6> 2004-2005  
A/W Christian Dior



<그림-7> 2005 S/S  
Christian Dior



<그림-8> 2004-2005 A/W  
Christian Dior

소재와 문양에 있어서도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상반된 느낌의 문양 즉 전통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작은 크기의 문양과 큰 크기의 문양 등을 믹스 매치하여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즉 원시소재와 하이테크소재 등을 조합하여 극단적 대비를 통한 상호 절충적인 면을 나타낸다.<sup>39)</sup>

그 표현기법을 보면 속옷의 겉옷화<그림-9>,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 포멀과 드레시 아이템, 캐주얼과 포멀 아이템의 혼재, 하드와 소프트<그림-10>, 원시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 등의 상반된 소재와 문양의 결합 그리고 동양적인 기모노를 새롭게 테일러닝한 상의와 화이트 진의 이질적인 요소의 혼성 또한 드레스의 소재와 테일러드 재킷의 상이한 매치를 이루기도 했다. 복고풍의 요소를 사용하여 새롭게 재해석 또는 그 외 다른 스타일과 이미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39) 김주영,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대, 1995, p.86.



<그림-9> 2005 S/S  
gamma seta



<그림-10> 2006 S/S  
Jean-paul Gaultier

## 2. 해체주의 미술

해체주의자들의 작품은 기존의 양식적 구조에 대체하는 또 다른 구조로서 해석되어지기보다는 그러한 관계 사이에서 유희적으로 다른 것들의 경험으로 침투하여 그 의미를 부재시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체주의의 선구자적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평범한 소변기<그림-11>를 뉴욕의 전시회에 ‘분수(fountain)’라는 제목으로 출품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작품 그 자체의 지위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범주에 전복의 가능성을 열어보여 주었다.

1960-70년대가 조각 또는 입체 작품위주로 미술운동이 전개된 시기였다면 이젠 회화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화가 미술의 주요영역으로 강조된다기보다는 회화와 조각이 통합되는 또는 그 구분이 모호화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회화에는 오브제가 첨가되거나 화면 자체에 입체적 성격이 부여되고 조각에서는 표면 효과의 강조와 색채의 사용



<그림-11> Fountain, 1917  
Readymade: Porcelain Ur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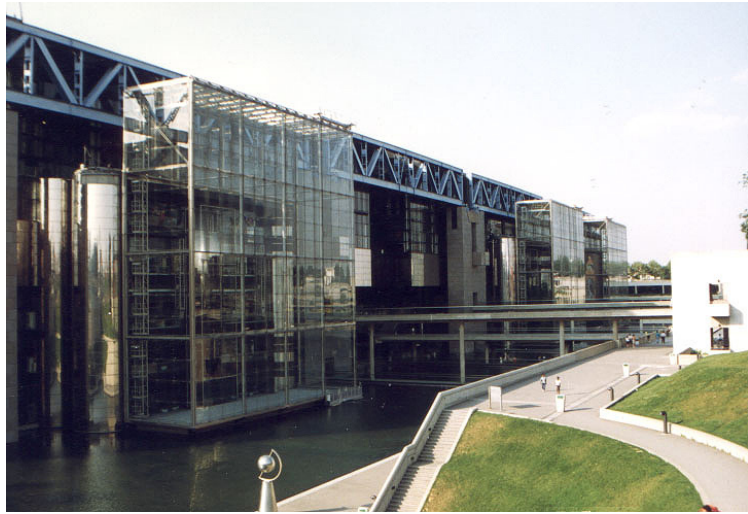
등으로 2차원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마리오 메르츠(Mario Merz)의 작품은 그 전형적인 예로 조각과 건축 실내장식이 통합된 주거 공간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이 음악이나 무용 퍼포먼스 등 공연 예술과도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면이나 입체 대신 공간의 개념 더 나아가 시, 공간의 개념이 대치되면서 영역간의 수렴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구상과 추상이 동등한 수준에서 인정되고 이러한 구분을 초월하여 이들이 상호 자유롭게 수용되는 형태를 이루며 기존의 회화에서 보이던 형태에 대한 시각적 경험이나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성이나 직관에 의해 이해되는 은유적 메시지들로 이루어지는 미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예로서 독일의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와 이탈리아의 트랜스 아방가르드(trans avantgrade)와 미국의 뉴페인팅(new painting), 프랑스의 자유 구상주의(figuration libre)의 경향은 각기 자국의 문화, 사회, 역사를 배경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지역의 양식이 공존, 수직적 국제주의를 불식시키고 수평적 범 세계주의를 강조하는데 일조를 했다. 또한 기하학적 추상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과 윌리엄 드 쿠닝(William de Kooning)은 미국의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과 유럽의 앵포르멜(Informal)의 대표 작가이다. 그들의 추상 미술은 규격화된 조형성과 구성을 버리고 재질감과 제스처에 호소하는 오토마티즘(automatism)을 표현하였다. 그 특성으로 비정형화로 인한 공간에 미술을 표현하였고 형태면에서 입체주의와 모더니즘 영향으로 입체주의적 화면을 분할하였다.

### 3. 디자인

해체주의 디자인은 모든 법칙을 의심하고 근본부터 해체하여 현대의 비정형적인 세계를 반영 하다는 점에서는 다다(Dada)와 같은 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하며, 기존의 상황을 변형·왜곡하여 인용한다는 점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희’의 개념과도 유사성을 지닌다.

해체 디자인에서는 조형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축과 광고를 들 수 있다. 건축에서의 해체는 개념을 해체하고 형상언어의 철학적 수용이라는 명제의 실현을 통해 환경, 역사 그리고 구조적 맥락에서 분리되어 질 수 없는 건축의 형태에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공간, 형태, 재료를 해체적 조형요소로 사용하여 새롭게 개념화되고 추상화되어 구조물을 전개시킨다. 그 대표적 구조물로서 베르나르 츠뭉미(Bernard Tschumi)에 의해 계획된 파리 근교에 위치한 라 빌레테 공원(Park de la Villette)의 광기적인 구조체(les folies)들이다<그림-12, 13>. 이들은 비 이성적인 것의 실제물로서 그 계획은 점, 선, 면들의 세 가지 체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총화작용을 보여주는데, 이는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와 폴 클레(Paul Klee)의 미학을 동원



<그림-12> 라벨레떼 공원(Park de la Vill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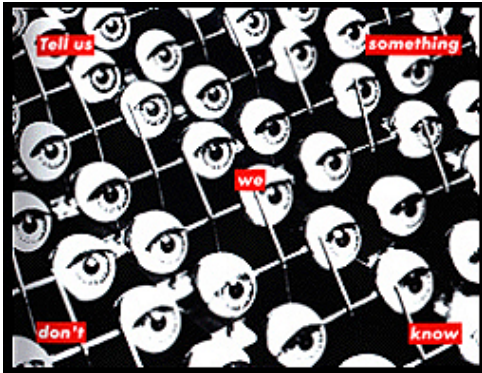


<그림-13> 점, 선, 면, 폴리가 가미된 라벨레떼 공원

시커 이질적인 파편들의 임의적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총화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우연과 동시적 일치, 불협화와 불연속을 만들어낸다. 결국 이런 폴리(folly)들은 더 이상 공간의 기능으로써 또는 경제적, 심미적, 기술, 실용주의적 견지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다. 결국 건축의 한계를 밀어내고 다른 내부의 해체로 형성된 구축물이라 볼 수 있다.

사진이나 광고에 있어서 바바라 크루거(Barbara Kluger, 1989)의 해체사진<그림-14>은 신체로부터 나온 눈들이 분산되어져 탈중심화된 시각적 현상이 사회적 규범들을 강요함으로써 발





<그림-14> 바바라 크루거(Barbara Kluger, 1989)의 해체 사진



<그림-15> 올리비에로 토스카니 (Oliviero Toscani)에 의한 베네통 광고

생되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있다.

올리비에로 토스카니(Oliviero Toscani)에 의해 만들어진 베네통 광고<그림-15>는 전쟁, 출산, 죽음, 폭력 등을 상품적 메시지를 동시에 등장시킴으로써 기존의 우리의 인식적 공간의 벽을 해체시키고 있다. 즉, 죽음과 출산을 동시적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하나의 의미론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에서와 같이 더 많은 상이한 체계인 인식의 내외통합 과정이 지연되면서 우연적인 것과 겹치고, 인식범위는 확장되어, 해체를 통한 인식의 재구조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단순한 일차적 연관성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무정부주의적 자율성을 갖고 내부로부터의 해체를 거치게 된다.

이상 간략하게 그 특징만 고찰해본 각 분야의 해체주의 예술은 <표-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해체주의 예술의 일반적 특징

구분	표현방법	내적의미
패션	안과 겉의 전치, 노출, 형태의 확대 및 축소, 비구조적·비구성적·성의교차·아이템의 혼재·양식의 혼재·소재의 혼재	내적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반 미학, 퇴폐성, 양성성
미술	레디메이드(Rady made) 등장, 평면과 입체경계 모호, 오브제 등장, 시·공간 수렴, 다양화, 소재의 혼재	내적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반 미학, 유희성
디자인	우연 동시적 일치, 불협화, 불연속, 벽의 해체, 소재의 혼재	고정관념의 해체

## F. 오뚜꾸뜨르(Haute Couture) 컬렉션

주문복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의상점이라는 의미와 일반 주문복이 아닌 고급 주문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은 개인의 감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로운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패션쇼는 살아있는 모델에게 작품을 입혀 무대 위에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무대와 음향, 조명 외에 토털 뷰티룩을 이루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오뚜꾸뜨르 컬렉션의 시작은 14세기 초, 인형을 이용하여 베니스 성모몽소승천축일(Assumption day)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나 그 후 파리에 Rambouillet 호텔에서 실물 크기 인형 두 개에다 다음에 유행할 스타일 옷을 입혀서 전시하였다. 패션 인형은 17세기, 18세기 전 유럽에 보내지게 되고 각 뷰티분야가 합세하여 토탈 룩을 보여 주게 됐다. 19세기중엽 살아있는 마네킹에 작품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생각을 해낸 워드(Charles Frederick Worth)는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이 만든 스타일을 걸치게 하여 전시하였다.

이후 1960년대 조화를 이룬 음악과 조명 각종 미디어가 함께 사용되어져 패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탄생시킨 모티브가 된 것이며 오뚜꾸뜨르는 일 년에 두 번 열리게 되는데 S/S 컬렉션은 1월말에 열리고, A/W 컬렉션은 7월말에 열린다.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의상과 메이크업은 그 창조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1997년 존 갈리노(John Galliano)가 디자인을 맡은 후 자유로운 상상과 실험적 시도, 현대적 감각으로 더욱 크리스찬 디올을 변화 시켰다.

존 갈리노는 메이크업에 있어서 파격적이고 대담한 메이크업으로 패션의 보조역할이 아닌 독자적 예술 부분으로 탄생시켰다.

현재 여러 잡지사서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다루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잡지사는 Book Moda, gap press, collezioni이다.

본 연구는 이 세 잡지사서 발행된 컬렉션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 III. 자크데리다 해체주의 이론을 통해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과 표현

#### A. 현대 메이크업(Make-up)의 정의와 특징

영어 사전에서의 메이크업(Make-up)이란 말은 ‘만들다,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래싱(dressing)과 프랑스어로는 마귀아제(maquillage)로 표현되고 있다.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 페인팅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백남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질게 화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메이크업이란 말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랏쇼(Richard Crasho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화장을 뜻하는 용어로 처음사용 하였다. 또한 마귀아제는 분장을 뜻하는 연극 용어로서, 뚜알렛(toilte)은 1510년경 영국에 전해져 토일렛(toilet)으로 변하여 몸의 전체적인 단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메이크업의 의미와 화장의 의미는 동일시되고 있으며 신체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색과 향을 부여하여 잘 조화시켜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메이크업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신체 표면을 직접 가꾸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로서 신체를 잘 감싸고 정리해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목적의 인간 행위이다.

인간은 인류문명이 생기면서부터 타인에게 미적 가치와 위엄성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초기 원시적 분장이라 할 수 있는 가면이나 채색을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미적인 성적본능(性的本能)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주술적(呪術的)·종교적(宗教的)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사회적 지위와 소속집단 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신체 보호나 보온을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써 메이크업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부위에 메이크업이 되어진다. 이러한 육체적 메이크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얼굴이라는 조형물에 조형요소를 더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으로 표현되며 또한 한사람의 생각과 느낌으로 표현된다. 최근에 와서는 메이크업은 타고난 외모적 요소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간은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미의식 속의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을 추구한다. 또한 메이크업은 정신적인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적 고유 미와 개성미를 창출하기도 하며, 얼굴의 상처, 흉터 등 여러 가지 결점을 커버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도모하기도 한다. 메이크업이 패션과 결부 될 때 단순한 의미의 화장에서 벗어나 예술적 이미지 표현의 형태로 인간의 신체에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메이크업이란 외향적인 미적효과 외에 대중과의 일체감 통일감의 표현, 자신의 외적 내적 감각표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 화려함과 디자인 및 색채의 다양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며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갈수록 선호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의 다른 차원은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그리고 잡화 등 토탈 패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메이크업의 목적은 외형적 아름다움의 표현과 미적 효과를 위한 것이고, 사회적 역할로서의 무언의 의사전달, 내적 감각의 표현을 위함이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패션과 함께 인간의 미적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여 점차 장식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토탈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즉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된다. 실제 메이크업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데 대중적 의미에서 메이크업은 일반에게까지 널리 사용되어 패션성을 띠게 되었다. 메이크업의 성장배경으로 산업화 따른 화장품 산업은 급속한 대량생산을 갖게 되어 메이크업이 일반에게 까지 보편화되었다. 오늘날의 일반 소비자는 생활의 편리와 여가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미적인 활동과 관련한 소비가 증가하여 화장품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그에 따른 패션사업의 주요 분야로 발전하였다. 또한 영화나 패션잡지 등 대중매체의 증가는 메이크업 확산과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메이크업의 패션화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 B.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고찰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선행연구를 각종 논문과 문헌으로 알아봄으로써 해체메이크업이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 연구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접목시켜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을 퇴폐성, 유희성, 양성성, 역사성으로 코드화하여 그 각각에 특성에 관하여 선행 연구들은 논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연구들은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퇴폐성, 양성성, 역사성으로 나누어 그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해체적성향이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어떠한 표현 특성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불확정성, 탈 현상, 상호텍스트성이라고 요약하였다.

이수인<sup>40)</sup>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양상을 연구하면서 분석틀을 비독창성, 몰형식성, 탈중심성, 상호텍스트성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김예성<sup>41)</sup>은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이 반영된 현대메이크업을 패러디, 그로테스크, 유희성, 탈 장르화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논하였다.

해체 메이크업은 반미학적 개념 내에 아방가르적인 표현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변영희 등은<sup>42)</sup>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의 이미지특성으로 몰 형식성에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로 분류하고 부정확에 형태파괴, 과장 축소, 생략으로 왜곡에 비속, 혐오, 회화로 분류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고 좀 더 심층화된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크게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으로 하였으며 해체 메이크업의 특성을 퇴폐성, 유희성, 역사성, 양성성으로 각각 나누었다. 실증 분석을 위해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관계된 메이크업과 연관하여 논하였다. 연구조사 분석기간인 최근 14년 동안에 오뚜꾸뜨르 컬렉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의 디자인적 요인을 도출하여 실제 메이크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들과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요인과의 상호관계를 컬렉션의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C.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 1. 퇴폐성(decadence)

퇴폐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질서 및 윤리의 타락현상에 따른 불건전한 양상으로 정형화 되어 온 전통미를 해체하여 비정상적인 ‘추(醜)의 미’를 표현 한다. 여기에서 추의 미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인 특성인 데리다의 탈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퇴폐성은 탈현상과 퇴폐주의에 기인한다고 하여 인체에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을 하여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성격으로 노골화하면서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이며 극도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퇴폐주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음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예시하기도 한다.

---

40) 이수인,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41) 김예성,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42) 변영희·채금석,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2004.

## a. 그로테스크(grotesque)

퇴폐성이란 왜곡의 형태로써 추한 것의 개념에서 확장된 의미로, 그로테스크하거나 혐오스런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에 대한 요구를 노골화시켜 전통미를 해체하고 탐미적 경향과 절대적 세계에 대한 초월적 갈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질서의 파괴와 윤리·도덕의 타락 현상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데카당스(decadence), 니힐리즘(nihilism)의 문화가 전면화 됨에 따라, 기존의 무겁고 진지한 담론들은 조롱과 가치전복의 대상이 되어 우스꽝스럽게 회화되거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왔다. 이러한 예술정신과 표현방식들 가운데 특히 그로테스크는 과장되고 희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기괴하고 불쾌한 이미지로 평범한 것에 무감각한 현대인에게 시각적 충격을 유발하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메이크업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컬러의 도입으로 탈중심화된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무채색계열의 컬러로 얼굴의 핏기를 감추어 어두워 보이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이며 인공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2004 s/s Christian Dior에서 보여진 메이크업은 얼굴을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하여 메이크업 기법을 왜곡하여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16>. 얼굴에 있어 입술은 얼굴 자체의 컬러 이미지에 큰 영향력을 지니는데, 오래전부터 붉은 입술은 여성의 선망이었다. 그러나 <그림-17>에서의 검은 립 컬러는 매우 퇴폐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얼굴 전체를 붉은 핑크색으로 칠을 한 후 오브제를 이용한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그림-18>도 있다. A/W 2005 Christian Dior에서 가부



<그림-16> 2005 A/W  
Christian Dior



<그림-17> 2005 A/W  
Christian Dior

끼 메이크업을 하고 바로크 시대에 사용한 듯한 망을 쓴 흰색의 얼굴은 창백한 퇴폐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19>. 이는 시대와 장소의 격차를 넘는 해체주의 탈 중심과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림-18> 2005 A/W  
Christian Dior



<그림-19> 2005 A/W  
Christian Dior

## b. 하위문화(subculture)

20세기 후반에 하나의 크나큰 흐름의 패턴으로 팝아트와 퇴폐주의 및 에로티시즘 등 있다. 여기에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분화된 다양한 패턴으로 독특한 사조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팝 아트 작품을 응용하여 패션 분야에서 팝아트의 특성을 살린 원색의 컬러로 메이크업과 의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팝 아트적인 특성과 결합하여 하이테크 소재의 의상을 내놓았는데 실제 마네킹을 연상시킴으로써 지나친 인공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중적인 경향의 표현방식은 해체주의의 차연과 탈 현상개념과 부합되고 있다. 이는 팝아트 사조를 현대적인 자유분방한 사조 및 기법과 결합시켜 대중적이고 노골적인 메이크업 표현 방식을 창출하였다.

2006년 s/s Christian Dior에서는 눈과 관자놀이 부분에 부채꼴 모양으로 갈색을 칠하여 공격적이며,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20>.

퇴폐적 경향은 주로 병적이거나 자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부조화된 색을 사용한다. 입술에 적색이나 검붉은 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거나 흑색·진갈색, 진회색 계열 및 파랑·보라 등의 한색(寒色) 계열로 눈 주변을 과장하거나 얼굴 전체를 어두운 색으로 지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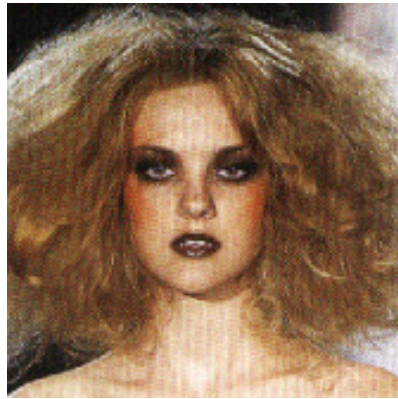
하게 하여 미적 규범에서 벗어나게 한다<그림-21>.

<그림-22>를 보면 고대 이집트 시대의 눈썹 모양을 연상시키는 의상과 오렌지계열의 립 컬러와 새도우는 성을 자극 시키는 퇴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퇴폐적 경향이 그로테스크와 하위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현상은 극도의 에로틱한 이미지 및 형태나 색을 과장한 혐오스런 문양으로 거부감을 주는 데카당스(Decadence Make-up)와 데테스테(Détester Make-up) 메이크업으로 명명된다.



<그림-20> 2005 A/W  
Christian Dior



<그림-21> 2005 A/W  
Christon Dior



<그림-22> 2004 S/S  
Fastiegizi

## (1) 데카당스 메이크업(decadence Make-up)

퇴폐성은 세기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퇴폐성의 개념이 확장 심화되어 포스트모더니즘 특성과 결합되었고 특히 해체주의적 개념과는 밀접한 공유성을 보이고 있다. 메이크업 측면에서 보자면 해체주의의 탈구성 개념과 연계된 유희성 및 퇴폐성을 바탕으로 한 탈정형적인 메이크업 표현은 데카당스 메이크업과 상통되며 크게 보자면 데카당스 메이크업은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데카당스의 개념은 사회적, 정신적 공황 속에서 일체의 가치를 포기하는 절망론, 쾌락주의, 심미주의, 자아의 파괴를 자초하는 병리현상 등의 소위 세기말적 병(mal du fin de siècle)을 일컫는다.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절대적 세계에 대한 갈망 및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역동적 희망이 데카당스(Decadence)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sup>43)</sup>

데카당스는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허무적이며 심미주의적 문예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데카당스 미술은 문화의 미적 퇴폐과정이나 예술적 활동이 정상적인 힘 또는 기능을 잃고 이상한 감수성, 자극적 향락으로 빠지는 경향으로 흐르고 병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사조는 패션분야에서 악마의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사용,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과감하게 강조된 일종의 세기말적인 현상을 보인다.<sup>44)</sup>

본 연구의 주제인 해체주의와 관련성이 높은 데카당스 메이크업은 남성적인 강인함과 퇴폐적인 분위기 강한 개성과 유니섹스적 스타일에 혐오스런 문양의 타투(Tattoo)나 병적인 색상, 성(性)을 자극시켜 거부감을 일으키는 표현 방식으로 이용된다. 이중 펑크적 표현인 타투(Tattoo)는 원시 시대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얼굴과 몸에 칼자국을 내어 장식적인 것보다는 소속 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혼돈과 무절제 속에서 오는 폭력성과 집단성, 저항성의 시대정신은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타투라는 형식만을 차용하고 있다. 즉 ‘무조건’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성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뚝뚝하게 주장하여 원하는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방식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장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최종 산물인 열린사회와 열린 사고는 바로 데카당스 메이크업의 전통적 규범의 거부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 측면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

43) 한성철,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p.15.

44) Maggie Angeloglou, A History of Make Up,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1970, p.24.

## (2) 데테스테 메이크업(détester Make-up)

데테스테(détester)는 프랑스어로 ‘혐악’ ‘증오’를 의미하는 단어로, 깨끗함·세련됨·우아함·단정함과는 정반대되는 분위기를 추구하기 위한 악취미 운동이다. 이 운동은 ‘미(美)와 추(醜)의 경계는 극히 모호하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추악하고 저속한 것에도 의외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아르누보 시대의 모티프로 사용하던 곤충과 파충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자연 요소를 이용한 자유로운 발상에 의해 만들어졌다.<sup>45)</sup>

데테스테 메이크업(Détester Make-up)이란 곤충의 더듬이나 동물의 깃털 등을 이용하여, 혐오적이고 퇴폐적이며 데테스테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동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삶의 필수요건(양식, 의복, 공구 등)으로서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다. 이들은 자연현상 특히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천재지변을 예감하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동물에 대한 경의심이 강하였고 이들을 신성시 해왔다.<sup>46)</sup>

인간과 동물의 유기적 관계는 문학·예술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의 의인화가 빈번하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동물의 의인화, 인격화는 우회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기능을 가진다.

동물적 요소가 가미된 메이크업으로는 Christian Dior 2004 s/s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의상에 얼굴을 섬뜩한 느낌의 빨강색의 가는 눈썹과 독이 서려 있는 듯한 찢어진 모양의 눈을 표현하여 파충류의 차가움을 주는 메이크업이 있으며<그림-23>, 이는 인간이 아닌 곤충이나 동물의 요소를 메이크업에 차용하여 인간과 동물의 요소를 혼용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 간의 상호텍스트성이다. 또한 조형예술로서 메이크업이 곤충이나 동물의 요소로 인해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불확정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2000-2001 A/W Givenchy에서는 얼굴과 목, 가슴에 동양적 문양인 꽃무늬와 용과 날개 달린 물고기를 그려 넣어<그림-24>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 회귀 본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를 조형적 요소로 설명하면 탈 중심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인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에서 파생된 것으로, 메이크업에 곤충과 동물의 요소, 자연 등을 응용함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욕구를 은유적이고 역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

45) 정삼근,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1996. p.105.

46) 장미숙,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 문화 연구, 2000, p.444.



<그림-23>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24> 2000-2001 A/W Givenchy

## 2. 유희성(playfulness)

유희성이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 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을 말한다.<sup>47)</sup>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유희성은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텍스트를 해체하거나 해체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우연적인 미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데리다의 불확정성 개념과 유희성 개념에 의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이다. 얼굴의 조형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재미거리(fun)를 준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주며, 고상하고 세련된 이미지보다는 하류문화의 저속한 이미지, 촌스럽고 유치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유희로서의 예술의 미학은 긴장의 갑작스런 소멸과 의외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띠고 있으며 오락적인 카타르시스의 기능과 현실도피의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그러므로 유희의 차용은 현대 생활에서의 자유로움과 정신적 해방을 유도한다.

### a. 부조화(disharmony)

부조화는 기존의 미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무시로서 조화에 대한 개념을 파괴 하는 것이다. 이는

---

47)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1994, p.75.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아 철학적, 창조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간성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 되어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형식에 있어서 디자인 원리를 파괴한 표현이다. 질서를 무질서로, 미나 비례를 무시한 추와 왜곡으로, 미리 설정된 의미의 명확성을 모호성으로,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비정상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에 의해 그 원리가 다르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 b. 미완성(incompleteness)

메이크업에서 미완성이란 의도적으로 미숙한 형태나 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중의 메이크업으로, 특히 퍼포먼스 등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술 선을 그리고 그 안에 면을 채우는 과정이 아닌, 면을 비워둔다거나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메이크업이 아닌 우연적이고 무계획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하고 예측 불허한 메이크업을 통해서 미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미적 표현영역을 확대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회화의 한 형태를 도입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데리다의 탈 구성·탈 중심(Dis·De 탈 현상) 이론이 적용된 그래픽 메이크업(graphic Make-up)과 콜라주 메이크업(collage Make-up)을 들어 비구성적이고 탈 형식적인 즉, 소재와 그 위치의 의외성으로 유희를 자아내는 메이크업들을 설명하고자한다

### (1) 그래픽 메이크업(graphic Make-up)

그래픽(Graphic)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그라피코스(Graph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쓰다’라는 것이 원래 뜻이며 ‘도식화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48)</sup>

그래픽 디자인의 표현기법으로는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응용하거나 색채배색과 모티프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여기에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얼굴의 중심을 무시하고 얼굴의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출하여 상징적 기호와 메시지 등을 그려 넣어 본래의 의미로부터 이탈된 탈 중심의 새로운 불확정성을 보여준다.

그래픽 아트<sup>49)</sup>를 주제로 한 메이크업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표현 영역이 확대되어 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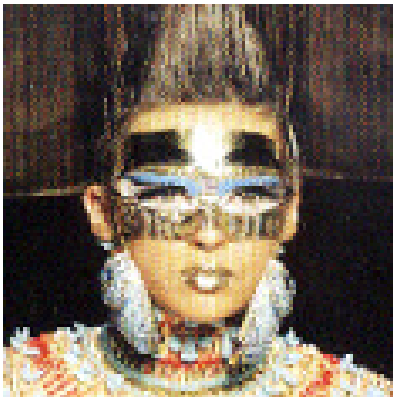
48) 김영호, 「시각디자인의 구성 원리」, 태학사, 1998, p.13.

49) 그래픽 아트: 평면위에 도형이나 색채로 표현된 모든 조형으로써, 단순히 기하학적인 선에서부터 색채배색과 모티브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화, 도안, 인쇄 등 평면상에 도형을 나타내는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는 2004년 s/s, Christian Dior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이집트 레페르니트의 왕비를 연상시키는 의상과 왕관을 선보이면서 검정물감으로 얼굴의 조형요소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그려 넣었다. 여기서 기하학적 눈썹과, 셀로판지를 오려붙인 새도우는 해체주의의 탈 구성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그림-25>.

또한 존 갈리아노는 탈 중심적 의상을 선보이면서 해체주의의 메이크업의 탈구성적 요소들을 받아들여 눈썹의 위치를 전위시킨 그래픽 메이크업을 선보였다<그림-26>. 그리고 2004년 s/s Christian Dior에서 발표된 현대의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 사회를 비판하는 해체메이크업으로써 은색과 금색 칼라로 얼굴을 면분할한 그래픽 메이크업을 선보였다<그림-27>.



<그림-25>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26>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27> 2004 S/S  
Christian Dior

---

기술을 총칭한다.

## (2) 콜라주 메이크업(Collage Make-up)

콜라주(Collage)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콜레(Coller)로 ‘플로 붙이다’라는 뜻으로, 콜라주는 ‘아교로 붙임’, ‘붙여 붙이기’를 의미한다. 콜라주 기법은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념을 깨고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재미를 유발시킨다. 예를 들면 1912년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는 ‘등의자가 있는 정물’이란 작품에서 캔버스 위에 등나무로 엮은 무늬를 직접 그려 넣는 대신 그 무늬가 인쇄된 천을 캔버스 위에 붙여 작업을 하였다.<sup>50)</sup>

현대 미술에서 콜라주(collage) 기법은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화면에 이질적인 오브제를 부착하는 것으로 시도되어 평면적인 회화를 삼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리면서 소재와 표현기법, 조형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 되었다. 즉,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팝아트 등의 미술사를 거치면서 보다 입체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 파피에콜레(papier collé), 레디메이드(ready-made), 포토몽타주(photo-montage), 프로타주(frottage),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앗쌍블라주(assemblage) 등 여러 장르로 파생되어왔다.

복식에서는 벽지, 그림, 삽화 등을 오려내어 프린트하거나, 패치워크 등을 이용하였다. 의복의 소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의외의 놀라움이 나 유머가 대중에게 전달되어진다<그림-28>.

메이크업에서도 이질적 소재의 혼용, 복합을 통한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는데, 메이크업 소재라 할 수 없는 레이스(Race) 조각, 플라스틱, 모조품 등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변화를 주거나 인조 속눈썹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그림-29~32>.

그러므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극적인 요소에 의해 부조화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재치와 유머를 전달한다. 또한, 심각하고 진지한 것보다는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것으로 단순한 유머가 아닌 지적, 정신적 유머 효과로 풍부한 창조 효과를 내고 있다<그림-33>.

---

50) 정삼근, op.cit., p.10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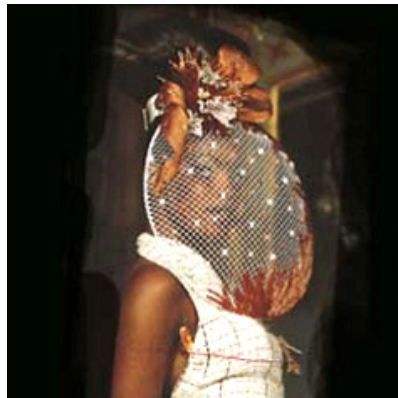
<그림-28> 2000-2001 A/W  
Givenchy



<그림-29> 2002 S/S  
Christian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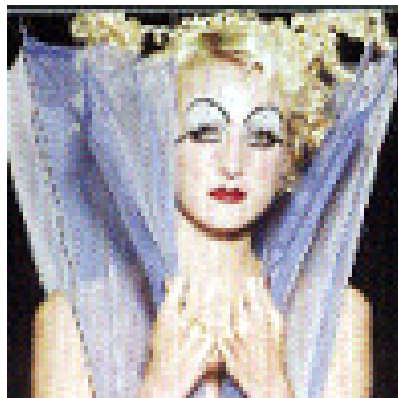
<그림-30> 2006 S/S Givenchy



<그림-31> 2006 S/S  
Christian Dior



<그림-32> 2003 S/S  
John Galhano



<그림-33> 2004 S/S  
Ritratti Onirici

### 3. 역사성(historical ori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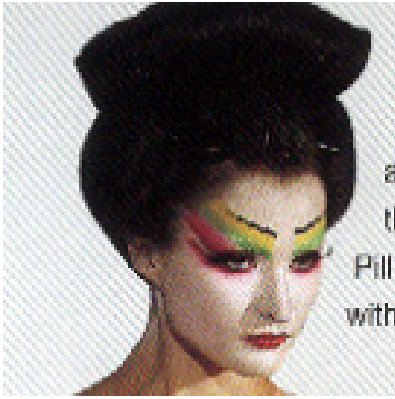
역사성은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점이 해체주의 이론의 차연으로 인한 탈 구성으로 설명된다. 즉 과거와 연관되어 현존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거나 미래의 새로운 형태로 결합되어 합성된다. 역사성에서의 차연은 공간적 개념인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

그러므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역사성은 과거의 형식을 차용하되, 과거의 의미와 과거의 상징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미래적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바탕으로 혼성모방, 변형, 삭제의 기법으로 표현된다.

실제 1985년 파리의 오꾸꾸뜨르 컬렉션에서는 복고적인 양식을 차용하였고, 더불어 메이크업도 과거가 반영된 요소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와 중세의 양식에서부터 추상 표현주의, 입체파, 옹아트, 미니멀리즘 등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의 양식사적 특성을 혼성모방의 형태로 차용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동경과 창조가 결합하여 과거의 것에서 모티프를 찾아 조합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해체작업이었다.

#### a. 탈서구(dewestern style)

탈서구는 기독교적이고 획일적인 미의식을 거부하고 동양의 신비스러움이나 다문화적(소수민족)인 토속적인 것에 다양한 미적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탈서구성은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요소의 차용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메이크업에서 독특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컬렉션에 나타난 탈서구적 메이크업은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그림-34>, 중국의 경극 메이크업<그림-35>, 몽골리안 메이크업<그림-36>, 인도 풍 메이크업<그림-37>, 고대 이집트 메이크업<그림-38> 등을 연상시키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그림-34>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35> 2006 A/W  
Christian Dior



<그림-36> 2006 A/W  
Christian Dior



<그림-37> 2005 S/S  
Sorelle Broy



<그림-38> 2004 S/S  
Christian Dior

## b. 레트로(retro)

레트로의 사전적 의미는 레트로 스펙티브(retro spective)의 약자로서 ‘회고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옛것을 그리는’이란 용어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시대나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이라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그 유행은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과 행동들을 반영한다. 이 현상은 일정 기간 동안 재현 반복되는 현상이며 과거의 요인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레트로 개념이라 불리고 있다.

이 개념은 사회동조현상으로 ‘모방’ ‘패러디’라는 ‘유행’ 개념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해체 메이크업에서는 레트로의 개념이 하나의 창조의 과정이며 과거 양식을 모방하되 내적의미와 외적형식의 조화를 이루는 ‘패러디<그림-39>’ 과정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새로운 표현성을 창출하는 재창조인 것이다.

### (1) 코울 메이크업(kohl Make-up)

고대 이집트인들은 눈을 신의 상징으로 여겨 눈 화장을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바람이나 곤충, 모래, 강렬한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검정 화장 먹을 이용한 아이라인(Eye Line) 기법으로 관자놀이 방향으로 길게 그린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다. 이렇듯 코울<sup>51)</sup>은 메이크업의 주술적 기능, 장식적 기능 및 신체 보호 기능을 가진 재료로서 사용되었다.

눈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eye Make-Up)은 6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 주연의 ‘클레오파트라(Cleopatra)’의 영향으로 이집트 스타일의 아이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이집트 스타일의 메이크업은 눈두덩 전체에 검정과 흰색 새도우를 바르고 진한 아이라인과 인조 속눈썹으로 지나치게 눈을 과장하였다.

오늘날 아이 브로우(eye Brow)에 사용하는 펜슬은 눈썹먹으로 불리는데, 고대시대 화장먹·눈썹먹으로 불렸던 코울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또한 아이 메이크업에서 아이라이너(Eye Liner), 마스카라(Mascara)는 과거 코울이 눈을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지닌 제품이며, 코울과 동일 명칭으로 불리는 눈썹먹과 유사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sup>52)</sup>

오늘날 코울의 사용은 과거의 코울을 차용하였으나 장식적 기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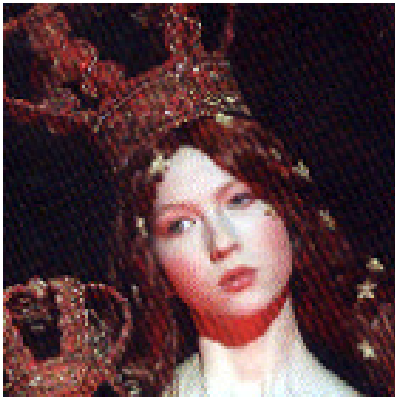
51) 코울(Kohl): 화장먹이라고도 하며 색상은 말라카이트(Malachite)와 공작석의 가루를 이용한 초록색과 안티모니(Antimony)로 만든 검정색이 있으며, 이밖에 회색, 청색 등이 있다.

52) 황정원, 「화장품학」, 현문사, 1995, p.121-126.

여 지며, 코울을 그려 넣은 두께의 변형이나 색상에 변화를 주어 전통적인 코울의 사용기법을 해체하였다<그림-40>.

한편, 현대에 사용되는 코울의 색상은 원색적인 컬러에서부터 파스텔 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존 갈리아노는 흑발의 이집트 헤어스타일을 금발의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눈썹은 연장시켜 눈 꼬리와 연결되게 하고, 펄이 가미된 짙은 브라운 코울을 칠하였다. 또, 눈동자와 함께 확장되어 보임으로써 묘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그림-41>.

따라서 코울 메이크업이란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메이크업으로 과거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었던 코울을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표현된 것이며, 현 사회의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하여 과장, 변형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림-39>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40> 2006 S/S  
Christian Dior



<그림-41> 2006 S/S  
Christian Dior



## (2) 레이스리스 메이크업(raceless Make-up)

레이스리스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성립되어온 민족성을 해체하여 다국적으로 나타난 특성을 레이스리스 개념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문화적 경계들이 무너지면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종합하려는 양식이 대두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 또는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특성이 반영된 메이크업을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이라 한다. 그러므로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은 민족의 문화성을 서로 교차시켜 새로운 감각을 나타낸 것으로, 타자의 임의적 상용 및 변형을 통한 역사성 그리고 관습적, 토속적 재료의 사용을 통한 장소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로코코시대의 애교 점, 오뚝한 코, 창백한 피부, 부풀린 헤어, 그리고 두껍고 창백한 화장에 약간 붉은 볼 화장, 가늘게 곡선 진 눈썹, 작은 장미 꽃 모양의 입술은 전형적인 18세기 로코코스타일이다<그림-42>. 이러한 메이크업과 함께 소수민족을 소재로 한 동양 여인을 연상시키는 두발과 장신구와 의상으로 민족의 문화성을 교차시킨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43> 메이크업 이미지는 차연의 의미로 다양한 문화가 자신의 공간을 이탈하여 한 공간에서 혼합되어 표현되었으며, 소외되었던 비주류문화가 격상되어 하이패션에 진입된 문화적 역류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체메이크업이 전형적인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의 표본이라 볼 수 있다.



<그림-42> 2005 S/S  
Christian Dior



<그림-43> 2007 S/S  
Christian Dior



### (3) 화이트 메이크업(white Make-up)

고대부터 사용되어오던 화이트는 19세기 전반의 유럽에서는 매력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컬러로 흰색 화장품의 사용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서 파리나 런던의 캣 워크에서 화이트 색상은 주요 아이템으로 등장하였다.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요소가 강한 패션쇼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에 화이트 컬러를 도입하여 화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붕괴하였다. 피부 컬러뿐만이 아니라 가발, 입술이나 눈, 손톱화장에 이르기까지 화이트는 새로운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sup>53)</sup>

현대 메이크업에 있어서 화이트 색상의 등장은 복고주의의 한 영향으로 세기말의 어두운 현상과 사회 병폐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월성과 권위의 절대기준을 탈피하여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컬러의 의미를 지닌다.

화이트 컬러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컬러가 현재의 메이크업에 표현됨으로써 과거를 재해석하기도 하며, ‘현재는 곧 미래의 흔적’의 역으로써 미래를 해석하기 위해 현재에 표현되기도 한다.



<그림-44> 2004-2005 A/W  
John Galliano

과거를 재해석한 예로, 2004-2005 A/W에서 존 갈리아노가 선보인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입술은 축소시켜 그림으로써 유희적이면서 창녀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림-44>. 이 메이크업의 역사는 일본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노래와 춤과 연기로 이루어진 총체 연극인 가부키(歌舞伎) 메이크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화이트 페이스 크림과 화이트 섀도우를 이용해 얼굴 전체를 하얗게 칠하고 아이브로우 눈썹과 속눈썹까지 화이트로 칠하여 전통적이고 단정한 모습이 아닌 호색적이고 해학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는 하류문화의 외설적이고 저속한 이미지가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연출된 것으로, 하이패션에 대한 탈 중심 현상이며, 과거 동양의 메이크업이 서양의 디자이너에 의해 새롭게 표현된 것으로 해체주의의 차연과 T.P.O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칼라에 의해 분류된 메이크업의 형태로서, 화이트는 애도의 의미나 패자를 의미하기도 하여 과거나 미래의 칼라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극단적 표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퇴폐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53) Maggie Angeloglou, op.cit., p.12.

#### (4) 사이키델릭 메이크업(psychidelic Make-up)

사이키델릭 메이크업은 음악, 기계, 자연이 믹싱되어 모든 장르에서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대변하고자 한다. 소재로서 청동, 기계 같은 차가움을 보이는 동시에 화려함을 내포하여 미래 지향성의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미래지향적 관심은 최첨단 문화인 사이버 또는 테크노 등의 개념과 같은 특징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메이크업 기법으로서 사이버이미지와 테크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동과 기계적인 메탈릭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신소재나 색상 패턴의 이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결합 가능한 방식을 보임으로써 무한히 다양해진 첨단 감각을 창출한다.

#### (5) 글램 메이크업(glam Make-up)

골드와 실버 글리터(glitter)는 다양한 색상의 펄과 함께 인위적이고 사이버그한 느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오늘날은 글로시 재료의 발전으로 더욱 글리터한 느낌이 강해져 장식적이고 미래 감각적인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45>는 눈을 중심으로 은색의 차가운 글리터로 장식하여 사이버그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45> 2003 S/S  
Schorrrer

### 4. 양성성(both sexes)

최근 세계 패션계는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으로 경계가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 조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파괴본능이 복잡하고 대중화, 익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사회·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프레드 데이비스(Fred Davis)에 의하면, 진정한 양성화는 생물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의복과 외모의 성적인 특별한 요소를 철저히 말살하거나 혼합,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모스 키노(Franco Moschino)는 디자인의 기술과 감성, 이성과 반이성, 안과 밖, 첨단과학과 자연의 신비 등 정반대의 개념과 사실들은 동전의 앞과 뒤, 여자와 남자처럼 이 세상에서 반드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성 이미지의 혼합은 상식을 넘어선 보다 자유로운 개성에

따른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sup>54)</sup>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서, 제 3의 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되었고, 세계화·다원화시대의 돌입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보다는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감각을 추구하였다. 시대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여 패션에 양성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성을 자신의 성과 조화롭게 지니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융합시킨 것이다. 성의 혼합 이미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로 설명되는데,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중성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a. 성의 혼재(bisexuality)

메이크업은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으나 남성도 수행하고 있다. 남성들도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밝은 컬러로 염색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허물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들이 메이크업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다. 한편 반대로 여성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늘고 있다. 구체적인 메이크업 방식으로써 여성들은 눈을 어둡게 칠하거나 마스크라나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다. 극단의 방법으로써 남성의 수염을 차용하거나 머리를 매우 짧게 잘라 남성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 (1)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androgynous Make-up)

패션에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과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을 합친 양성적 이미지 개념을 도용하여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이라 지칭하였다. 또한, 어두운 색이 남성적이라는 이미지가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젊은이들이 하드 룩에 열광하던 80년대의 보이 조

---

54)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35; 채금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호, 1999, p.37에서 재인용.

지의 블랙 메이크업과 같은 남성이 메이크업을 하는 행위는 여성성을 도입한 것이며, 어두운 색조의 화장은 남성적인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색조에서는 남성적 요소를, 메이크업 형식에서는 여성적 요소를 포함한 양성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46>은 서구시대를 연상시키는 남성의 모자와 장신구들에 검은 화장과 언더라인의 짙은 아이라이너는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주며, 볼과 입술의 붉은 칼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 성의 상호텍스트성을 강하게 보여주며 양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46> 2006 S/S  
Christian Dior

그러므로 양성성은 전형적 성역할에서 벗어나 각자 인간으로서의 개성추구를 원하는 현대인들에 의해 많이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푸꾸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메이크업 특성에 따라 나타난 해체메이크업을 정리하면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4> 오푸꾸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데리다 이론	특성	특성에 따라 나타난 특징적 경향	해체적 특성이 적용된 해체 메이크업	표현기법	특징
탈중심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퇴폐성	그로테스크 하위문화	데카당스 메이크업 데테스테 메이크업	자극적 장식, 이색적 컬러, 성적 노골화, 곤충이나 동물의 저속한 문양	양식과 소재의 혼재
	유희성	부조화 미완성	그래픽 메이크업 꼴라쥬 메이크업	기하학적 형태, 이질적 소재, 회화적 기법	
	역사성	탈서구 레트로	코올 메이크업, 레이스리스 메이크업, 화이트 메이크업, 사이키델릭 메이크업, 글램 메이크업	블랙과 화이트칼라, 가부끼, 경극, 소수민족 메이크업 변형, 미래적 분위기의 색상 재질 사용	
	양성성	성의 혼재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남성적 이미지 기법	

데리다 이론에 의한 해체메이크업은 역사를 차용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하지만 과거-현재, 과거-현재-미래를 한 공간에 공존시킴으로써 차연의 특성을 지닌다. 차연의 특성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텍스트를 차용하여 사용함으로써 T.P.O에 따른 메이크업에 형태를 해체하고 아프리카나 동양권의 메이크업 문화를 차용하여 서양과 동양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은유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메이크업을 탈피하여 통일성 원리를 해체한 이질성, 부적합성, 탈 중심성을 띤 비대칭적 구성과 꼴라쥬 기법, 기하학적 모티브 등 소외된 타자를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얼굴에서 조형 요소를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여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메이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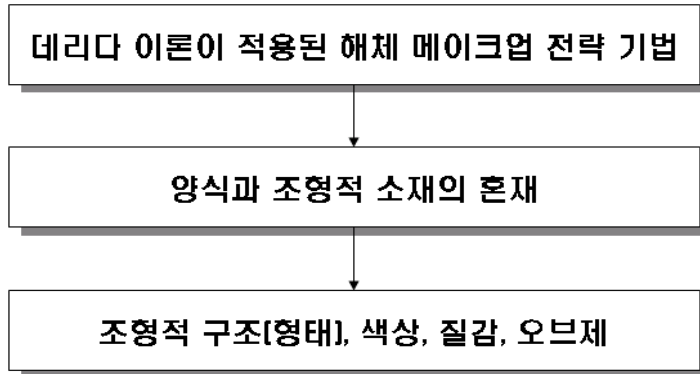


#### D. 해체 메이크업의 표현 특징

본 연구는 데리다 해체주의 이론, 즉 차연과 산중에 의해 나타난 탈 현상, 불확실성, 상호텍스트성에 따라 나타나는 해체주의 메이크업특성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퇴폐성, 유희성, 역사성, 양 성성으로 코드화 하였다. 그 각각의 특징을 하위문화, 그로테스크, 부조화, 미완성, 탈 서구, 레트로, 성의혼재로 나누어 그 특징을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통하여 표현기법과 특징적 조형요소 주요한 구체적 소재 및 색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해체주의 자체가 차연성을 띠고 과거현재 미래의 공존의 '열린사회' '개방사회'로 나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모든 텍스트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듯이 해체메이크업은 네 가지 특성 중 어느 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양식 또한 어느 한 양

식으로 구분지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의해 보았듯이 이러한 해체메이크업의 특성을 정리한 결과 표현 특징이 양식과 소재의 혼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 E. 양식과 조형적 소재의 혼재



모든 사물은 상호텍스트성과 관련된 양식으로써 그 자체로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모방이며 표절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은 있을 수 없고 상호텍스트의 이론 안에 양식의 혼재와 소재의 혼재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의 혼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과거가 반영된 요소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와 중세의 양식으로부터 추상표현주의, 입체파, 옹아트, 미니멀리즘 등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양식사적 특징을 조형적 소재의 혼재와 모방형태로 차용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동경과 창조가 과거의 것으로부터 모티브를 찾아 조합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이 적용된 메이크업은 스타일이나 테크닉, 모티브 등을 의식적으로 빌려온 이미지이며 이는 다소 연관이 없는 조합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동기도 감각도 없는 의미 창출이 배제된 허무주의적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뚜렷한 분류를 찾아낼 수 없는 혼란스러운 특성으로 정확한 형태를 가지지 않은 불분명한 영역 등의 특징을 가진 혼재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을 결합시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감각적 자극과 자유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데리다 이론의 탈 중심과 불확정이 적용된 메이크업은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요소의 차용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함으로 강렬한 메이크업 이미지를 나타내준다. 기독교적이고 획일적인 미의식을 거부하고 동양의 신비스러움이나 다문화적(소수민족)의 토속적인 것에 다양한 미적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서구적 메이크업은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 중국의 경극 메이크업, 몽골리안 메이크업, 인도 풍 메이크업, 고대 이집트 메이크업 등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시각적 표현으로는 다양한 이질적인 소재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다.

소재의 혼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특징적인 것은 펑크(punk)와 히피(hipi) 스타일 메이크업을 들 수 있다.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 속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을 반영하는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리다의 해체이론을 메이크업에 적용시켜 살펴본 결과 양식과 소재들이 혼재됨으로써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탈구조주의의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메이크업의 해체적 의미는 사회 현상의 여러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다.

본 연구자는 해체 메이크업의 시각적 초점을 소재의 혼재로 보고 그 소재들을 형태·색상·질감·오브제로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다.

## IV. 해체 메이크업의 조형적 소재 요소

### A. 해체 메이크업의 조형적 소재 요소 분류

<표-5>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조형적 요인과 세부 유형의 도출

해체 메이크업 방식	분류방식	유형(적용범위)
형 태	얼굴의 주요 다섯 부분에 대한 점·선·면을 통한 탈 구성 방식의 메이크업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색 상	기본 얼굴 베이스를 제외한 다양한 색상의 유형	흰색 검정 갈색 빨강 녹색 핑크
질 감	질감을 통한 주요 세 가지 방식의 전체 또는 일부 사용	글로시 펄 글리터
오브제	메이크업의 다양한 소재 사용	인조보석류 패브릭 종이류 퍼 인조속눈썹 금속류

#### 1. 형태(shape)

형(形)은 2차원적인 세이프(shape)와 3차원적인 폼(form)이 있다. 메이크업의 형태는 2차원과 3차원적인 형태가 혼합된 형태를 갖는다. 즉, 메이크업의 표현 유형을 조형 요소 중 형태를 이루는 형식인 점, 선, 면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점, 선, 면만으로 문양을 이룬 것과 점, 선, 면을 혼합하여 형태를 이루어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 a. 점(point)

점은 형태를 만드는 가장 단순한 최소의 형식이다. 이러한 점은 선이나 면의 형태를 표현하기도 하며, 주변공간과의 상관관계에서 상대적인 공간감의 결핍으로 그 자체의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점은 크기와 명암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점을 줄지어 배치하면 울동감이 생겨나며 어떤 방향감이 암시되게 된다. 점은 크기나 형태이외에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메이크업에서는 점의 형식을 가진 여러 가지 소재들 중 특히 인조보석류를 조합하여 하나의 구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또는 비대칭적인 추상적 문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흩뿌려져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자체로 얼굴에 있는 점을 표현하기도 하며 눈물방울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 b. 선(line)

선은 점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디자인으로 폭, 굵기가 다양하며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또한 선의 종류나 강약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진다. 사선은 방향성과 운동성을 가지며 직선은 예리함, 명확함, 엄격함 등이 느껴지고 구불거리는 곡선에서는 유연함, 생명감, 자유, 불확실성 등의 감정이 느껴진다.

메이크업에서는 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라인 등의 표현에 선의 형식이 사용되며 블러셔(blusher)를 선적인 터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사선, 직선, 곡선 등 선의 형태는 종류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좌우 되어 진다. 전형적인 메이크업의 형태에서는 얼굴의 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기교로써 아름다운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c. 면(plane)

면은 점의 확대나 선이 이동한 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한한 형태와 넓이를 가질 수 있다. 면의 표정은 그것이 어떤 질료와 결속되어 있는가와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드러움 이라든가 딱딱함 이라는 질료의 느낌은 바로 면의 표정과 연결된다.

메이크업에서 면의 형식은 주로 아이섀도우(eye shadow), 볼(cheek), 입술(lip) 메이크업에 적용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메이크업을 눈썹, 눈, 입술, 볼, 얼굴로 분류하여 그 형태의 해체성에 대해 오뚜꾸뚜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 형태의 유목들을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유목 선별은 실무경력 5년 이상 된 메이크업분야의 전문 판단자 10인과 메이크업 관련대학원전공 학생 10인에게 사전에 만들어진 설문지에 기입 하도록 하여 총20매의 설문지를 수압하여 표시유목이 5회 이상 표시된 유목을 해체주의 경향이 강한 유목으로 설정하였다. <표-5>부터 <표-12>까지 유목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 해체성이 강한 메이크업 디자인 형태 유목들이다.

### (1) 눈썹(eye brow)

눈썹은 선을 이용하여 방향성과 운동성을 지니고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고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다.

눈썹 메이크업에 표현되는 직선은 속도감, 긴장감,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사선은 속도감, 불안 등의 속성을 나타내는 등 선의 종류에 따라 동적 및 정적인 성격이 복합적으로 표출한다. 아울러 선의 강약 또한 종류와 유사하게 표현상에서 이미지를 다르게 표출한다. 눈썹 부위는 얼굴 메이크업의 조형적 요소 중 선의 요소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선의 느낌이 눈썹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눈썹 메이크업 부위는 해체적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양한 형태적 요소를 가지는데 선과 면의 결합 등이 있으며 해체적 형태의 눈썹은 본래의 눈썹의 형태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형적인 눈썹의 색깔이나 위치, 각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눈썹의 위치 위쪽에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눈썹이 위치하고 있거나 거의 없애버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컬렉션에서 해체주의적 경향이 나타나있는 다양한 형태의 눈썹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47> 형태에 있어서 점에 의한 눈썹을 보이고 있는데, 재료는 보석이나 스톤을 붙였다.

<그림-48> 선에 의한 형태인데 지워버린 눈썹 위에 각이 심하게 진 흰색의 눈썹을 그려 넣었다.

<그림-49> 셀로판지를 오려붙인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눈썹이다.

<그림-50>, <그림-51> 완전히 눈썹의 형태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심하게 변형된 눈썹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52> 선에 의한 눈썹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눈썹의 길이를 헤어까지 연장하여 시각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형태이다.

<그림-53> 면에 의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셀로판지를 오려붙여 일자 눈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54> 사슴뿔을 연상시키는 추상적 문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림-55> 터치를 가미한 형태를 양쪽 눈썹이 맞닿게 그려 넣었다.

<그림-56> 눈썹의 형태를 거의 없애고 앞머리에 약간의 터치만 주어서 미완성의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57> 완전히 눈썹을 없애버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47> 2002 A/W  
Christian Dior



<그림-48> 2004, 2005 A/W  
Christian Dior



<그림-49>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50>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51>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52> 2003-2004 A/W  
Christian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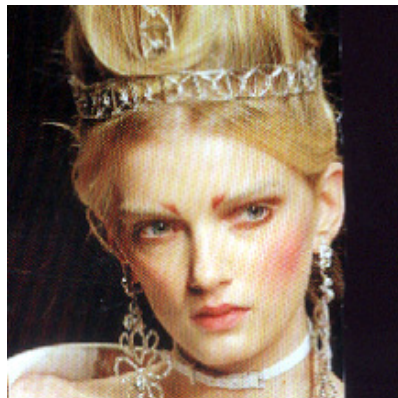
<그림-53> 2004 S/S  
Christian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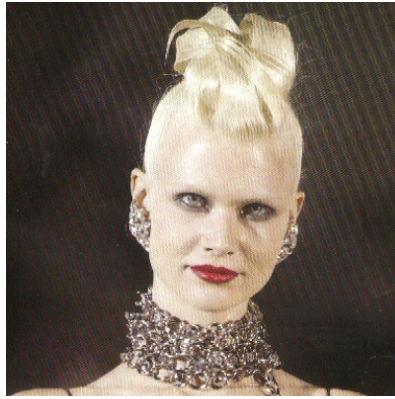
<그림-54> 2003 S/S  
Christian Dior



<그림-55> 2002 A/W  
Christian Dior



<그림-56> 2005 S/S  
Christian Dior



<그림-57> 2004-2005 A/W  
Christian Dior

<표-6> 눈썹 형태 유목표

위치	구성요소	표현형태	소재
정상 위치 이탈	점	기존 눈썹 위에 표현	인조 보석류 종이 금속류
	선	연장의 형태	물감
		다양한 선의 형태	물감
		다양한 색상	물감
	면	추상적 문양	패브릭
		두꺼운 형태	셀로판지
	무형태	약간의 터치 형태	패브릭 종이 물감
		완전 무형태	

## (2) 눈(eye)

눈은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형태 및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부위에 해당되며 점, 선, 면의 사용 방식 중에서 면의 형태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법으로서 아이새도우(eye shadow)의 다양한 색상의 이용, 아이라인(eye-line), 마스크라(mascara), 인조속눈썹(false eye lashes)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기법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적 기법을 사용하여 해체주의적인 특성을 표출하고 있는데 아래의 컬렉션은 해체적 눈 메이크업의 다양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58>은 아이새도우의 기법에서 눈의 꼬리 쪽을 강조하였고

<그림-59>는 눈의 앞쪽을 강조하였다.

<그림-60>, <그림-61>은 눈의 언더 쪽을 강조 했으며

<그림-62>는 점의 형태만을 취하였으며

<그림-63>은 눈의 위, 아래를 함께 강조하면서 점과 면의 형태도 함께 취하고 있다.

<그림-64>, <그림-65>는 속눈썹의 형태를 변형하여 정상 위치와 상관없이 붙인 형태이다.

<그림-66>은 속눈썹이 정상의 위치가 아닌 아래쪽에 붙여있으며 새도우의 형태가 글리터를 이용하여 넓게 확장된 형태이다.

<그림-67>은 다양한 색상을 이용한 새도우의 확장을 보여주며

<그림-68>은 선의 형태를 이용한 눈썹의 연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69>, <그림-70>은 면과 선을 이용한 조형적 형태에 글리터를 이용하여 화려하고 강한 눈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그림-71>, <그림-72>는 면을 이용한 화려한 새도우의 색상은 의상을 더욱 돋보여 주고 있다.

<그림-73>은 눈을 중심으로 그림이 추상적 형태를 하고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림-58> 2002 A/W  
VALENTINO



<그림-59> 2002 A/W  
Christian Dior



<그림-60> 2004-2005 A/W  
CHANEL



<그림-61> 2000-2001 A/W  
GIANNI MOLATO



<그림-62>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63> 2002-2003 A/W  
ZUHAIR MUR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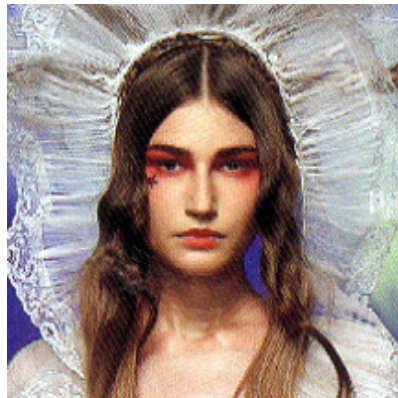
<그림-64> 2003 S/S  
ROSETTE METTE



<그림-65> 2003-2004 A/W  
Christian Dior



<그림-66> 2002 A/W  
Christian Dior



<그림-67>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68>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69> 2004 S/S  
Christian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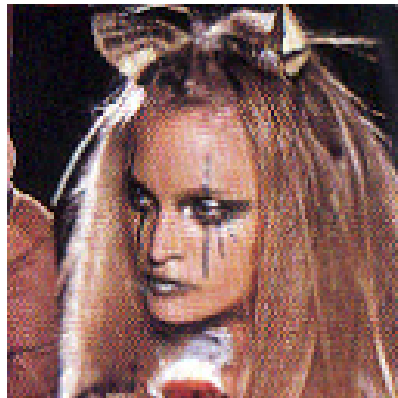
<그림-70>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71>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72>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73> 2001 S/S  
Roberto Spiaelli

<표-7> 눈(eye)의 형태의 유목

위치	구성요소	표현형태	소재
정상 위치 이탈	점	단독으로 점의 형태	물감, 인조보석류, 글리터
	선	선의 단독 이용보다 면과 함께 사용됨	인조 보석류
		속눈썹 변형의 형태	인조 속눈썹
	면	눈의 끝을 강조	패브릭 셀로판지 필 글리터 인조보석류
		눈의 앞쪽 강조	
		눈의 위아래 강조	
		새도우 확장	
추상적 형태	추상적 문양	필, 글리터, 인조보석류, 패브릭	

### (3) 입술(lip)

입술 메이크업은 입술부위에 특정색상을 부여하거나 기본적인 입술형태를 변형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입술 메이크업은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이상적 입술형태와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입술 메이크업은 해체적인 입술 메이크업방식으로써 다양한 색상과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체주의적 입술메이크업으로 과장된 입술 모양의 표현, 미완성의 메이크업, 검정 색상의 메이크업 등이 있으며 아래의 컬렉션은 이들 사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74>는 소형적 형태의 과장된 입술 모양 위에 보석류나 글리터를 붙여 점의 형태와 면의 형태를 함께 가지도 있다.

<그림-75>는 입술 외곽의 모양만 그려 넣은 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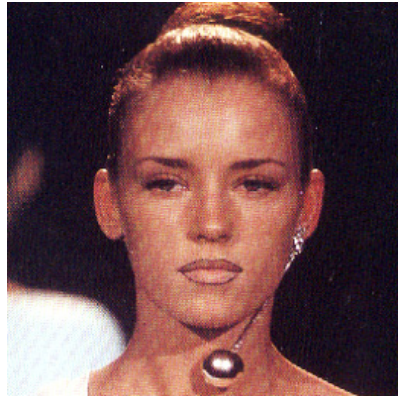
<그림-76>은 면의 형태에서 입술 색상으로는 부적절한 검정색을 띠고 있다.

<그림-77>, <그림-78>은 입술 전체를 색상으로 매꾸지 않는 미완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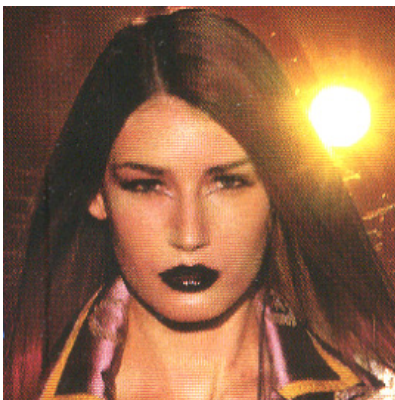
<그림-79>는 입술의 색상이 얼굴피부 색상과 같아 마치 입술이 없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무의 형태를 주어, 무표정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74> 2004 A/W  
Christian Dior



<그림-75> 2001 S/S  
RUSY GAR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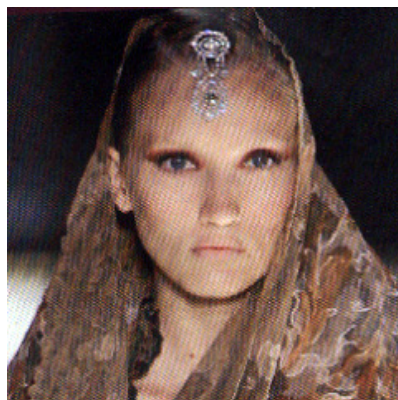
<그림-76> 2002 A/W  
Christian Dior



<그림-77> 2004-2005 A/W  
Christian Dior



<그림-78> 2004-2005 A/W  
Christian Dior



<그림-79> 2004-2005 A/W  
Christian Dior

<표-8> 입술(lip)의 형태에 따른 유목표

위치	구성요소	표현형태	소재
정상 위치	점	면의 형태와 함께 사용	보석류 글리터
	선	입술의 외곽 라인만 그림	물감
	면	다양한 색상의 형태	펄 글리터
		입술의 일부만 형태 부여	
	무형태	얼굴 피부 색상과 동일한 형태	피부 톤의 물감

### (3) 볼(Cheek)

일반적으로 볼 메이크업은 얼굴의 혈색을 좋게 하고, 얼굴에 윤곽을 주어 입체적인 얼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볼 메이크업은 탈정형성 및 탈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해체주의적 볼 메이크업으로서 형태적요소를 부가하거나 다양한 색상을 혼합하여 새로운 메이크업의 컨셉을 창출하는데 아래의 컬렉션은 해체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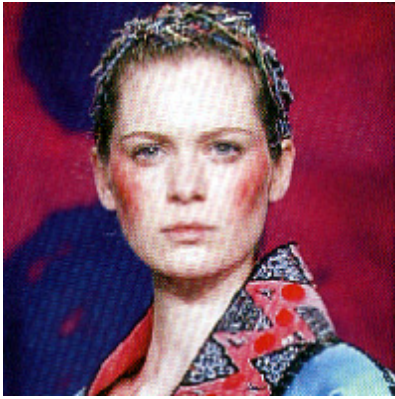
<그림-80>은 볼 형태가 면의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흩어지는 형태를 띠며 얼굴의 다른 메이크업에 비해 짙은 색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림-81>은 볼의 위치가 위쪽까지 확장되어 올라가며 짙은 색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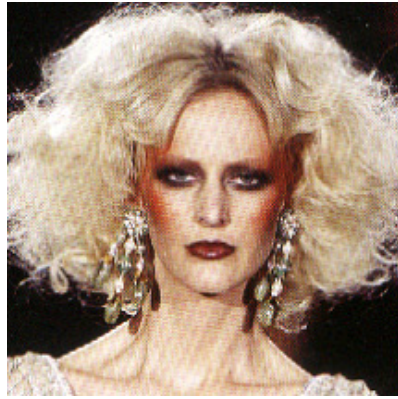
<그림-82>는 가부끼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림-83>은 경극 메이크업의 변형으로 볼에 영뚱한 색상과 형태를 종이를 오려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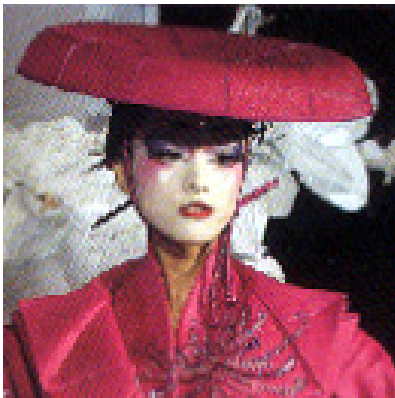
조사결과 볼 형태는 거의 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무난하며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80> 2004 S/S KHALED



<그림-81> 2004 S/S VALENTINO



<그림-82>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83> 2004 S/S Christian Dior

<표-9> 볼(cheek)의 형태에 따른 유목표

위치	구성요소	표현형태	소재
정상 위치	면	흩어진 확장 형태 붉은색 톤을 제외한 색상 형태	종이 글리터 필



#### (4) 얼굴(face)

얼굴 메이크업은 눈, 입술, 눈썹, 볼 메이크업을 제외한 얼굴 베이스(base) 부위에 하는 메이크업을 말하는데 가장 많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부위들과 혼합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얼굴 메이크업도 다양한 형태와 기법을 통해 해체주의적 특성인 탈구성 및 탈정형성을 표출하고 있다.

아래의 컬렉션은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방식으로서 기존 피부 톤 위에 얼굴에 조형적 형태로 점, 선, 면, 구상적, 추상적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84>는 점의 형태로써 바로크시대의 패치(patch)를 연상시키며

<그림-85>는 점으로써 얼굴의 경계를 두는 듯한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이다.

<그림-86>은 흩어진 면의 형태로써 모래를 흩뿌려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림-87>은 점과 선과 면이 혼합하여 전체적으로 추상의 형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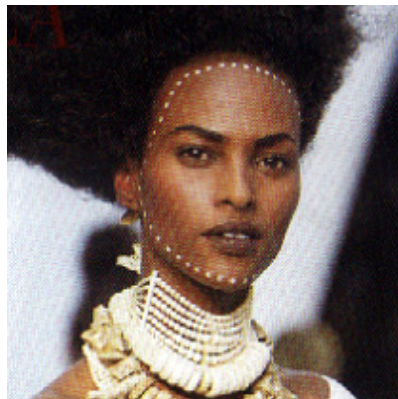
<그림-88>은 구상적 형태로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문양을 하고 있으며

<그림-89>는 알파벳 문자의 구상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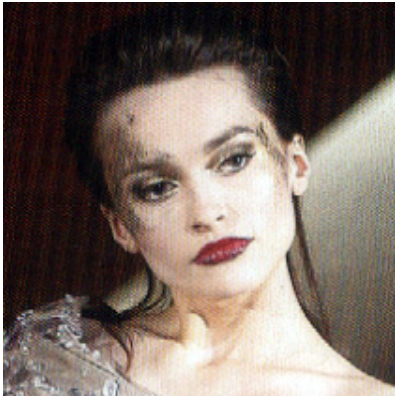
<그림-90>은 얼굴의 축소 적 형태로써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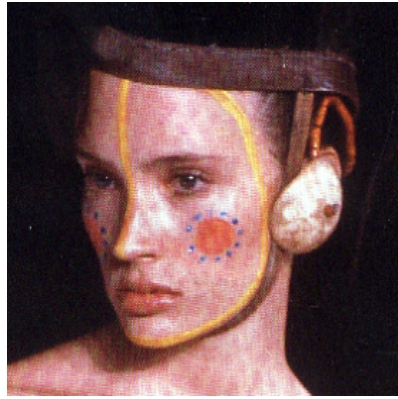
<그림-84> 2002 S/S  
Christian Dior



<그림-85> 2004 S/S  
AFRIGAN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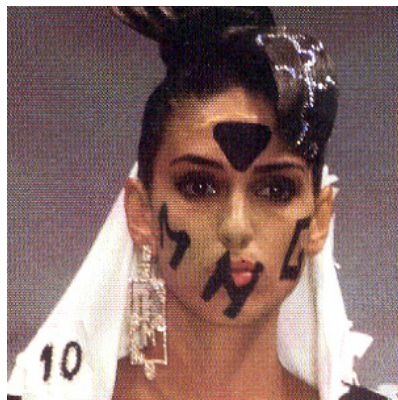
<그림-86> 2003 S/S  
Christian Dior



<그림-87> 2002 S/S  
Christian Dior



<그림-88> 2002 A/W  
ENANUEL UNGARO



<그림-89> 2002-2003 A/W  
Christian Dior



<그림-90> 2003 S/S Christian Dior

<표-10> 얼굴(face) 형태에 따른 유목

위치	구성요소	표현형태	소재
정상 위치	점	패치(patch) 형태	물감
	점, 선, 면의 혼합	구상적 형태 추상적 형태	물감 패브릭 셀로판지 종이 모래
	축소	얼굴의 축소 형태	물감

## 2. 색상(color) – 얼굴 피부 톤

색상은 메이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양한 색상을 통해 얼굴의 전체적 이미지를 좌우하며, 명암을 주어 윤곽을 뚜렷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체 메이크업에서 색상은 눈, 눈썹, 입술, 볼 등의 개별적인 부위에 여러 가지 색상이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 색상의 요소 또는 차원은 얼굴의 피부 톤이 아닌 전체적 베이스(Base) 색상을 말한다. 해체주의적인 특성의표현은 단순히 형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색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체적 기법으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검정색을 사용하거나 몇 가지 원색을 혼합하여 얼룩문양과 같은 다양한 패턴을 창출하기도 한다.

아래의 컬렉션은 해체주의적 색상 표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91>은 검정 색상의 얼굴을 하고 있어 강하고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림-92>는 파랑색과 노랑색의 다양한 색상으로 얼룩지게 피부 톤을 표현하였다.

<그림-93>은 햇볕에 탄 듯한 이미지의 갈색 톤을 군데군데 표현하여 네츄럴(natural) 느낌이 강하게 난다.





<그림-91> 2003-2004 A/W  
Christian Dior



<그림-92> 2003-2004 A/W  
Christian Dior



<그림-93> 2003-2004 A/W  
Christian Dior

<표-11> 얼굴 피부 톤 색상에 따른 유목표

위치	색상종류
정상위치	피부 톤이 아닌 다양한 색상 (검정, 흰색, 갈색, 파랑, 빨강, 핑크)

### 3. 질감(texture)

메이크업의 디자인적 요소로서 형태와 색상을 살펴보았으나 질감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해체주의적 표현 방식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감은 광택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어 본 연구는 광택에 따라 글로시(glossy), 펄(pearl), 글리터(glitter)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광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사용 위치에 따라 부분사용, 전체사용, 전체와 부분사용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질감은 시각적, 촉각적 질감으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는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시각적 질감에 국한 하였다.

아래의 컬렉션은 세 가지의 광택에 따른 메이크업 사례이며 해체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94>는 검은 피부에 촉촉한 느낌의 글로시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림-95>는 펄의 느낌이 강한 광택을 가지고 있다.

<그림-96>은 강한 금색의 글리터를 부분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림-94> 2002 A/W  
Christian Dior



<그림-95> 2003-2004 A/W  
Christian Dior



<그림-96> 2004 S/S A/W  
Christian Dior

<표-12> 질감에 따른 유목표

해당범위	분류	사용형태
얼굴 전체 목 부분	글로시	얼굴 전체 사용
	펄	얼굴의 부분과 전체 사용
	글리터	얼굴 부분 사용

#### 4. 오브제(object)

메이크업에 있어 전통적으로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였으며 현대적인 기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이크업 오브제는 종이류, 보석류, 패브릭, 퍼(fur), 금속류, 인조 속눈썹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오브제는 개별적인 소재이용에 그치지 않고 그 소재 자체를 변형한 패턴을 창출하거나 소재를 복합하여 새로운 오브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오브제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 패턴 등을 결합하여 무한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오브제는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도 오브제를 통한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요소를 찾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실제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오브제요소 자체만이 아닌 다른 디자인적 요소인 형태, 색상, 질감 등과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체 메이크업은 양식의 혼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이중 꼴라주 기법은 해체 메이크업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컬렉션은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과 기법을 활용하여 해체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례들이다.

### **a. 종이류(paper)**

종이는 메이크업의 주요 소재로서 두께, 질감, 색상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종이는 원시미술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조형언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로써 현대 인간생활의 필수품이다.

현대미술에서 종이소재는 입체주의 뼈빠에 꼴레를 기점으로 회화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이는 색상과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 붙임으로써 개성적인 표현이 가장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는 종이류의 소재로는 색종이, 반짝이는 질감의 스티커류, 색 테이프, 셀로판지, 금·은박지, 신문지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b. 인조 보석류(synthetic jewelry)**

인조보석류에는 스팅글, 비즈, 스톤, 크리스탈, 글리터 등의 반짝이는 소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소재들은 화려함과 환상적인 분위기, 미래적인 느낌의 표현을 연출한다. 특히 공연예술의 메이크업 적용에 적합한 소재로서 무대연출에 조명과 함께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보석류는 사진 상으로는 종류구분이 어려우므로 부분사용과 전체사용으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본연구도 종류 보다는 사용부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c. 패브릭(fabric)**

패브릭은 자유롭게 오리고 싸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조형적인 디자인에 이용된다. 또한 촉각적인 자극을 주는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주로 많이 사용된 종류로는 망사, 레이스 등이 있다.

#### d. 퍼(fur)

털은 고대로부터 인체를 장식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소재로써 사용되어 왔는데 새의 깃털, 동물의 털 등이 동물적 요소를 유발하며 독특한 표현 효과를 나타낸다.

#### e. 금속류(metal)

금속류는 비교적 무겁고 딱딱하며 차가운 느낌을 지니는데, 합금의 성질이 있어 용도에 따라 가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성질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형태의 이미지로 나타나며 조명에 의한 반사효과로 인해 미래적이고 전위적인 느낌을 준다.

#### f. 인조 속눈썹(synthetic eyelash)

인조 속눈썹은 눈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미용적 목적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조형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과장·변형된 형태의 인조속눈썹이 새로운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종류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창출한 메이크업 기법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래와 같은 컬렉션에서 볼 수 있다.

<그림-97>은 종이나 은박지를 잘라서 붙여 놓은 메이크업이다.

<그림-98>은 패브릭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오려 얼굴에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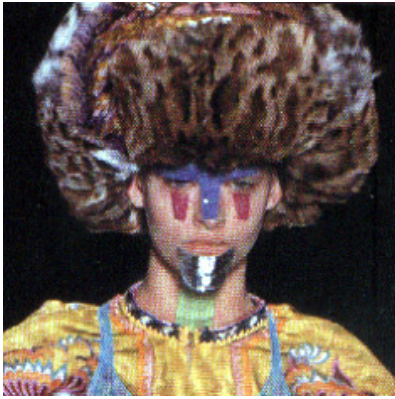
<그림-99>는 망사를 오려 붙여 얼굴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다.

<그림-100>은 철사로 모양을 만들어 얼굴의 일부를 덮고 있다.

<그림-101>은 철망을 얼굴 전체에 어서, 펜싱의 투구처럼 보인다.

<그림-102>는 퍼(fur)를 이용하여 눈의 전체를 붙였다.

<그림-103>은 금속판과 변형된 인조 속눈썹을 뜻하지 않는 위치에 붙여 놓았다.



<그림-97> 2002 S/S  
Christian Dior



<그림-98> 2003 S/S  
Christian Dior



<그림-99> 2003 S/S  
Christian Dior



<그림-100>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101> 2004 S/S  
Christian Dior



<그림-102> 2003 S/S  
Christian Dior



<그림-103> 2002 S/S  
Christian Dior

<표-13> 오브제에 따른 유목표

소재	종류	형태와 색상
오브제	종이류	셀로판지, 금박, 은박, 다양한 색상
	인조보석류	전체 또는 부분으로 사용
	패브릭	레이스 나 반짝이는 소재 형태
	퍼(fur)	새의 깃털 형태
	금속류	금색, 은색의 색상
	인조 속눈썹	변형된 형태

## V. 연구문제의 도출 및 연구방법

### A. 연구문제의 도출

본 연구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이 현대 사회의 패션 현상으로 나타나며 메이크업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있다. 해체주의는 시대사조로서 개인적인 표현의 수단인 메이크업은 하나의 공유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사회전반으로 침투, 확산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잡지나 컬렉션은 이 같은 새로운 이념적 사상적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되는데 이들 컬렉션 중 오피꾸뜨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조형적인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에서 해체주의적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개념화한다.

또한 해체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메이크업에서도 해체주의적 경향이 과거보다 최근에 더욱 활발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데리다의 이론을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세 가지를 핵심적인 구성으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적 특성을 퇴폐성, 유희성, 역사성, 양성성 으로 코드화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문제 1

- \* 형태적 측면에서 현대메이크업으로서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부위는 해체주의적 특성인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더욱 다양한 표현 방식이 나타날 것이다.
- \* 색상 측면에서 현대메이크업은 피부 톤을 포함하여 다양한 색상의 얼굴 베이스 표현 방법을 보일 것이다.
- \* 질감 측면에서 현대메이크업은 글로시, 펄, 글리터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보일 것이다.
- \* 오브제 측면에서 현대메이크업은 종이류, 인조보석류, 패브릭, 퍼, 금속류, 인조속눈썹 등 다양한 표현 소재방식을 보일 것이다.

#### 연구문제 2

- \* 형태측면에서 과거(14년 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해체주의적 특성에 따라 더욱 다양한 표현



방식을 보일 것이다.

- \* 색상 측면에서 과거(14년 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해체주의적 특성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색상의 얼굴베이스 표현방식을 보일 것이다.
- \* 질감 측면에서 과거(14년 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해체주의적 특성에 따라 글로시, 펄, 글리터 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보일 것이다.
- \* 오브제측면에서 과거(14년 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해체주의적 특성에 따라 종이류, 인조보석류, 패브릭, 퍼, 금속류, 인조속눈썹 등 다양한 소재의 표현방식을 보일 것이다.

### 연구문제 3

- \* 해체주의이론의 특성에 따라 현대메이크업은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의 다양한 혼합적 표현방식을 보일 것이다.
- \* 해체주의적 특성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두드러짐으로써 과거보다 최근에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의 혼합된 표현방식이 증가 할 것이다.

## B.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선행연구에는 해체주의적 특성과 관련하여 문헌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특성의 동향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전위적이고 최신유행을 선도하는 오뚜꾸뜨르 컬렉션을 선택하여 지난 14년간의 해체주의적 메이크업과 관련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행 또는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이 특정 인물의 동일 메이크업 내에서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등의 차원에서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며, 얼굴 부위 간에도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므로, 이들 혼재 현상에 대해서 메이크업, 디자인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지난 1994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14년간의 오뚜꾸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사진 중 매년 30매의 샘플 사진을 선별하여 14년 간 총 420매를 연구대상 샘플로 이용하였

다. 이에 앞서 해체주의이론에 입각하여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의 특징이 메이크업 디자인에 표출되는 현상을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등 4개 차원으로 대분류 하였다. 형태적 차원은 눈, 눈썹, 입술, 볼, 얼굴 등 부위의 메이크업 패턴에 있어 해체주의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코딩 시트를 개발하였다.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디자인이 실제 420매의 사진 샘플에 나타나는 패턴이나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메이크업 분야의 전공자 및 실무전문가 6인을 채용하여 사전에 제작된 코딩시트에 기입 하도록 하였다. 각 전문가는 420매에 이르는 샘플 사진을 보고 각 샘플 사진마다 코딩시트에 기입 하는 매우 힘든 작업을 거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실시한 다음 해체주의 메이크업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샘플 사진들을 분류하여 대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문헌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판단자 6인의 코딩 시트를 가지고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차원 현상 및 추세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정성적인 사례조사와 정성적 자료를 코드화해서 정량적 분석 방법을 채용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해체주의적 특성이 현대메이크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기 위해서 지난 1994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14년 동안 오뚜꾸뜨르 컬렉션의 사진을 스캔하여 전문가 6인에게 독립적으로 해체주의적 특성을 각 사진마다 표시하도록 하였다.

코딩 시트는 각 디자인적 요소의 세부항목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코딩 시트와 같다.

## C. 코딩시트의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데리다 해체이론이 현대메이크업에 적용됐을 때 그 변화양상과 특징을 분석 하기 위해 오뚜꾸뜨르 컬렉션에서 디자인적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이크업의 패턴을 조사하기위해서 코딩 시트를 개발 하였다. 설정 개발의 논리적 기초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 된 부분을 참고하였으며 일반적 관찰에 비해서 해체주의적 표현방식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이크업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2 참조). 설문지를 수집하여 빈도분석을 한 후 가장 빈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내용 타당도에 대한 최종 검증과 토의를 거쳐 본 연구의 코딩 시트를 확정지었다.

## 형태적 디자인 요소

### 1: 해체 메이크업 형태

1-1: 연도별 눈썹 메이크업의 형태

1-2: 연도별 눈 메이크업의 형태

1-3: 연도별 입술 메이크업의 형태

1-4: 연도별 볼 메이크업의 형태

1-5: 연도별 얼굴 메이크업의 형태

## 색상적 디자인 요소

### 2: 해체 메이크업의 얼굴 피부의 색상패턴

## 질감적 디자인 요소

### 3: 해체 메이크업의 질감

3-1: 해체 메이크업의 글로시

3-2: 해체 메이크업의 펄

3-3: 해체 메이크업의 글리터

## 오브제 디자인 요소

### 4: 해체 메이크업의 오브제

4-1: 인조보석류

4-2: 패브릭

4-3: 종이류

4-4: 퍼

4-5: 인조 속눈썹

4-6: 금속류

실제 연구에 사용한 코딩시트는 아래와 같다.

코딩 시트

1. 형태	1. 눈썹	1. 점 형태 3. 변형 눈썹 5. 추상적 문양 7. 터치 형태 9. 위치 이탈 눈썹	2. 눈썹 연장 4. 이색 색상 눈썹 6. 두꺼운 형태 8. 무 형태 10. 정상 위치 눈썹
	2. 눈	1. 점 형태 3. 선과 면 함께 사용 5. 앞 강조 7. 속눈썹 변형의 형태 9. 추상적 문양	2. 면 형태 4. 끝 강조 6. 위, 아래 강조 8. 새도우 확장
	3. 입술	1. 모양 변형 3. 붉은색 계열을 제외한 색 5. 무 형태	2. 외각 라인만 그림 4. 일부 형태 부여
	4. 볼	1. 흩어진 확장형태 3.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제외한 색상	2. 타원형 형태
	5. 얼굴	1. 패치 형태 3. 추상적 문양	2. 구상적 문양 4. 얼굴 축소
2. 색상	피부 톤을 제외한 다양한 색상의 얼굴 베이스(Base)	1. 흰색 3. 갈색 5. 노랑 7. 녹색	2. 검정 4. 빨강 6. 파랑 8. 핑크
3. 질감	1. 글로시 (glossy)	1. 얼굴 전체 사용 3. 얼굴의 일부와 전체 사용	2. 얼굴 부분 사용
	2. 펄(pearl)	1. 얼굴 전체 사용 3. 얼굴의 일부와 전체 사용	2. 얼굴 부분 사용
	3. 글리터	1. 얼굴 전체 사용 3. 얼굴의 일부와 전체 사용	2. 얼굴 부분 사용

4. 오브제	1. 인조 보석류	1. 부분 사용	2. 전체 사용
	2. 패브릭	1. 레이스	2. 금, 은 색상
	3. 종이류	1. 셀로판지 3. 다양한 색상	2. 금, 은박
	4. 퍼(fur)	1. 새의 깃털	2. 동물의 털
	5. 인조 속눈썹	1. 막대기의 변형	2. 일반적 변형
	6. 금속류	1. 금, 은색의 금속	2. 철망

메이크업의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의 세부항목을 디자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항목끼리 묶어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해체주의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 전통적인 메이크업 방법이나 차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눈썹 메이크업에 있어서 정상 위치가 이에 해당한다.

유사성에 따라 묶어진 항목

형태	눈썹	1. 변 형태: 점 형태. 눈썹 연장. 변형된 눈썹. 두꺼운 형태 2. 비정형 문양: 이색 색상 눈썹. 추상적 문양 3. 탈정형태: 터치 형태. 무 형태 4. 비정형 위치: 위치 이탈 눈썹
	눈	1. 비정형: 점 형태. 면 형태. 선과 면 함께 사용 2. 일부 강조: 앞 강조. 위, 아래 강조. 3. 탈 정형: 속눈썹 변형의 형태. 추상적 문양
	입술	1. 비정형: 외각 라인만 그림. 일부 형태 부여 2. 탈정형태: 모양 변형. 무 형태
	볼	1. 비정형: 타원형 형태 2. 탈정형: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제외한 색상
	얼굴	1. 구상적 문양 형태: 패치 형태. 구상적 문양 2. 추상적 문양 형태: 추상적 문양. 얼굴 축소

색상	피부 톤을 제외한 다양한 색상의 얼굴 베이스(Base)	1. 흰색, 검정 2. 다양한 색상: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핑크 제외: 갈색
질감	1. 글로시 2. 펄 3. 글리터	
오브제	1. 보석, 금속 2. 패브릭, 종이 3. 퍼, 인조 속눈썹	

## D. 전문가의 선정 및 사진의 평가

지난 14년에 걸친 오두꾸뜨르 컬렉션을 매년 30매씩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무작위로 선정을 하되 디자이너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디자이너의 작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진 컬렉션의 해체주의특성이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6인의 평가를 합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문가 6인 선정은 메이크업 분야의 대학 교수와 현장실무자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자의 해체주의 특성 연구에 대한 연구목적은 이해하되 구체적인 연구문제의 검증에 대한 내용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알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각사진의 메이크업의 디자인적 표현에 대해서 숙고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매 사진 당 평가는 2분 이상 소요되었다.

따라서 전문가 개개인은 총 420매의 스캔된 사진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총 14시간에 이르는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각전문가는 약 3일에 거쳐 전체사진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매 사진을 볼 때마다 한 장의 코딩시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전문가 한명에 420매의 코딩 시트지가 나왔다. 전문가 6명이므로 총 2,520매의 코딩 시트를 수거하였다.

## VI. 실증분석

### A. 분석의 개요

전문가 6인이 작성한 코딩시트의 데이터를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해체주의적 주요 디자인 요소로서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4가지에 따른 세부적인 메이크업 표현방법으로써 얼굴 부위별 형태, 다양한 색상의 사용, 글로시 등 얼굴에의 질감적 사용, 다양한 소재의 사용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과 기간별 빈도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난 14년간 해체주의 메이크업 기법의 다양화와 빈도수의 증가에 대한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간을 4기간으로 나누고 기간별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메이크업 기법에 있어 상호 연관성과 혼재된 메이크업기법 사용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혼재성에도 불구하고 상호관련성이 높은 메이크업 기법 등이 존재하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차분석(cross tab)을 실시하였다.

## B. 메이크업의 형태적 요소에 관한 연도별 빈도 분석

### 1. 형태적 요소

#### a. 눈썹 메이크업

<표-14-1> 연도별 눈썹 메이크업의 유형

구분 연도	점 표현	라인 연장	형태 변형	다양한 색상	추상적 문양	라인 두께 확장	가벼운 터치	무 형태	위치 이탈	합계
1994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0	0
1998	56	0	1	24	0	9	0	0	0	90
1999	6	0	14	0	12	26	0	27	42	127
2000	0	5	8	7	30	6	0	22	60	138
2001	15	6	12	62	14	7	2	16	99	233
2002	12	0	46	5	15	7	0	18	72	175
2003	9	0	24	23	14	12	7	11	30	130
2004	0	6	23	6	25	10	7	7	96	180
2005	28	7	23	22	36	9	1	4	80	210
2006	0	7	17	18	7	0	13	28	90	180
2007	4	0	32	28	0	0	18	36	66	184
합계	130	31	200	195	153	86	48	169	635	1,647



해체 눈썹 메이크업 빈도에 대해서 지난 14년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은 해체적 눈썹메이크업 경향이 보이지 않다가 1998년부터 빈도수가 높아지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체적 눈썹메이크업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은 갑자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해체적 눈썹유형 9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유형은 위치이탈 형태이며 다음이 형태변형, 다양한 색상, 추상적 문양, 점 표현, 라인 두께 확장, 가벼운 터치, 라인 연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체주의 특성인 탈구성 표현 방식이 눈썹메이크업에서 실제 나타나고 다양한 유형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14-2> 연도별 정상위치 눈썹 메이크업 빈도변화 유형**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빈도	180	180	180	180	96	55	43	43	6	43	6	18	2	6	1,038

정상위치에서의 해체 눈썹 메이크업경향 빈도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정상 위치가 차지하다가 1998년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탈구성적 해체경향이 처음에는 정상 위치에서 이루어지다가 급격하게 그 현상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최근으로 볼수록 해체 경향으로써 탈구성적 현상이 짙어짐을 알 수 있다.

## b. 눈 메이크업

<표-15-1> 연도별 눈 메이크업의 유형

구분 연도	점의 형태	선의 형태	선과 면의 혼합 형태	눈 위아래 강조	속눈썹 변형 형태	눈의 앞쪽 강조	추상적 문양	합계
1994	0	7	0	0	0	0	0	7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2	0	0	2
1997	0	0	0	0	0	1	0	1
1998	38	1	21	1	0	0	2	63
1999	6	0	7	15	13	28	0	69
2000	13	0	11	16	30	0	8	78
2001	18	7	5	110	14	4	17	175
2002	7	0	18	20	13	16	18	92
2003	0	13	36	10	17	1	57	134
2004	6	6	65	0	14	0	91	182
2005	3	6	55	9	8	16	60	157
2006	6	0	36	12	30	6	52	142
2007	6	0	47	24	18	7	32	134
합계	103	40	301	217	159	79	337	1,236

눈 메이크업의 해체적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할 때 연별 빈도에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은 해체적 경향의 빈도가 약하게 나타났으나 1998년부터는 급증가 현상을 2001년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감소하였다가 현재 2007년까지 계속 지속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체적 유형의 빈도수가 추상적 문양, 선과 면의 혼합형태, 눈 위아래 강조, 속눈썹 변형형태, 점의 형태, 눈의 앞 강조, 선의 형태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체주의 탈 구성 현상이 200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최근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2> 연도별 눈 끝 강조 및 새도우 확장 빈도 변화

연도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눈끝 강조	88	92	105	98	60	62	88	30	71	16	0	8	16	30	764
새도우 확장	82	92	77	85	53	51	8	27	19	27	9	5	14	0	549

해체주의 경향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위의 두 가지 유형은 1994년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눈 메이크업의 해체적 경향이 이 두 가지 유형에서는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반대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c. 입술 메이크업

<표-16-1> 연도별 입술 메이크업 유형

연도 \ 구분	면의 형태	외각 라인만 사용	일부 형태	무 형태	합계
1994	0	7	0	0	7
1995	0	1	0	0	1
1996	0	0	0	0	0
1997	0	0	0	0	0
1998	0	17	58	21	96
1999	15	10	11	22	58
2000	13	31	16	12	72
2001	23	16	25	6	70
2002	114	7	35	2	158
2003	26	20	29	25	100
2004	56	0	26	27	109
2005	56	6	50	26	138
2006	73	8	13	35	129
2007	66	0	53	17	136
합계	442	123	316	193	1,074

연도별 입술 메이크업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을 때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빈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1998년부터 급증하였다. 2002년까지 다시 증가현상을 보이고 2003년 잠시 감소하다가 2007년까지 지속적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체적 입술 메이크업의 유형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순서는 면의형태, 일부형태, 무 형태, 외각 라인만 사용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해체적 경향의 탈 구성 적 요인이 연도가 최근에 올수록 지속적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2> 연도별 이색색상 사용형태 빈도변화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빈도	119	127	125	111	90	75	85	170	29	61	63	51	52	35	1,193

입술의 이색 색상 사용 빈도가 1994부터 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해체 경향에 있어 이색 색상 사용의 입술 메이크업은 다른 유형의 메이크업과 반대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d. 볼 메이크업

<표-17-1> 연도별 볼 메이크업 유형

연도 \ 구분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합계
1994	0	0	0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21	0	21
1999	21	6	27
2000	23	22	45
2001	42	127	169
2002	41	56	97
2003	8	24	32
2004	12	39	51
2005	19	18	37
2006	15	34	49
2007	7	69	76
합계	209	395	604

볼 메이크업의 유형을 2가지로 분류했을 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2001년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완만한 빈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적 메이크업 유형의 빈도수는 이색색상 사용형태가 타원형태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표-17-2> 연도별 볼의 산발적 형태 빈도변화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빈도	122	100	86	71	89	91	37	47	76	107	103	91	97	85	1,202

볼의 산발적 메이크업 형태의 빈도수는 1994년부터 점차적으로 빈도가 줄어들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메이크업 유형과 다르게 해체적 탈구성의 메이크업이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e. 얼굴 메이크업

<표-18> 연도별 얼굴 메이크업 유형

연도 \ 구분	패치형태	얼굴축소형태	구상적 문양	추상적 문양	합계
1994	5	3	0	0	8
1995	0	0	0	0	0
1996	0	0	0	0	0
1997	0	0	0	0	0
1998	0	69	13	1	83
1999	0	21	156	0	177
2000	0	98	46	27	171
2001	0	57	189	6	252
2002	0	20	159	0	179
2003	0	46	92	8	146
2004	11	51	61	0	123
2005	0	17	104	0	121
2006	13	14	110	12	149
2007	0	17	55	7	79
합계	29	413	985	61	1,488

연도별 얼굴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을 때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2001년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유형에 따른 빈도순서는 구상적 문양, 얼굴 축소형태, 추상적 문양, 패치의 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적 경향의 탈구성적 비정형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1999년부터 크게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색상 요소

<표-19-1> 연도별 얼굴 베이스 메이크업 색상 유형

연도\구분	흰색	검정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핑크	합계
1994	0	0	0	0	0	0	1	1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1998	29	30	0	0	0	0	0	59
1999	37	16	0	0	0	0	1	54
2000	23	22	0	0	0	0	23	68
2001	41	19	0	7	1	0	14	82
2002	22	25	0	0	0	0	7	54
2003	33	14	0	0	0	0	0	47
2004	6	6	0	0	0	6	9	27
2005	6	7	23	24	0	29	6	95
2006	30	38	18	13	0	17	0	116
2007	56	12	7	11	0	11	1	98
합계	283	189	48	55	1	63	62	701

얼굴 베이스 색상 유형을 7가지로 분류했을 때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핑크색 한 가지 색상 하나만 나타나다가 1998년부터는 흰색, 검정색이 급증하였다.

2002년부터는 색상의 빈도가 약간 줄었다가 2006년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얼굴 베이스 색상이 1998년 이후에 상당 수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19-2> 연도별 갈색 베이스 메이크업 유형에 대한 빈도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빈도	0	0	0	52	51	66	62	53	46	51	22	31	44	34	512

해체적 메이크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갈색 베이스 색상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997년부터 급증하여 지속적인 유지현상을 보이다가 2004년부터 다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3. 질감 요소

<표-20> 연도별 질감의 유형

구분 연도	글로시 1	글로시 2	글로시 3	합계	펄 1	펄 2	펄 3	합계	글리터 1	글리터 2	글리터 3	합계
1994	2	11	0	13	0	0	0	0	0	0	16	16
1995	1	0	0	1	0	0	0	0	0	0	0	0
1996	2	0	0	2	0	0	0	0	1	0	1	2
1997	2	0	0	2	0	0	0	0	0	0	0	0
1998	81	0	0	81	0	64	19	83	0	0	0	0
1999	130	0	1	131	0	3	23	26	5	0	0	5
2000	137	1	0	138	6	25	0	31	1	48	0	49
2001	59	1	1	61	59	37	7	103	4	116	1	121
2002	28	0	0	28	0	2	30	32	1	123	0	124
2003	95	0	1	96	5	12	41	58	0	71	0	71
2004	142	0	0	142	0	5	5	10	0	157	1	158
2005	54	0	10	64	7	16	26	49	1	142	0	143
2006	73	0	1	74	6	21	43	70	0	124	0	124
2007	41	0	0	41	0	0	137	137	0	80	0	80
합계	847	13	14	874	83	185	331	599	13	861	19	893

질감의 유형을 글로시, 펄, 글리터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글로시는 다른 유형의 사용 빈도에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이다가 2000년 급증하여 2004년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펄의 사용은 1997년까지 전혀 보이지 않다가 1998년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글리터의 사용은 1994년 얼굴 일부와 전체사용의 빈도가 비교적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부터 증가하여 2004년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후 글리터의 사용이 조금씩 감소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질감의 사용이 연도가 최근에 볼수록 빈번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4. 오브제 요소

<표-21-1> 연도별 오브제의 유형

구분 연도	인조 보석류 전체사용	글리터 패브릭	셀로판지	금은박 종이	다양한 색상종이	깃털	동물털	막대형 속눈썹	일반형 변형 속눈썹	금은색 금속	철망	합계
1994	15	1	0	0	0	0	0	0	0	0	0	16
1995	2	1	0	0	0	0	0	0	0	0	0	3
1996	0	0	0	0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0	0	0	0
1998	0	0	65	0	12	0	0	0	13	0	0	90
1999	0	41	0	29	0	0	0	0	130	54	0	254
2000	1	106	11	52	24	8	0	0	39	99	30	370
2001	1	34	102	39	6	22	0	0	177	107	5	493
2002	0	150	8	17	31	35	0	0	152	23	67	483
2003	0	52	25	36	57	8	0	0	80	49	0	307
2004	0	138	33	114	36	0	0	2	85	48	0	456
2005	0	105	57	70	28	1	2	1	127	63	7	461
2006	0	97	29	83	11	16	9	1	151	77	13	487
2007	0	62	48	31	13	0	22	7	61	65	22	331
합계	19	787	378	471	218	90	33	11	1,015	585	144	3,751

오브제의 유형을 11가지로 분류했을 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인조 보석류와 글리터 패브릭 유형만 약간 보이다가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 다시 급증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가장 높은 오브제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오브제의 이용 빈도가 안정적으로 높은 사용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0년대에서는 오브제의 사용이 거의 없다가 후반 2000년대 이후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오브제로서 변형 눈썹, 글리터, 패브릭, 금은색 금속, 금은박 종이, 셀로판지, 다양한 색상 종이, 철망, 깃털, 동물 털, 인조 보석류 전체사용, 막

대형 눈썹사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적 메이크업에서는 오브제의 사용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2> 연도별 보석류와 레이스 이용에 대한 빈도

연도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인조 보석류 부분 사용	79	66	90	71	37	57	8	110	10	65	60	96	78	112	939
레이스 패브릭	71	112	93	92	82	26	0	11	17	15	7	0	0	1	527

인조보석류와 레이스, 패브릭은 전반적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조 보석류의 부분 사용은 2000년에는 줄었다가 2001년 급증 하였다.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레이스, 패브릭은 1999년까지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다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사용 빈도는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이크업 유형이 오브제는 해체적 메이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 C. 기간별 차이 분석

### 1. 형태적 요소

#### a. 눈썹

<표-22> 눈썹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구분 기간	눈썹				빈도합계 (평균값)
	변 형태	비정형문양	탈정형태	비정형위치	
1기 1994~1997	0	0	0	0	0
2기 1998~2000	2.333	1.333	0.667	0.667	118.3
3기 2001~2004	3.250	1.750	1.500	1.000	179.5
4기 2005~2007	2.333	1.667	1.333	1.000	191.3
평균값	1.929	1.143	0.857	0.643	
F값	12.518	12.210	4.139	12.738	
유의도	.001	.001	.038	.001	

해체적 눈썹메이크업의 유형이 3기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4기간 간에 평균 빈도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간별 차이분석을 한 결과 유의도가 0.05 이하로 나오면 유의하므로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 기간별 차이분석이 확실함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기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눈썹 메이크업에 있어 형태적으로 점 표현, 라인연장, 형태변형, 라인확장은 유사한 변의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변 형태로 명명하였다. 변형태 내에 있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빈도를 합하여 1기~4기 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성을 갖고 있고, 기간이 최근으로 올수록 과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해체주의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 빈도에 기초한 자료로 눈썹메이

크업형태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2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눈썹 내에 변형태, 비정형문양, 탈정형태, 비정형위치를 보면 1기~4기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메이크업기법이 다양화되고 빈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유의도 역시 .05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기간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체주의적 특성인 다양한 메이크업기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빈도 또한 기간별로 증가하고 있어 눈썹에 있어 해체주의적 메이크업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눈**

**<표-23> 메이크업 눈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기간 \ 구분	눈			빈도합계 (평균값)
	비정형형태	일부강조	탈정형	
1기 1994~1997	0.250	0	0	2.5
2기 1998~2000	2.000	1.000	1.000	70
3기 2001~2004	2.250	1.250	1.750	145.8
4기 2005~2007	2.000	2.000	2.000	144.3
평균값	1.571	1.000	1.143	
F값	22.063	8.788	10.866	
유의도	.000	.004	.002	

눈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표-2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눈 메이크업 형태 내에 비정형 형태, 일부 강조, 탈정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눈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에 관한 유의도가 .05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눈썹메이크업 형태와 마찬가지로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형 메이크업 형태가 1기에는 0.250을 보이고 있지만 4기로 갈수록 대체적인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강조 메이크업 역시 1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2기~4기까지 점차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 강조 형태의 메이크업이 기간별로 다양성 및 빈도의 증가경향을 보이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 정형 형태 역시 1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2기 1, 3기 1.750, 4기 2.000을 나타내면서 증가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정형 형태, 일부 강조, 탈 정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모두 기간이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화, 빈도 증가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체주의적 특성이 눈 형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다양한 눈 메이크업 기법이 최근에 올수록 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c. 입술

<표-24> 입술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기간	구분	입술		빈도합계 (평균값)
		비정형	탈정형	
1기 1994~1997		0.250	0	2
2기 1998~2000		2.000	1.667	75.3
3기 2001~2004		1.750	1.750	109.3
4기 2005~2007		1.667	2.000	134.3
평균값		1.357	1.286	
F값		10.842	22.213	
유의도		.002	.000	

입술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표-2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입술 형태 내에 비정형과 탈 정형 이라는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형태의 유형 내에 다양한 메이크업 기법들이 나타나면서 1~4기까지 빈도도 대체적으로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분석 결과는 유의도 수준인 .05 이하로 나타나 입술 메이크업형태가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d. 불

<표-25> 불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기간	구분	불		빈도합계 (평균값)
		비정형	탈 정형	
1기 1994~1997		0	0	0
2기 1998~2000		1.000	0.667	31
3기 2001~2004		1.000	1.000	87.3
4기 2005~2007		1.000	1.000	54
평균값		0.714	0.643	
F값		-	12.738	
유의도		-	.001	

불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표-25>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기간별 차이는 비정형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탈정형의 경우 .001을 보이고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의 경우 이를 나타내는 빈도가 단일 개념이므로 다양성을 보임은 설명할 수 없으나, 탈정형과의 빈도의 합계는 1기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빈도분석에서 비정형형태가 1기~4기까지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실 기간별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탈정형의 경우 기간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양성과 빈도의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 얼굴

<표-26> 얼굴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 분석

기간	구분	얼굴		빈도합계 (평균값)
		구상적 문양형태	추상적 문양형태	
1기 1994~1997		0	0	2
2기 1998~2000		1.000	1.333	143.7
3기 2001~2004		1.250	1.500	175
4기 2005~2007		1.333	1.667	116.3
평균값		0.857	1.071	
F값		10.112	9.422	
유의도		.002	.003	

얼굴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표-26>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얼굴에는 구상적 문양형태와 추상적 문양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분석 유의도 값은 .002와 .003으로 나타나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상적 문양형태는 1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4기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상적 문양형태의 각 메이크업 기법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화되면서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상적 문양형태 역시 1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최근에 올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다양한 추상적 문양형태의 메이크업 기법들이 최근에 그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는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에 있어 얼굴 형태의 메이크업 기법과 그 빈도가 90년대 초·중반에는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둔 해체주의적 기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색상 요소

<표-27> 색상 메이크업 의 기간별 차이 분석

기간	구분	색상		빈도합계 (평균값)
		흰색, 검정	다양한 색상	
1기 1994~1997		0	0	0.3
2기 1998~2000		2.000	0.333	60.3
3기 2001~2004		2.000	1.250	52.5
4기 2005~2007		2.000	3.333	103
평균값		1.429	1.143	
F값		-	17.658	
유의도		-	.000	

색상 메이크업 형태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표-2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색상에는 흰색과 검정이라는 현저한 색상을 사용하는 기법이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색상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었다. 흰색과 검정색의 얼굴 베이스는 기간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색상의 경우 기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색상의 경우 유의도가 .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색상에 있어 1기~4기까지 다양한 색상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체주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색상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옅은 갈색 계통의 색상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날수록 원색 계열의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핑크색 등 강렬하거나 독특한 특성을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기법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세를 보인다고 알 수 있다. 또한 흰색, 검정의 경우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아 기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질감 요소

<표-28> 질감 메이크업 유형의 기간별 차이 분석

구분 기간	질감			빈도합계 (평균값)
	글로시	펄	글리터	
1기 1994~1997	0.250	0	0.250	9
2기 1998~2000	1.000	1.667	0.333	181.3
3기 2001~2004	1.000	1.500	1.000	251
4기 2005~2007	1.333	2.333	1.000	260.7
계	0.857	1.286	0.643	
F값	5.406	4.210	4.230	
유의도	.018	.036	.036	

질감 메이크업 유형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통하여 <표-28>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질감 내에는 글로시, 펄, 글리터라는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한 메이크업기법이 있다. 이 세 기법에 대한 기간별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1기~4기까지 세 기법 모두 유의도가 .05 수준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기간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시, 펄, 글리터는 1기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0.250을 유지하고 있지만 2기~4기 까지 빈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글로시나 펄 메이크업 기법보다는 글리터 메이크업 기법이 차이분석을 위한 변환 값을 볼 때 상대적으로 기간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글로시와 펄 메이크업기법이 글리터 메이크업 기법보다는 해체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메이크업 기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오브제 요소

<표-29> 오브제 메이크업 유형의 기간별 차이분석

기간 \ 구분	오브제			빈도합계 (평균값)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퍼, 인조속눈썹	
1기 1994~1997	0.250	0	0	5
2기 1998~2000	1.000	2.667	1.333	238
3기 2001~2004	1.250	4.000	1.750	435
4기 2005~2007	2.000	4.000	2.333	426.3
계	1.071	2.571	1.286	
F값	5.170	50.952	8.795	
유의도	.021	.000	.004	

오브제 메이크업 유형의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표-29>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오브제의 세부 유형은 보석·금속, 패브릭·종이, 퍼·인조속눈썹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간별 차이분석을 위해 ANOVA 테스트를 실시하여 얻은 유의도 값은 전부 .05 수준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유형의 1기~4기까지 기간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석·금속과 퍼·인조속눈썹의 경우 1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0.250을 유지하다가 2기에 1.000과 1.333이라는 수치를 보이게 되며 3기와 4기에서도 지속적인 빈도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오브제 메이크업의 세 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패브릭·종이 소재를 이용한 메이크업 기법은 1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기에서 급증하여 3기 4기에서는 그 다양성이나 빈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보석·금속이나 퍼·인조속눈썹보다 상대적으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D.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 1. 전체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표-30> 메이크업의 전체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색상	질감	오브제
눈썹	1.000							
눈	0.926**	1.000						
입술	0.926**	0.910**	1.000					
볼	0.965**	0.977**	0.945**	1.000				
얼굴	0.909**	0.885**	0.899**	0.918**	1.000			
색상	0.813**	0.886**	0.789**	0.848**	0.822**	1.000		
질감	0.788**	0.802**	0.871**	0.776**	0.771**	0.825**	1.000	
오브제	0.877**	0.959**	0.864**	0.932**	0.920**	0.880**	0.819**	1.000

\*:  $p < .05$ , \*\*:  $p < .01$

메이크업 전체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표-30>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먼저 눈썹, 입술, 볼, 얼굴, 질감, 오브제 모두  $p < .01$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각 요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해체주의 형태의 메이크업이 어느 일부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각 연관성을 지니며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해체주의 이론의 상호텍스트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눈썹과 질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눈썹에 어떠한 메이크업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글로시, 펄, 글리터 소재 유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재 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해체적 메이크업을 연출하여 미래의 불확정성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 2. 형태와 오브제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표-31> 형태와 오브제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피, 인조속눈썹
눈썹	1.000							
눈	0.926**	1.000						
입술	0.926**	0.910**	1.000					
볼	0.965**	0.977**	0.945**	1.000				
얼굴	0.909**	0.885**	0.899**	0.918**	1.000			
보석, 금속	0.664**	0.867**	0.697**	0.764**	0.675**	1.000		
패브릭, 종이	0.944**	0.950**	0.891**	0.958**	0.929**	0.784**	1.000	
피, 인조속눈썹	0.741**	0.841**	0.762**	0.819**	0.898**	0.757**	0.855**	1.000

\*:  $p < .05$ , \*\*:  $p < .01$

형태와 오브제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하여 두 가지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표-31>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먼저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피, 인조속눈썹 모두  $p < .01$  수준을 보여 주고 있어 각 요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체주의 특성상 상호 텍스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눈 메이크업에 패브릭 종이를 사용하면서 피나 인조 속눈썹을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러한 소재의 혼재성은 해체주의의 상호 텍스트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소재들의 결합이 해체적 메이크업의 불확정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 3. 색상과 질감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표-32> 색상과 질감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색상	글로시	펼	글리터
색상	1.000			
글로시	0.777**	1.000		
펼	0.703**	0.666**	1.000	
글리터	0.664**	0.662**	0.440	1.000

\*\* :  $p < .01$ , \* :  $p < .05$

색상과 질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3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색상 글로시, 펼, 글리터는 모두  $p < .01$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각 요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상 소재의 혼재성과 상호 텍스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의 결합들이 이루어져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색상과 글로시, 글리터가 동시에 사용되며 어떤 유형의 해체적 메이크업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해체메이크업은 소재와 형태의 혼재성에 의하여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주며 불확정성까지 이끌고 있다.



## E. 교차분석 결과

### 1. 눈썹과 눈 메이크업

<표-33> 눈썹과 눈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눈			합계
		비정형형태	일부강조	탈정형	
눈썹	변형태	19명 (2.3%)	66명 (7.9%)	41명 (4.9%)	126명 (15%)
	비정형문양	0명 (0%)	56명 (6.7%)	55명 (6.5%)	111명 (13.2%)
	탈정형태	18명 (2.1%)	17명 (2.0%)	33명 (3.9%)	68명 (8.1%)
	비정형위치, 정상위치	104명 (12.4%)	204명 (24.3%)	227명 (27.0%)	535명 (63.7%)
합계		141명 (16.8%)	343 (40.8%)	356명 (42.4%)	840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41.488	6	.000	

해체적 메이크업의 특성 간 상관관계분석에 이어 메이크업 유형인 눈과 눈썹메이크업의 교차관계를 <표-33>과 같이 도출하였다. 점, 선, 면을 가지고 탈구성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비정형 형태의 눈 메이크업과 눈썹과의 교차분석은 눈썹의 위치와 가장 교차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의 일부 강조에서도 눈썹의 위치와 가장 많이 교차함을 알 수 있다. 눈의 탈정형의 추상변형 형태에서도 눈썹의 위치와 가장 많은 교차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정형 눈 형태에서는 비정형 눈썹 메이크업 문양과의 교차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눈과 눈썹 메이크업의 교차관계는 눈썹의 위치와 가장 많은 교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차관계에 있어 유의도의 값이  $p < .05$  일 때 유의하므로 이 교차관계가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 2. 눈썹과 입술 메이크업

<표-34> 눈썹과 입술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입술			합계
		비정형	탈 정형	이색색상	
눈썹	변형태	15명 (2.1%)	11명 (1.6%)	56명 (7.9%)	82명 (11.6%)
	비정형문양	11명 (1.6%)	38명 (5.4%)	37명 (5.2%)	86명 (12.2%)
	탈정형태	18명 (2.5%)	32명 (4.5%)	10명 (1.4%)	60명 (8.5%)
	비정형위치, 정상위치	110명 (15.6%)	147명 (20.8%)	221명 (31.3%)	478명 (67.7%)
합계		154명 (21.8%)	228명 (32.3%)	324명 (45.9%)	706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47.525	6	.000	

입술과 눈썹 메이크업의 교차관계에 있어서 입술메이크업의 변형 형태인 비정형적 형태는 눈썹 메이크업의 위치와 가장 많은 교차를 하고 있다. 입술의 외각 라인만 그린다든지 일부 형태만 부여하는 탈정형적 형태도 눈썹의 메이크업 위치와 가장 많은 교차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입술 색상의 붉은색 계열을 제외한 이색 색상도 눈썹의 위치와 가장 많은 교차를 보이고 있다. 비정형 위치와의 밀접한 교차 관계에 이어 입술메이크업의 비정형 탈 정형 이색 색상들은 눈썹의 변 형태, 비정형 문양, 탈 정형형태, 위치순으로 교차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해체적 입술 메이크업은 눈썹의 위치와 가장 많은 교차관계를 나타내며 교차관계에 있어서 유의도의 값이  $p < .001$  이하이므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 3. 눈썹과 볼 메이크업

<표-35> 눈썹과 볼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볼			합계
		비정형	탈정형	산발형태	
눈썹	변형태	61명 (10.1%)	5명 (0.8%)	14명 (2.3%)	80명 (13.2%)
	비정형문양	55명 (9.1%)	11명 (1.8%)	7명 (1.2%)	73명 (12.1%)
	탈정형태	27명 (4.5%)	7명 (1.2%)	11명 (1.8%)	45명 (7.4%)
	비정형위치, 정상위치	268명 (44.3%)	41명 (6.8%)	98명 (16.2%)	407명 (67.3%)
합계		411명 (67.9%)	64명 (10.6%)	130명 (21.5%)	605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12.898	6	.045	

눈썹과 볼 메이크업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35>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볼 메이크업의 타원 형태의 비정형은 눈썹의 메이크업 위치와 가장 많은 교차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교차빈도는 16.2%를 나타내고 있는 볼의 산발 형태와 눈썹의 위치와의 교차이다. 해체적 메이크업에서 볼 메이크업과 가장 높은 교차관계는 눈썹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교차관계에 있어서 유의도의 값이  $p < .05$ 로써 유의함을 알 수 있다.

#### 4. 눈썹과 얼굴 메이크업

<표-36> 눈썹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얼굴		합계
		구상적 문양형태	추상적 문양형태	
눈썹	변형태	10명 (2.0%)	47명 (9.3%)	57명 (11.3%)
	비정형문양	19명 (3.8%)	22명 (4.4%)	41명 (8.1%)
	탈정형태	10명 (2.0%)	35명 (6.9%)	45명 (8.9%)
	비정형위치, 정상위치	108명 (21.4%)	254명 (50.3%)	362명 (71.7%)
합계		147명 (29.1%)	358명 (70.9%)	505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24.171	9	.004

눈썹과 얼굴 메이크업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36>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얼굴의 메이크업 추상적 문양일 때 눈썹 메이크업의 위치와 가장 높은(50.3%) 교차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교차빈도는 얼굴 메이크업이 구상적 문양일 때와 눈썹의 위치와 비교적 높은 교차빈도(21.4%)로 나타난다. 해체적 메이크업에서 얼굴과 가장 많은 교차성은 눈썹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교차관계에 있어서 유의도의 값이  $p < .005$ 로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 5. 눈썹과 색상 메이크업

<표-37> 눈썹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색상			합계
		흰색, 검정	갈색	다양한 색상	
눈썹	변형태	46명 (13.9%)	18명 (5.5%)	5명 (1.5%)	69명 (20.9%)
	비정형문양	25명 (7.6%)	35명 (10.6%)	10명 (3.0%)	70명 (21.2%)
	탈정형태	9명 (2.7%)	10명 (3.0%)	4명 (1.2%)	23명 (7.0%)
	비정형위치, 정상위치	65명 (19.7%)	83명 (25.2%)	20명 (6.1%)	168명 (50.9%)
합계		145명 (43.9%)	146명 (44.2%)	39명 (11.8%)	330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19.230	6	.004	

눈썹과 색상 메이크업 간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표-3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색상은 갈색과 눈썹의 메이크업 위치와 가장 높은 교차빈도(25.2%)를 보이고 있다. 다음 교차 빈도율은 65명(19.7%)을 나타내고 있는 흰색과 검정 색상임을 알 수 있다. 해체적 메이크업에서 색상과 눈썹에서 가장 높은 교차성은 눈썹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교차에 있어서 유의도의 값이  $p < .005$ 로써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할 점은 메이크업 색상이 흰색 또는 검정색일대 눈썹 메이크업에서 변형태가 비교적 높은 눈썹교차비율(13.9%)을 보이고 있다. 이는 흰색과 검정색의 현저한 색상과 눈썹의 변형태 메이크업과는 해체적 특징을 강화 시키는 결합으로 판단된다.

## 6. 눈썹과 질감 메이크업

<표-38> 눈썹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질감			합계
		글로시	펼	글리터	
눈썹	변형태	8명 (1.9%)	28명 (6.6%)	17명 (4.0%)	53명 (12.5%)
	비정형문양	8명 (1.9%)	4명 (0.9%)	17명 (4.0%)	29명 (6.8%)
	탈정형태	18명 (4.2%)	9명 (2.1%)	13명 (3.1%)	40명 (9.4%)
	비정형위치, 정상위치	94명 (22.2%)	121명 (28.5%)	87명 (20.5%)	302명 (71.2%)
합계		128명 (30.2%)	162명 (38.2%)	134명 (31.6%)	424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24.865	6	.000	

눈썹과 질감메이크업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38>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질감의 펄사용이 눈썹의 메이크업 위치와 가장 높은 교차빈도(28.5%)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시와 눈썹의 메이크업 위치의 교차 빈도가 94명(22.2%)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메이크업에서 눈썹과 질감에서 가장 높은 교차관계는 눈썹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에 있어서 유의도의 값이  $p < .001$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 7. 눈썹과 오브제 메이크업

<표-39> 눈썹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오브제			합계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퍼, 인조속눈썹	
눈썹	변형태	13명 (3.6%)	46명 (12.7%)	4명 (1.1%)	63명 (17.5%)
	비정형문양	8명 (2.2%)	(10.2%)	0명 (0.0%)	45명 (12.5%)
	탈정형태	14명 (3.9%)	15명 (4.2%)	0명 (0.0%)	29명 (8.0%)
	비정형위치, 정상위치	113명 (31.3%)	94명 (26.0%)	17명 (4.7%)	224명 (62.0%)
합계		148명 (41.0%)	192명 (53.2%)	21명 (5.8%)	361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40.194	6	.000	

눈썹과 오브제 메이크업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39>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오브제로서 보석, 금속이 눈썹의 위치와 교차빈도가 가장 높게(31.3%) 나타났다. 다음이 눈썹의 메이크업 위치와 패브릭이나 종이, 오브제가 94명(26.0%)으로 높은 교차빈도 나타내고 있다. 해체적 메이크업에서 눈썹과 오브제에서 가장 높은 교차관계는 눈썹의 메이크업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교차에 있어서 유의도의 값이  $p < .001$ 로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할 점은 패브릭이나 종이 오브제는 눈썹 메이크업으로서 위치뿐만 아니라 변형태와 비정형 문양과 비교적 높은 교차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패브릭이나 종이 오브제가 융합성이 높은 소재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 8. 눈과 입술 메이크업

<표-40> 눈과 입술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입술			합계
		비정형	탈 정형	이색색상	
눈	비정형형태	32명 (4.5%)	64명 (9.1%)	36명 (5.1%)	132명 (18.7%)
	일부강조	46명 (6.5%)	84명 (11.9%)	177명 (25.1%)	307명 (43.5%)
	탈정형	76명 (10.8%)	80명 (11.3%)	111명 (15.7%)	267명 (37.8%)
합계		154명 (21.8%)	228명 (32.3%)	324명 (45.9%)	706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46.126	4	.000	

눈과 입술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0>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눈 메이크업은 비정형 형태와 일부 강조, 탈정형으로 분류되며 입술 메이크업은 비정형, 탈정형, 이색색상으로 분류된다. 이들 교차항목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특색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체주의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르게 해체주의적 특성을 이용하기 위한 메이크업 유형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입술 메이크업의 이색 색상 사용과 눈 메이크업의 일부강조 기법은 높은 교차관계(25.1%)를 보이고 있다. 또한 눈에 있어서 탈 정형은 입술에 있어서 비정형에 76명(10.8%), 입술에 있어서 탈 정형에 80명(11.3%), 이색색상에 111명(15.7%)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타 교차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교차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 9. 눈과 볼 메이크업

<표-41> 눈과 볼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볼			합계
		비정형	탈정형	산발형태	
눈	비정형형태	68명 (11.2%)	14명 (2.3%)	25명 (4.1%)	107명 (17.7%)
	일부강조	177명 (29.3%)	27명 (4.5%)	54명 (8.9%)	258명 (42.6%)
	탈정형	166명 (27.4%)	23명 (3.8%)	51명 (8.4%)	240명 (39.7%)
합계		411명 (67.9%)	64명 (10.6%)	130명 (21.5%)	605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1.455	4	.835	

눈과 볼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1>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눈의 메이크업 형태인 비정형 형태와 일부 강조, 탈정형은 볼 메이크업의 비정형과의 교차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눈 메이크업의 비정형 형태와 비정형 볼 메이크업과의 빈도는 68명(11.2%), 일부 강조와 비정형과의 빈도는 177명(29.3%), 탈 정형과 비정형과의 빈도는 166명(27.4%)으로 나타나서 현저한 교차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 10. 눈과 얼굴 메이크업

<표-42> 눈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얼굴		합계
		구상적 문양형태	추상적 문양형태	
태	비정형형태	23명 (4.6%)	81명 (16%)	104명 (20.6%)
	일부강조	85명 (16.8%)	156명 (30.9%)	241명 (47.7%)
	탈정형	39명 (7.7%)	121명 (24%)	160명 (31.7%)
합계		147명 (29.1%)	358명 (70.9%)	505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17.823	6	.007

눈과 얼굴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눈 메이크업의 비정형형태와 일부강조, 탈정형 형태와 구상적 문양 형태와의 교차관계는 경우 일부 강조가 85명(1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추상적 문양형태의 경우 일부 강조가 156명(30.9%), 탈정형이 121명(24%)으로 상대적으로 비정형형태에서 보다 더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눈의 세부 속성에 따른 얼굴 메이크업 형태는 비교적 고루 분포하여 메이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11. 눈과 색상 메이크업

<표-43> 눈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색상			합계
		흰색, 검정	갈색	다양한 색상	
눈	비정형형태	12명 (3.6%)	11명 (3.3%)	10명 (3.0%)	33명 (10.0%)
	일부강조	44명 (13.3%)	41명 (12.4%)	17명 (5.2%)	102명 (30.9%)
	탈정형	89명 (27.0%)	94명 (28.5%)	12명 (3.6%)	195명 (59.1%)
합계		145명 (43.9%)	146명 (44.2%)	39명 (11.8%)	330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19.396	4	.001	

눈과 색상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눈 메이크업 일부 강조는 흰색, 검정, 갈색 색상의 사용이 비교적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눈의 일부 강조를 위해 색상을 매치한다든지, 또는 눈의 일부 강조의 형태와 매치하여 볼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흰색·검정, 갈색 색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갈색의 경우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있어 눈의 탈정형 메이크업 형태와 높은 동시 사용빈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눈의 추상화 메이크업 특성인 탈정형 메이크업은 갈색뿐만 아니라 흰색·검정 색상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 눈과 질감 메이크업

<표-44> 눈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질감			합계
		글로시	펄	글리터	
눈	비정형형태	40명 (9.4%)	21명 (5.0%)	40명 (9.4%)	101명 (23.8%)
	일부강조	53명 (12.5%)	92명 (21.7%)	39명 (9.2%)	184명 (43.4%)
	탈정형	35명 (8.3%)	49명 (11.6%)	55명 (13.0%)	139명 (32.8%)
합계		128명 (30.2%)	162명 (38.2%)	134명 (31.6%)	424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30.413	4	.000	

눈과 질감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눈과 질감 메이크업 요소 간 상호 어떠한 것이든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 메이크업의 일부 강조의 경우 펄의 사용이 가장 높은 92명(21.7%)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런 펄의 질감사용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눈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 13. 눈과 오브제 메이크업

<표-45> 눈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오브제			합계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퍼, 인조속눈썹	
눈	비정형형태	36명 (10.0%)	15명 (4.2%)	0명 (0.0%)	51명 (14.1%)
	일부강조	48명 (13.3%)	56명 (15.5%)	0명 (0.0%)	104명 (28.8%)
	탈정형	64명 (17.7%)	121명 (33.5%)	21명 (5.8%)	206명 (57.1%)
합계		148명 (41.0%)	192명 (53.2%)	21명 (5.8%)	361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38.944	4	.000	

눈과 오브제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5>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눈의 메이크업 속성인 비정형 형태와 일부 강조, 탈정형 등에서 보석이나 금속의 사용이 무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브릭·종이의 경우 눈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변형적인 특성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석·금속의 경우 그 특성이 얼굴 메이크업을 통해서 화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빈도가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 메이크업의 탈정형인 경우 패브릭과 종이 오브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33.5%)으로 나타났다.

## 14. 입술과 볼 메이크업

<표-46> 입술과 볼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볼			합계
		비정형	탈정형	산발형태	
입술	비정형	100명 (16.5%)	9명 (1.5%)	28명 (4.6%)	137명 (22.6%)
	탈정형	111명 (18.3%)	28명 (4.6%)	36명 (6.0%)	175명 (28.9%)
	이색색상	200명 (33.1%)	27명 (4.5%)	66명 (10.9%)	293명 (48.4%)
합계		411명 (67.9%)	64명 (10.6%)	130명 (21.5%)	605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8.788	4	.067	

입술과 볼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6>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입술의 표현 방식에 있어 비정형, 탈정형, 이색 색상 사용 모두에서 볼 메이크업의 비정형 형태가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볼의 메이크업에 있어 비정형 형태 즉, 타원형이나 흩어진 확장 형태를 통해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색 색상인 경우 볼 메이크업의 비정형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 15. 입술과 얼굴 메이크업

<표-47> 입술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얼굴		합계
		구상적 문양형태	추상적 문양형태	
입술	비정형	13명 (2.6%)	80명 (15.8%)	93명 (18.4%)
	탈정형	57명 (11.3%)	104명 (20.6%)	161명 (31.9%)
	이색색상	77명 (15.3%)	274명 (34.5%)	251명 (49.7%)
합계		147명 (29.1%)	358명 (69.9%)	505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20.261	6	.002

입술과 얼굴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입술과 얼굴 메이크업 형태 간 관계는 대체로 얼굴 메이크업에 있어 추상적 문양형태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형 입술 메이크업에 있어서 추상적 문양형태가 80명(15.8%), 탈정형에 있어 추상적 문양형태가 104명(20.6%), 이색 색상에 있어 추상적 문양형태가 358명(34.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술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상이나 위치변형 등 다양한 변화기법을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추상적인 문양형태가 매치하여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얼굴 메이크업이 추상적 문양형태인 경우 구상적 문양형태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비정형의 입술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입술과 색상 메이크업

<표-48> 입술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색상			합계
		흰색, 검정	갈색	다양한 색상	
입술	비정형	10명 (5.1%)	40명 (20.4%)	7명 (3.6%)	57명 (29.1%)
	탈정형	0명 (0.0%)	41명 (20.9%)	25명 (12.8%)	66명 (33.7%)
	이색색상	1명 (0.5%)	65명 (33.2%)	7명 (3.6%)	73명 (37.2%)
합계		11명 (5.6%)	146명 (74.5%)	39명 (19.9%)	196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40.362	4	.000	

입술과 색상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8>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입술 메이크업의 경우 비정형, 탈정형, 이색색상 표현 방식을 걸쳐 얼굴 색상이 갈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굴 색상의 표현에 있어 갈색의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메이크업 기법을 같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얼굴 메이크업 색상이 흰색이나 검정색일 경우 입술 메이크업이 비정형은 나타나지만 탈정형이나 이색 색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 17. 입술과 질감 메이크업

<표-49> 입술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질감			합계
		글로시	펄	글리터	
입술	비정형	40명 (9.4%)	24명 (5.7%)	36명 (8.5%)	100명 (23.6%)
	탈정형	36명 (8.5%)	29명 (6.8%)	58명 (13.7%)	123명 (29.0%)
	이색색상	52명 (12.3%)	109명 (25.7%)	40명 (9.4%)	201명 (47.4%)
합계		128명 (30.2%)	162명 (38.2%)	134명 (31.6%)	424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48.876	4	.000	

입술과 질감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9>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입술 메이크업의 경우 글로시, 펄, 글리터 등 다양한 소재와 별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메이크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메이크업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입술 메이크업의 이색 색상에 있어 높은 펄의 비율인데 기존의 색상이 아닌 특이한 색상을 사용하여 입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펄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통하여 전반적인 질감을 돋보이게 하고 촉촉한 느낌의 글로시나, 색상을 분산시키는 글리터 등은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 18. 입술과 오브제 메이크업

<표-50> 입술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오브제		합계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입술	비정형	34명 (14.7%)	38명 (16.5%)	72명 (31.2%)
	탈정형	52명 (22.5%)	40명 (17.3%)	92명 (39.8%)
	이색색상	62명 (26.8%)	5명 (2.2%)	67명 (29.0%)
합계		148명 (64.1%)	83명 (35.9%)	231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34.741	2	.000

입술과 오브제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50>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입술의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비정형과 탈정형 메이크업 기법은 기존 입술 모양을 변형하거나 입술의 일부에 형태를 부여하는 등 어떠한 조작을 통해서 원래 입술이 아닌 부분에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보석·금속, 패브릭·종이 소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색 색상의 경우 기존의 붉은색 계열을 제외한 색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색상을 돋보이게 하고 매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금속류 등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패브릭·종이, 오브제의 경우는 입술의 다양한 색상과 혼용하여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 볼과 얼굴 메이크업

<표-51> 볼과 얼굴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얼굴		합계
		구상적 문양형태	추상적 문양형태	
볼	비정형	65명 (16.1%)	171명 (42.3%)	236명 (58.4%)
	탈정형	16명 (4.0%)	30명 (7.4%)	46명 (11.4%)
	산발형태	28명 (6.9%)	94명 (23.3%)	122명 (30.2%)
합계		109명 (26.9%)	295명 (73.1%)	404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8.979	6	.175

볼과 얼굴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51>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볼 메이크업의 비정형성과 탈정형성, 산발적형태가 구상적 문양보다 추상적 문양 형태에 더 많은 교차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73.1%). 그러므로 해체적 메이크업의 볼과 얼굴의 교차 관계에서는 형태가 해체되고 있는 문양의 빈도가 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 20. 볼과 색상 메이크업

<표-52> 볼과 색상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색상			합계
		흰색, 검정	갈색	다양한 색상	
볼	비정형	10명 (5.1%)	121명 (61.7%)	39명 (19.9%)	170명 (86.7%)
	탈정형	0명 (0.0%)	18명 (9.2%)	0명 (0.0%)	18명 (9.2%)
	산발형태	1명 (0.5%)	7명 (3.6%)	0명 (0.0%)	8명 (4.1%)
합계		11명 (5.6%)	146명 (74.5%)	39명 (19.9%)	196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9.678	4	.046	

볼과 색상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5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볼 메이크업의 경우 비정형 형태의 라인이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대체로 얼굴색과 흡사한 갈색 계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의 다양한 색상이나, 완전히 흰색 또는 검은색 등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은 원색계통의 색을 이용하여 얼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격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비정형 형태인 모양을 그려서 볼의 면에 원색적인 색상을 표현하는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정형이나 산발적 형태와 같은 부분적인 라인이나, 강조를 위한 메이크업에서는 볼의 면에 원색적인 색상을 그리는 것보다는 오브제 등의 소재를 이용하거나 옅은 갈색 등으로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 21. 볼과 질감 메이크업

<표-53> 볼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질감			합계
		글로시	펄	글리터	
볼	비정형	110명 (31.5%)	52명 (14.9%)	67명 (19.2%)	229명 (65.6%)
	탈정형	0명 (0.0%)	27명 (7.7%)	0명 (0.0%)	27명 (7.7%)
	산발형태	0명 (0.0%)	83명 (23.8%)	10명 (2.9%)	93명 (26.6%)
합계		110명 (31.5%)	162명 (46.4%)	77명 (22.1%)	349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155.550	4	.000	

볼과 질감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5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볼 메이크업의 비정형인 경우 글로시, 펄, 글리터 소재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형 메이크업 기법은 볼 메이크업에 있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타원형 등 다양한 기법의 모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원형 등의 비정형 형태의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시나 펄, 글리터 등의 소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글로시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글로시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발적 형태의 경우 펄의 질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펄을 먼저 사용하여 화장의 효과를 극대화한 다음 산발적형태의 볼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의 메이크업 기법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 22. 볼과 오브제 메이크업

<표-54> 볼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오브제		합계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볼	비정형	17명 (9.8%)	57명 (32.8%)	74명 (42.5%)
	탈정형	0명 (0.0%)	18명 (10.3%)	18명 (10.3%)
	분산형태	74명 (42.5%)	8명 (4.6%)	82명 (47.1%)
합계		91명 (52.3%)	83명 (47.7%)	174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92.571	2	.000

볼과 오브제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5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볼 메이크업이 비정형인 경우 오브제에 있어 패브릭·종이 소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32.8%)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형 메이크업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대체로 타원형 메이크업을 지향하는 비정형 메이크업 메이크업기법을 사용할 경우 패브릭이나 종이소재의 면을 이용한 메이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볼 메이크업에 있어 산발적 형태 역시 보석·금속소재를 이용한 표현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42.5%)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석 및 금속 소재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으로써 면의 형태로 표현하기가 비교적 곤란한 보석 및 금속소재를 산발적인 볼 화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23. 얼굴과 질감 메이크업

<표-55> 얼굴과 질감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질감			합계
		글로시	펄	글리터	
얼굴	구상적 문양형태	18명 (5.0%)	0명 (0.0%)	0명 (0.0%)	18명 (5.0%)
	추상적 문양형태	110명 (30.8%)	162명 (45.4%)	67명 (18.8%)	339명 (95.0%)
Total		128명 (35.9%)	162명 (45.4%)	67명 (18.8%)	357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33.913	2	.000	

얼굴과 질감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55>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구상적 문양 형태보다 추상적 문양 형태에서 글로시, 펄, 글리터 소재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상적 문양 형태의 경우 나비나 꽃과 같은 모양이 드러나 있어 보는 사람이 형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로시나 펄, 글리터 질감을 통하여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문양을 통해 얼굴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추상적 문양의 형태는 직접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추상적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글로시, 펄, 글리터 질감을 통하여 부위를 강조하고 돋보이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적 문양 형태보다는 추상적 문양 형태에서 여러 질감의 사용이 대체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 24. 색상과 오브제 메이크업

<표-56> 색상과 오브제 메이크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오브제			합계
		보석, 금속	패브릭, 종이	퍼, 인조속눈썹	
색상	흰색, 검정	10명 (4.4%)	110명 (48.9%)	21명 (9.3%)	141명 (62.7%)
	갈색	2명 (0.9%)	82명 (36.4%)	0명 (0.0%)	84명 (37.3%)
합계		12명 (5.3%)	192명 (85.3%)	21명 (9.3%)	225명 (100%)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도	
		17.072	2	.000	

색상과 오브제 메이크업 형태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56>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색상에 있어 흰색·검정 소재를 사용할 경우 타 오브제 형태보다 패브릭·종이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얼굴 메이크업 시 갈색을 사용할 경우 역시 패브릭·종이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한 이유에 따른 편중현상보다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사용에 있어 대체적으로 패브릭과 종이 소재를 많이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 할 수 있다.



## VII.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해체주의를 주창한 자크데리다의 해체이론의 개념이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나는 현상을 고찰하기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자크데리다의 철학적 개념 전개와 함께 해체주의의 구체적 특성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찰하였다. 실증분석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주요차원을 도출하여 현대메이크업과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는데 이들 차원과 실제 메이크업에서 표현된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측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으로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의 오푸꾸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전문가 6인의 정성적 판단자료를 기초로 정량적인 자료를 도출하여 해체주의 경향의 메이크업을 빈도분석과 t검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철학적 사조인 해체주의를 바탕으로 메이크업의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관련 문헌을 토대로 이론적 개념화와 조사방법의 설계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자크데리다의 주요이론과 해체전략의 개념적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자크데리다의 해체전략의 구성 차원으로서 탈 중심성,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을 코드화하였으며 이를 좀 더 내용적으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특성을 각각 퇴폐성, 유희성, 역사성, 양성성과의 연계성을 시도하였다.

셋째, 해체 메이크업의 특성과 관련된 네 가지 특성을 조사하여 각각 퇴폐성이 그로테스크와 하위문화의 특징적 경향을 보이며 이에 해당되는 해체 메이크업을 데카당스 메이크업, 데테스테 메이크업으로 보았다. 유희성은 부조화, 미완성의 특징적 경향을 보이며 해당되는 해체 메이크업은 그래픽 메이크업, 꼴라쥬 메이크업으로 보았다. 역사성은 탈서구, 레트로의 특징적 경향을 보이며 코울 메이크업, 레이스리스 메이크업, 화이트 메이크업, 사이키델리키 메이크업, 글램 메이크업에 해당되며 양성성은 성의 혼재의 특징적 경향을 보이며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으로 보았다.

넷째, 메이크업에 적용된 해체전략기법으로는 자극적 장식, 이색적 컬러, 성적 노골화, 곤충이나 동물의 저속한 이미지, 블랙과 화이트칼라, 미래적 분위기, 남성이미지, 기하학적 형태, 회화적 기법, 이질적 소재 등을 제시하였다.

데리다 이론에 의한 해체 메이크업은 역사를 창조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하지만 과거-현재, 과거-현재, 현재-미래를 한 공간에 공존시킴으로써 자연의 특성을 지닌다. 자연의 특성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텍스트를 차용하여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T.P.O에 따른 메이크업에 형태를 해체하고 아프리카나 동양권의 메이크업 문화를 차용하여 서양과 동양을 경계를 해체하며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은유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메이크업을 탈피하여 통일성 원리를 해체한 이질성, 부적합성, 탈중심성을 띤 비대칭적 구성과 꼴라쥬 기법 사용 및 기하학적 모티브 등 소외된 타인을 인정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현대 메이크업에 적용 될 때 특징적 형태와 요소들이 어느 일정한 형식을 이루지 않고 서로 간에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체주의적 특성이 내재되어 표출될 것으로 추론하였는데, 실재 해체 메이크업의 특징적 형태와 요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가장 선구적인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는 오푸뜨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한 해체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인 형태와 소재의 혼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은 분류화 작업을 거쳤다.

첫째, 해체 메이크업의 조형적 요소를 점, 선, 면, 등의 형태적 차원, 색상적 차원, 질감적 차원, 오브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주요 메이크업 부위인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등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오푸꾸뜨르 컬렉션 중에서 매년 30개의 사진 추출 하였는데 14년 간 총 420개의 샘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각 샘플사진이 해체 메이크업의 특징을 형태적 차원, 색상차원, 질감 차원, 오브제차원에 해당하는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코딩 시트를 메이크업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하여금 각 샘플사진을 보게 한 다음 각 사진 별 코딩시트에 그 특성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해체 메이크업의 형태와 요소들을 찾아내어 코딩 시트지를 가지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기간별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기간은 14년을 4개의 기간으로 나누었는데 제1기는 1994-1997년, 제2기 1998-2000년, 제3기는 2001-2003년, 제4기는 2004-2007년이었다.

첫째, 형태적 조형 요소로서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등의 빈도분석 결과 눈썹은 탈정형적인 분석기간 중 초기에는 눈썹의 메이크업이 정상위치에 있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탈정형적인 비정상 위치 형태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눈 메이크업은 눈 끝 강조와 확장 형태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거나 나머지 탈정형적인 형태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 입술 메이크업은 비정형 및 탈정형태의 메이크업 패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볼 메이크업은 산발적 터치 형태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탈정형적인 형태들의 메이크업은 늘어나고 있다. 얼굴 메이크업의 탈정형적인 유형은 조사기간의 초기 연도에서는 낮은 빈도수를 보이다가 2001년경에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다가 그 후 약간씩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얼굴 베이스 색상 유형은 초기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8년부터 흰색과 검정색의 사용 빈도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색상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질감에 있어서는 글로시, 펄, 글리터 형식의 질감 등의 다양한 패턴의 사용이 최근으로 올수록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브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인조보석류, 레이스 패브릭 사용이 증가하다가 갈수록 줄어들고 나머지 오브제들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들의 빈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브제의 해체적 패턴의 증가와 질감의 해체적 패턴의 증가는 최근의 현저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14년간의 조사대상 기간에서 해체 메이크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7년까지를 3,4년 간격으로 묶어 총 4기로 나눈 기간별 차이분석을 ANOVA 테스트로 해본 결과 대부분의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디자인 패턴은 제1기에서는 거의 없거나 약하게 나타나다가 3기에 가서는 빈도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4기에 가서는 3기에 증가율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으로 올수록 해체주의적 메이크업 패턴은 증가하였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체주의의 탈구성 현상이 2000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해체 메이크업의 상호 텍스트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체 메이크업의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 차원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눈썹, 입술, 볼, 얼굴, 질감, 오브제 차원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유의도가  $p < .01$  이하로써 메이크업 차원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이는 해체 메이크업이 어느 한가지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차원들이 상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형태와 오브제, 색상차원과 질감차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차원 간에는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메이크업의 해체적 특징이 차원 내 및 간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차원 내 메이크업 부위들 간의 혼재현상과 차원 간 혼재현상을 보기 위하여 여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형태적 디자인 차원 내에서의 탈정형적인 눈썹메이크업 패턴과 또한 탈정형적인 눈 메이크업 패턴 간에는 탈정형적인 패턴이 혼재되어 더 높은 빈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실재 실증 분석결과도 일치하여 나타났다. 아울러 다양한 조합에의 한 패턴들 간의 탈정형적인 구체적 혼재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차원들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서 혼재현상을 파악하였는데 예를 들어 메이크업의 형태적 탈정형적인 패턴과 오브제의 탈정형적인 소재 사용패턴 간의 다양한 혼재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해체 메이크업은 소재의 혼재로 인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의 결합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들어 내며 해체 메이크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 2. 연구의 의의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탈현상,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의 특성으로 구조화해서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성적,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한 본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해체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가 문헌연구에 그쳤던 부분을 체계적인 이론적 개념화 및 조작적 코딩 방식을 통해 실증 분석을 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

둘째,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오투꾸뜨르 컬렉션을 바탕으로 메이크업의 해체적 형태와 요소들을 선별하였으므로 이 분야의 새로운 디자인적 형태와 소재적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셋째, 분석 방법에 있어서 상관관계분석과 교차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해체 메이크업의 차원들 간의 혼재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탈구성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적인 메이크업 혼재 패턴과 방식을 실증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데리다의 철학적 이론을 현대 메이크업에 적용시켜 메이크업에 있어서 무한한 예술적 적용가능성을 열었다.

##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이론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세 가지인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특성만 가지고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현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체주의의 다른 여러 이론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이 포함된 조사와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이크업 디자인적 차원도 본연구의 4개의 차원인 형태, 색상, 질감, 오브제를 도출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나 다른 여러 디자인 차원들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데리다 이론의 특성으로 제시한 세 가지 이외의 특성과 다른 여러 디자인 차원들과의 관계성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 메이크업 상황에 적용시켜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한 샘플 내에서의 분석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 특성이 메이크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헤어, 패션, 악세사리 등 다양한 장신구와 함께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연구의 집중적 탐구 측면에서 메이크업에 국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장르, 그리고 여러 신체 부위가 융합된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써 6인의 전문가를 자료 수집 원천으로 활용하여 정성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6인의 자료는 신뢰성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전문가를 자료원천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일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의 원천으로써 전문가 그룹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문가 그룹 대비 일반인인 그룹과의 지각이나 판단에서의 차이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써 오투꾸뜨르 컬렉션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종류의 컬렉션을 활용하여 컬렉션들 간의 차이점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분석 샘플이 인쇄매체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좀 더 시각적인 생동감을 높이기 위하여 영상 매체 자료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국내 및 역서 포함)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간 답게, 1997.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88.

김영호, 「시각디자인의 구성원리」, 태학사, 1998, p.13.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 구조주의」, 현암사, 1996.

— 「모더니즘의 예술」, 청하, 1991.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85.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8,

— 「메르로 폰티의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 「베르그송의 철학」, 민음사, 1991.

데이비드 매카시, 「팝아트」, 조은영 옮김, 열화당, 2003.

라이언, 「해체론과 변증법」, 나병철 옮김, 평민사, 1995.

루시 스미드, 「현대미술의 흐름」, 김춘일 역, 미진사, 1996.

로인 보인, 「데리다 푸코: 동일성의 차이」, 홍원표 역, 인간사랑, 1998.

박미문, 「현상학과 분석 철학」, 일조각, 1985.

박영욱, 「철학으로 대중문화 읽기」, 이룸, 2003.

브랜드 테일러,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김수기, 김진송 옮김, 시각과 언어, 1993.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92.

이일, 「현대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이학재, 「분장의 길」, 자유문화사, 1994.

이영철, 「현대미술과 모더니즘」, 시각과 언어, 1995.

엄소희·김문숙, 「현대복식의 패러다임-아방가르드 특성을 중심으로」, 경춘사, 2000.

유송옥·이은영·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9.

서성록, 편저, 「포스트 모던 비평, 미술 공론사, 1989.

스튜어트 심, 「데리다 역사의 종말」, 조현진역, 이제이박스, 2002.

이성원, 「데리다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7.

정삼근,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1996.

제프 콜린스, 「데리다」, 이수영 역, 김영사, 2003.

황정원, 「화장품학」, 현문사, 1995.

허버트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옮김, 을유문화사, 1991.

휴 실버만, 「데리다와 해체주의 철학과 사상」, 윤병호, 현대미학서, 1998.

페르낭 드 소쉬르, 「도상과 사상」, 최승언 역, 민음사, 1994.

Anne Hollender, 채금석 역, 「의복과 성」, 경춘사, 1996.

Castelbajac, K., Beauty and Health 연구회 역, 「메이크업 & 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0.

F. W. 폰 헤르만 지음, 「하이데거의 예술 철학」, 이기상, 강태성 옮김, 문예출판사, 1997.

H. 키멜레, 「데리다: 데리다 철학의 개론적 이해」, 서광사, 1996.

Habermas, J., 이형철 역, 「미술비평 30선」, 서울, 중앙일보, 1987.

Norbert Lynton, 윤난지 역, 「20세기 미술」, 예경, 1993.

R. Arnheim, 김춘일 편저, 「미술과 시지각」, 흥성사, 1980.

Renato Poggioli, 박상진 역, 「아방가르드 예술론」, 문예출판사, 1996.

Victoria Ebin, 임숙자 역, 「신체 장식」, 경춘사, 1988.

John Lewelyn, 서우식·김세중 역, 「데리다의 해체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MacQueen, J., 송낙현 역, 「알레고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Poster H., 윤호변 외 역, 「반미학」, 현대미학사, 1994.

Schmid, B. and Losch, 황현숙 역, 「패션의 클래식」, 예경, 2001.

Taylor B. 김수기·김진송 역,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리얼리즘」, 시각과 언어, 1993.

Wolfe, T. 박순철 역, 「현대미술의 상실」, 열화당, 1994.

Wong. W, 최길열 역, 「디자인과 조형론」, 국제, 1994.

## 2) 논문

김경옥, “현대 패션에 표현 된 키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민자,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987.

-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II)”, 복식 37호, 1998.
- 김영옥, “현대 복식에 내제된 해체 현상” 산업기술연구지 제7집, 1988.
- 김예성,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 김희화,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현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제주대학교, 2000.
- 김희정, “각 예술에 있어서 해체론의 비평적 가능성의 문제-자끄 데리다(J. Derrida)의 해체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은경, “알렉산더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변영희·채금석,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004.
- 서희선,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양윤정,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오세권, “텍스트 해석을 통한 후기모더니즘 미술의 비평적 접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원선영,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 디자인연구”,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수인,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 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 1999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조유나, “현대가구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 디자인 성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4.
- 조은별, “20세기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6.
-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1994.
- 한성철,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2. 해외문헌

- Andrew Benjamin and Peter Osborne edited, Walter Benjamin's Philosophy, Destruction and Experie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4.
- Coward, Harold, Derrida and Indian Philosoph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Culler, Jonathan,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s after Structuralism, 1983.
- Ellis, M. John, Against Deconstructi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G. Douglas Atkins, Reading Deconstruction, Deconstructive Reading,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3.
- Harman Rapaport, Heidegger & Derrida: Reflections on Time and Language,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9.
- Jacques Derrida, Edmund Husserl's Origin of Geometry: An Introduction, trans. by John, P., Leavey, JR.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1989.
- Jacques Derrida,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r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 Kearney, Richard, Dialogues with Contemporary Continental Thinker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 Maggie Angelou, A History of Make Up,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1970, p.24
- Norris Christopher, De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982.

## 3. 잡지

Book Moda  
Collezioni  
Gap Press

## 4. 인터넷

Daum.net 사전

<http://cafe135.daum.net>

<http://cafe322.daum.net>

<http://www.style.com>

<http://cafe196.daum.net>

<부록 1>

내용분석 코딩 시트

1. 일련번호		
2. 잡지	오뚜구뜨르	
3. 해당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 잡지발행일	1, S/S(1월말) 2, A/W(7월말)	
<b>연구문제(1)</b>		
5. 형태	1. 눈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 형태</li> <li>2. 눈썹 연장</li> <li>3. 변형 눈썹</li> <li>4. 이색 색상 눈썹</li> <li>5. 추상적 문양</li> <li>6. 두꺼운 형태</li> <li>7. 터치 형태</li> <li>8. 무 형태</li> <li>9. 위치 이탈 눈썹</li> <li>10. 정상 위치 눈썹</li> </ul>
	2.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 형태</li> <li>2. 면 형태</li> <li>3. 선과 면 함께 사용</li> <li>4. 끝 강조</li> <li>5. 앞 강조</li> <li>6. 위, 아래 강조</li> <li>7. 속눈썹 변형의 형태</li> <li>8. 새도우 확장</li> <li>9. 추상적 문양</li> </ul>
	3. 입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양 변형</li> <li>2. 외각 라인만 그림</li> <li>3. 붉은색 계열을 제외한 색</li> <li>4. 일부 형태 부여</li> <li>5. 무 형태</li> </ul>
	4. 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흩어진 확장 형태</li> <li>2. 타원형 형태</li> <li>3.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제외한 색상</li> </ul>
	5. 얼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패치 형태</li> <li>2. 구상적 문양</li> <li>3. 추상적 문양</li> <li>4. 얼굴 축소</li> </ul>

연구문제(2)		
6. 색상	피부 톤을 제외한 다양한 색상의 얼굴 베이스(Base)	1. 흰색 2. 검정 3. 갈색 4. 빨강 5. 노랑 6. 파랑 7. 녹색 8. 핑크

연구문제(3)		
7. 질감	1. 글로시	1. 얼굴 전체 사용 2. 얼굴 부분 사용 3. 얼굴의 일부와 전체 사용
	2. 펄	1. 얼굴 전체 사용 2. 얼굴 부분 사용 3. 얼굴의 일부와 전체 사용
	3. 글리터	1. 얼굴 전체 사용 2. 얼굴 부분 사용 3. 얼굴의 일부와 전체 사용

연구문제(4)		
8. 오브제	1. 인조 보석류	1. 부분사용 2. 전체 사용
	2. 패브릭	1. 레이스 2. 금, 은색상
	3. 종이류	1. 셀로판지 2. 금, 은박 3. 다양한 색상
	4. 퍼(fur)	1. 새의 깃털 2. 동물의 털
	5. 인조 속눈썹	1. 막대기의 변형 2. 일반적 변형
	6. 금속류	1. 금, 은색의 금속 2. 철망

## <부록 2>

### 사전조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로 쓰이는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논문 작성에 귀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논문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감사드리오며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학원생: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방수진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최영훈 교수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세요.

1. 귀하의 연령은?

20대( ) 30대( ) 40대( ) 50대( )

2.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3. 귀하의 종교는?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 무교( ) 기타( )

다음은 귀하의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대한 사전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주세요.

4. 귀하는 자크데리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5. 귀하는 해체주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6. 해체메이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다음 장에서는 해체주의경향이 강한 디자인요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해주십시오.

형태	1. 눈썹	1. 점 형태 3. 변형 눈썹 5. 추상적 문양 7. 터치 형태 9. 짧은 눈썹 11. 위치 이탈 눈썹	2. 눈썹 연장 4. 이색 색상 눈썹 6. 두꺼운 형태 8. 무 형태 10. 가는 선의 형태 12. 정상 위치 눈썹
	2. 눈	1. 점 형태 3. 선과 면 함께 사용 5. 앞 강조 7. 속눈썹 변형의 형태 9. 새도우 확장 11. 면의 형태	2. 면 형태 4. 끝 강조 6. 위, 아래 강조 8. 가운데 강조 10. 추상적 문양 12. 언더라인 강조
	3. 입술	1. 모양 변형 3. 붉은색 계열을 제외한 색 5. 무 형태 7. 입술축소	2. 외각 라인만 그림 4. 일부 형태부여 6. 외각라인 확장
	4. 볼	1. 흠어진 확장 형태 3. 타원 형태 5.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제외한 색상	2. 타원형 형태 4. 선의 형태
	5. 얼굴	1. 패치 형태 3. 얼굴 확장 5. 얼굴 축소	2. 구상적 문양 4. 추상적 문양 6. 도형 형태

색상	피부톤을 제외한 다양한 색상의 얼굴 베이스(Base)	1. 흰색 2. 검정 3. 갈색 4. 빨강 5. 노랑 6. 파랑 7. 녹색 8. 핑크 9. 회색 10. 보라
----	-------------------------------	--

오브제	1. 인조 보석류 3. 종이류 5. 인조 속눈썹 7. 프라스틱	2. 패브릭 4. 퍼(fur) 6. 금속류 8. 유리
-----	---	--

##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은 제 인생의 기간 중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잊지 못할 시간들 이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최영훈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과 동료들이 제 곁에 있어서 힘들 때 마다 진심어린 조언으로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작업을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문 작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셨던 김정현 교수님과 김정삼 교수님, 주용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이자 친구로 항상 우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현주 교수님, 김윤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12월

방수진 드림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학과	학 번	10141158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방수진    한문: 房秀珍    영문: BANG SU-JI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모아타운 1동 402호				
연락처	E-MAIL: bsj2382@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영어: A Study on Design Elements Expressed in Contemporary Make-up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 ○ ) 반대(    )

2007년 12월 31일

저작자: 방 수 진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